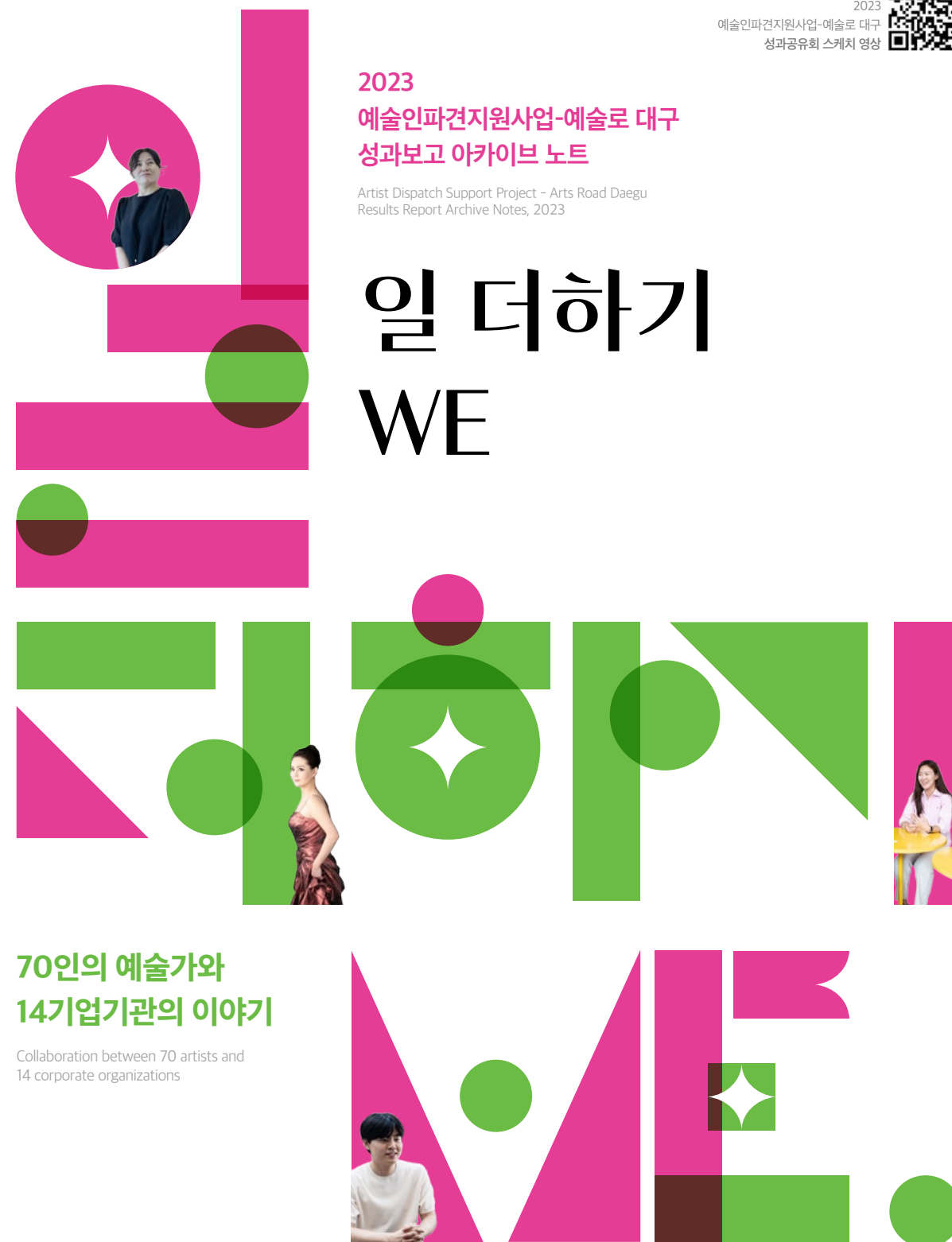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성과보고 아카이브 노트

Artist Dispatch Support Project - Arts Road Daegu
Results Report Archive Notes, 2023

일 더하기 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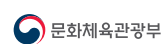


70인의 예술가와 14기업기관의 이야기

Collaboration between 70 artists and
14 corporate organizations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성과보고 아카이브 노트 일 더하기 WE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비매품 / 무료
03600

9 791190 514163
ISBN 979-11-90514-16-3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성과보고 아카이브 노트

Artist Dispatch Support Project - Arts Road Daegu
Results Report Archive Notes, 2023

일 더하기 WE

70인의 예술가와 14기업기관의 이야기

Collaboration between 70 artists and
14 corporate organizations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 4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아카이브 노트 여는 말
- 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소개
- 8 한 눈에 보는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 10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참여기업·기관(마을) 및 예술인
- 12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예술협업활동

- 14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커피조아
- 26 이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뉴진스(5인의 여성예술인)
- 38 에이치아츠 판타스틱클라보
- 50 (주)에스닷 닷(dot)
- 62 홀라(HOOLA) 북성로환상특급
- 74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어벤저스(50아티스트)

일 더하기 We.



- 86 마을문화센터숨씨협동조합(하빈PMZ평화예술센터) 예술로평화(배리어프리)
- 98 대명공연예술단체 와씨와씨
- 110 협동조합 농부장터 아트랙터
- 122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이륙(26)데이 프로젝트
- 134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억복잡소
- 146 더솔모 사회적 협동조합 너와 나의 솔모
- 158 달성미술관(달미) 달달한 예술에 취하다
- 170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다섯마리의 나비
- 182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성과공유회 '일 더하기 We'
- 189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일 더하기 We' 참여 기업·기관 및 예술인 만족도 조사
- 194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일 더하기 We' 보도자료 스크랩
- 195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일 더하기 We' 에피소드 사진집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아카이브 노트 여는 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이하 예술로 대구)는 일차적으로 예술인을 예술 이외의 영역인 기업·기관·단체 등과 만나게 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만나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예술직무영역 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예술로 대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2020년도 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였으며 올해로 사업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 내 총 230명의 예술인이 46개 기업·기관과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며 예술협업을 이뤄왔고, 팬데믹을 겪으며 일상을 잃었던 시기에도 예술의 역할은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었습니다.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을 인정하며 소통과 연결의 가치는 더욱더 소중해졌고 2023년도에는 참여기업·기관이 2개소 늘어 14개소가 참여하고 예술인도 선정 인원을 10명 늘려 14명의 리더예술인과 56명의 참여예술인이 14개 팀으로 매칭·파견되어 활동하였습니다. 9개 분야의 예술 장르가 연대하여 협업하며 관계를 풍요로이 하였고 금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200개 팀(43개 후보팀, 996명 예술인) 중 1팀을 선정 및 시상하는 신설된 우수사례시상 제도에서 예술로 대구 사업 참여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영예를 거두며, 지역문화와 기업기관의 우수성, 대구 예술인들의 저력과 역량을 널리 알렸습니다.

때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해 한정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상호 간 영역의 틈이 좁혀지는 데에 한계가 있어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창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기업의 영리 활동에 예술인들의 활동이 단순 활용되거나 예술인들의 재능이 기업의 요구 수준 내에서만 펼쳐져야 하는 등의 상황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사업에서 가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쟁점들이 부정적인 과정으로 흐르지 않고 팀을 이룬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창조적 문제 해결방식을 제안하고,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과 협업 및 창작을 경험하며 예술가로서 권리를 찾아 새로운 스펙트럼을 갖는 협업 활동의 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과 기업·기관은 기획·협업·소통을 하는 네트워킹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며, 사회는 예술인과 협업 활동을 통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사업이 의도한 효과, 즉 예술인들의 역량확장, 직무영역 확장, 창작 의욕 고취와 더불어 참여 기관의 조직 분위기 향상, 직무몰입도 및 조직생산성과 이미지 향상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보였습니다. 사회에 예술이 가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문제해결을 창의적으로 도모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인식개선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술인들의 노력이 돋보였고 기업·기관과 깊어진 유대관계는 본 사업에서 유의미한 산물입니다.

예술영역이 가진 비영리성 및 시장 실패 등으로 예술은 공공재원에 의존 해왔고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인해 예술가 대부분은 지원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아져 온 것이 실상입니다. 예술로 사업은 예술인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창조인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제고하고 '예술이 가지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사업의 여정을 함께해준 14개 기업·기관 (마을) 및 예술인의 예술협업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 박순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소개

사업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다채로운 직무영역 개발의 기회를, 기업·기관에게는 **사내의 이슈를 예술적인 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업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기관, 마을 등 사회와 협업하여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적 기획, 협업구조 제시를 통해 문화, 상업, 경제 등 사회전반에서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의 지역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복지혜택 확산 및 지원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신설된 사업으로 예술인 대상으로 약 6개월간 매달 120~1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지역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 및 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체



사업체계



활동유형 사례

상품기획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기업·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복리향상	사회공헌활동
기업·기관의 브랜딩(이미지, 제품 등), 예술적 가치 발상으로 창의적인 홍보·마케팅 구현(제언 또는 실현)	기업 내 조직문화 이슈에 대해 예술인들의 예술적 개입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 조성 및 임직원들의 문화예술적 복리 증진 도모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전반적인 수혜주체 및 지역사회와 문화활성화 상생에 기여

한 눈에 보는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사업기간

2023. 3월 ~ 12월(활동기간 5월 ~ 10월, (6개월))

사업목적

·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의 직업 역량 및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
· 예술과 사회의 협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토대 마련 및 예술인 스스로 예술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 구현

소요예산

555,424천원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참여기업·기관(마을) 및 예술인

연번	기업(기관명)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팀 명칭
		성명	분야	성명	분야	
1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김승민	음악	성태향	미술	커피조아
				김수진	영화	
				김재홍	미술	
				최은해	국악	
2	이천동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김보미	음악	임지혜	미술	뉴진스 (5인의 여성예술인)
				김보라	문학	
				권소현	미술	
				남가형	연극	
3	에이치아츠	이숙현	음악	황찰리	음악	판타스틱클라보
				신유경	음악	
				박승현	사진	
				이다은	연극	
4	(주)에스닷	조창희	국악	김동욱	미술	닷(dot)
				나재희	무용	
				배유진	국악	
				강민영	미술	
5	홀라(HOOLA)	김효선	음악	이준식	사진	북성로환상특급
				박지훈	미술	
				박세기	연극	
				김상덕	미술	
6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이희주	음악	이정우	음악	어벤져스 (50아티스트)
				신 응	미술	
				서찬영	음악	
				박한나	미술	
7	마을문화센터 숨씨협동조합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정하니	연극	백창하	연극	예술로평화 (베리어프리)
				김조은	미술	
				이 혁	미술	
				김현미	영화	

연번	기업(기관명)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팀 명칭
		성명	분야	성명	분야	
8	대명공연예술단체	권수은	연극	김지인	음악	와싸와싸
				이보람	음악	
				권효정	미술	
				정혜진	국악	
9	협동조합 농부장터	장하윤	미술	김인철	문학	아-트랙터
				윤 진	영화	
				박지수	음악	
				신준민	미술	
10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허재윤	국악	이한솔	음악	이륙(26)데이 프로젝트
				이해웅	연예	
				이보은	음악	
				김리아	미술	
11	북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박준우	음악	장재영	연예	기억복잡소
				이승희	미술	
				권영세	문학	
				박재현	영화	
12	더솔모 사회적협동조합	장재철	미술	박찬우	영화	너와 나의 쓸모
				이승재	연극	
				최윤경	미술	
				김희진	미술	
13	달성미술관(달미)	정세용	미술	송유식	음악	달달한 예술에 취하다!
				황세희	국악	
				남종호	영화	
				김현규	연극	
14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희움)	이상규	음악	김민선	연극	다섯 마리의 나비
				이상명	연극	
				정민경	연극	
				설성원	영화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예술협업활동

- 14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커피조아
- 26 이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뉴진스(5인의 여성예술인)
- 38 에이치아츠
판타스틱콜라보
- 50 (주)에스닷
닷(dot)
- 62 홀라(HOOLA)
북성로한상특급
- 74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어벤저스(50아티스트)
- 86 마을문화센터숨씨협동조합(하빈PMZ평화예술센터)
예술로평화(베리어프리)
- 98 대명공연예술단체
와씨와씨
- 110 협동조합 농부장터
아-트랙터
- 122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이륙(26)데이 프로젝트
- 134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억복잡소
- 146 더솔모 사회적 협동조합
너와 나의 솔모
- 158 달성미술관(달미)
달달한 예술에 취하다!
- 170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최음)
다섯 마리의 나비

Taste Good, Good Taste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Tel 070-4155-4601

Local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53 (수성동4가)

Instagram @goodtaste_coffee

Web 커피맛을조금아는남자.com

Good taste coffee,
사람다운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good taste coffee*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이하 커조남)는 대구 대표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로서 '맛있음'의 기준이 되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지점을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범어동의 본점을 필두로 로스팅 공장을 겸한 카페로 직영 2호 더 피크, 그리고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직영 3호 동성로,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 오너 파티쉐가 운영하는 직영 베이커리 사피디뜨, 그리고 22년 10월 오픈한 직영 4호 팔공산점과 15년간의 커피 노하우를 전수하는 커피 아카데미까지 운영 중이다. 커피와 베이커리를 만드는 모든 재료에 진심과 정성을 담은 커조남은 핸드드립 전문점으로써 다양한 추출 도구로 고객의 취향에 맞는 브루잉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핸드드립 외에도 시그니처 커피인 '로마노', '아몬드아마레또' 등 커조남만의 특색을 담은 메뉴로 고객의 취향을 찾고 있다. 조금 아는 것을 넘어 '맛있음'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를 소개한다.

사업분야



식음료 사업/전문 클래스 운영
원데이, 홈바리스타클래스, 바리스타2급 자격증,
창업교육 등



MD상품 제작 및 판매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본점 전경



*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김수진 이사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를 소개해주세요. 또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대구 대표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이자 핸드드립 전문점으로써 16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업부터 지금까지 바리스타들의 근속기간이 긴 편입니다. 일반적인 바리스타들의 근속기간이 2~3년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저희는 평균 5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자랑하며, 10년 차 이상인 구성원이 5명, 7년 차 이상인 구성원이 2명 등 오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브랜드와 구성원 간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개인의 가치 창출, 그리고 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한 브랜드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원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긴 시간 함께 해 온 구성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모토는 사람다운 커피, 그리고 커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합니다. 커피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진한 감정이 담긴 커피 한 잔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사람다운 커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에서는 커피 사업 외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던데요, 다양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커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을 때, 거점 병원들에 매일 매일 캔 커피를 전달하며 의료진을 응원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후원하는 등의 기부, 후원사업은 그전에도 지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 이외에 커피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문화적으로 커피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방면에 대해서 늘 고민 해 왔고, 좋은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받아 예술로 대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 후 기업(기관)에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혹은 기업(기관) 활동에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커피 이외에 예술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커피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술로 대구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

'사람'을 담고 싶습니다.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도 사람, 커피를 만드는 저희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여러 부분을 함께 담아 즐길 수 있는 사람다움을 담고 싶습니다.



커피조아는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카페’라는 공간에서 하는 예술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팀입니다.

커피조아

김승민 + 김재홍 + 최은혜 + 성태향 + 김수진

팀 소개

저희와 매칭된 기관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일명 ‘커피남’ 상호를 따서 ‘커피맛을 조금 아는 아티스트’라는 의미로 ‘커피조아’가 팀명입니다. 음악, 미술, 영화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구성된 팀입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카페’라는 공간에서 하는 예술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팀)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6개월 뒤의 원하는 모습)

<모두의 작업실>, <커피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는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콘텐츠가 담기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카페에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음. 또한,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공연장,’ ‘전시관’이라는 예술 활동에 한정된 장소를 넘어서 일상의 공간에서 예술을 누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함. 예술로 사업 이후 각 예술가는 기업과 계속 협업하는 형태의 방안 창출을 기대하며, 그들의 니즈에 맞춘 작품 활동도 이어나가는 모습을 지향함.

협업주제

현재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기존의 커피 마시는 장소, ‘카페’라는 한정된 이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시대적 추세에 맞춘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녹아든 새로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의 변모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한 과정에서 예술로 참여를 통해 예술가들과 이러한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예술 활동’이 있는 무대, ‘커피 마시는 장소’라는 두 가지 공간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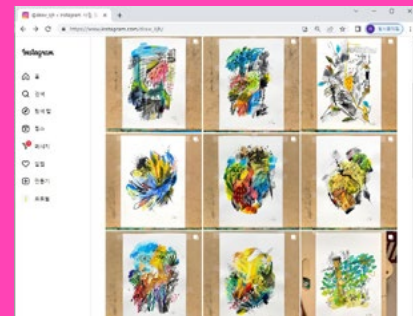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식음료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와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공연프로그램 운영, 지역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단순 상업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매칭된 음악, 미술, 영화, 국악 분야의 예술인들은 ‘커피와 사람’을 소재로 하여 활동을 펼쳤으며 분야별 협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에 전문성을 더했음. MD 상품인 커피잔을 스케치하여 매일 드로잉 챌린지를 이어왔고 공간에 전시하였음. 또 드로잉 챌린지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작된 음원은 출원하여 매장에서 전시와 함께 감상하였으며, 매월 공연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음. ‘사람’을 주제로 하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등 풍성한 협업으로 기업의 이슈를 풀어내었음.

협업성과

전시 프로젝트 <모두의 작업실>

‘커피조아’팀은 이러한 기업 이슈를 충분히 논의한 후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팔공점)’을 기반으로 <모두의 작업실>이라는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꾸밀 예정임. 예술가들의 작업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그 행위 결과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카페 한쪽에 꾸미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해당 장소에는 ‘어반 스케치’, ‘드로잉’, ‘아트웍’, ‘재즈공연’, ‘국악연주’, ‘체험형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채울 예정임.



참여예술인 김재홍(미술)
 @draw_kjh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 매일 드로잉 챌린지를 진행하며 참나의 순간들 느껴지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전시

영상 프로젝트 <커피를 조금 아는 사람들>

또한, ‘커피’라는 공통적인 키워드에서 ‘커피를 조금 아는 사람들’ 즉 바리스타의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그들이 커피 만들기 위해까지 온 자신만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방안도 기획 중임.



커피조아팀 협업결과
 Digital Record
 감상하기

커피조아팀 협업결과
 [커피를 조금 아는 사람들]
 영상 보러가기

리더예술인 김승민(음악) [Coffee for Jazz] Single Album Series

세상 모든 카페에서 예술협업을 통해 만든 음악이 스피커로 흘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블렌딩 되는 행복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앨범 기획 및 발매 커피 한 모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과 같이 여러 장르로 취향껏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함.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1곡씩, 13주 동안 26곡 발매 예정임

멜타뮤직 (MeltaMusic)
[Coffee for Jazz] Single Album Series
[Credit]
Produced by 김승민(@dr.kim_jazzmusic)
Music directed by 박시연(@seonny_m)
Composed by 박시연(@seonny_m)
Arranged by 박시연(@seonny_m)
Melodica 박시연(@seonny_m)

Bass 김찬욱(@okaycashback)
Pandeiro 정규빈(bin5521)
Recorded by May 2-31, 2023at
 경북음악창작소(@054soundville)
Engineer 이재민(@cherrycharish)
Mixed, Mastered by
 이재민(@cherrycharish)
Executive producer

멜타뮤직(@melta_bubu)
Artwork 김재홍 (@draw_kjh)
Inspiration by
 커피남(@goodtaste_coffee)
 본 앨범은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사업입니다

리더예술인 김승민

매칭된 기업과 예술협업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정해졌을까요?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이하 커조남)에서는 처음에 단순히 엽서 제작, 사진 전시 등의 시각예술 활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팀원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후 구체적인 예술협업 활동에 대해 고려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더 예술인을 중심으로 기업과 상당한 시간의 논의 끝에 얻게 된 결론은 커조남은 기존의 카페라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예술의 생기가 있는' 장소의 변모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슈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기존에 해오고 있던 각자의 예술 활동을 기업의 각진 점에서 펼치는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협업 활동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의 작업실>이라는 컨셉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구체적인 목적의 컨셉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각자의 예술 활동을 커조남에서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다행스럽게도 해당 기업은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로의 활동이 다른 장르의 예술들이 결합한 추상적인 작업을 추구하기보다는 각자의 예술 활동을 커조남이라는 공간에서 지속하고, 그것을 통해 독립적인 예술가로 성장 혹은 기량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자체가 커조남에서는 문화예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쇄신을 하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적이 뚜렷한 기업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업 커조남은 카페라는 공간에 예술이 접목되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가시적인 형태로 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술가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예술적인 강점을 해당 공간에 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의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처음 맡은 리더 예술인이라 그런지 기존에 예술로 경험한 참여예술인들과의 의견 충돌이 처음에는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관습적인 태도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협업'이라는 활동에 대해 참여예술인 개개인의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이를 설득하고 하나의 공통의 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 경험자들의 소극적 태도, 극단적으로 '여기서는 예술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 같은 감정을 소모하는 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끌고 가야 하는 절대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술적 철학이나 취향에 대한 의견 상충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팀 활동 참여는 물론이거니, 더 힘든 일은 예술가가 본인이 자신의 영역에서의 어떠한 예술 활동도 하지 않고 '협업'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해 자기 일을 타인에

넘기려고 하고 예술작업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 더 극단적으로 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 행정업무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체가 리더 예술인 이전에 한 예술가로서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팀 구조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새로운 장르에 예술가를 통해 얻는 영감은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이 또한 저의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활용할 좋은 기회를 얻었고, 음악 제작 외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일(예를 들어 타 음악 장르, 시각 예술작업 등)을 수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커조남의 다양한 사람/사업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 27개를 음원으로 제작하고 스토리텔링 하였으며, 그 음원을 공개할 때 필요한 앨범 표지를 화가 참여예술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되는 것을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얻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동 영역까지 마련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협업작업이 참여예술인 전체가 모여 영차영차 하는 획일화된 기존의 관습을 지양했고, 결국, 이 활동이 개개인의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면서도 상당히 창작활동 독려라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예술인과 가짜 예술인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로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를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경제활동의 자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6개월간의 급여만 바라보고 예술가의 지향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는 창작하고 그 창작에 담기는 남다른 시선, 철학이 많은 이와 소통하고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인간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사유의 창의 활동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서 특정한 이슈, 그것은 창작의 목적이 되고 목적 수행의 결과를 경제적인 보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성장 과정을 복지재단으로부터 보장받으며 나아가 홀로서기까지가 사업에서 경험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더 다져질 것입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음악이라는 청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 시각적 예술에 대해 동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작업이 시각화되는 과정, 또한 각기 다른 감각이 서로에게 어떠한 자극이 되는지에 대한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은 음악이 전시라는 활동과 융합되었을 때 시너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예술로 사업을 통해 작게나마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작업으로 한정되어 스스로 시각 예술적 효과를 느끼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바탕으로 그러한 청각과 시각예술 융합 활동의 직접적인 일원이 되어 창작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 과정에 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본점을 포함해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카페 입니다. 참여예술인들과 각 지점을 방문하여 기업의 특색을 자세히 파악하고 예술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탐구 및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본점 커피샵 매장에서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매월 한두 차례 논의하면서 협업 활동 범위를 점차 좁혀 나갔습니다. 처음에 기업은 예술인들과 활동 경합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협업이 구체화 되고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현실적인 활동 범위를 만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과 미술, 미디어의 조합으로 협업 기간 꾸준한 예술 활동이 지속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술인들과 의견을 맞추게 되었고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카페 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의 활동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과 기업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이 기업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현재 하는 작품 활동 외에 다른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대중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참여예술인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이 끝나고도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개인 작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매칭된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협업 활동 동안 지속해서 예술인들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카페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이 예술을 향유하고 행복과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새로운 커조남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커피를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 보면 시간과 계절, 장소 또는 누구와 커피를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 맛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반복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거나 행복감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감을 받아 커피 한 잔과 함께 매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그림을 그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매일 드로잉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커조남이 꾸준히 좋은 커피로 카페를 성장해 나가고 있고 예술인들 또한 꾸준한 예술 활동으로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협업 하는 동안의 이러한 예술 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나를 만들고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예술전시를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 향유를 즐기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문화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많이 구축되는 만큼 이 또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하며 예술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젊은 기획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지역작가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전시문화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미술과 음악이 공생하는 전시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 공간에서 공연과 미술 작업이 즉흥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시된 작품을 통해 즉흥연주로 승화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예술적 감각을 교감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작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보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발견하고 부딪히는 새로운 가능성



나를 소개해주세요.

음악 분야 예술가로서 음악 분야 이외의 타 장르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었어요. 평소 음악과 미술 협업 작품 및 공연에 관심이 있었고 그동안의 협업 경험으로 협업의 긍정적 효과와 시너지를 잘 알고 있어 어느 장르에도 저의 음악과 예술을 주제에 알맞은 모습으로 만들어 채울 수 있는 장점을 살려보려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지역의 좋은 기업들과 다양한 시도를 통한 예술의 가능성을 얻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술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평소 전시 관람 이외에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협업을 통해 미술 분야의 특성과 협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업과 소통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원활했습니다. 우선,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는 다양한 문화 전반을 받아들이л 준비가 되어있고 ‘복합문화공간’

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타 장르의 예술가 그리고 기업과의 협업 활동에 앞서 마음을 여는 것에 더 힘을 쏟을 것을 우려했는데 준비된 열린 마음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니만큼 모든 일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에 있었던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칭된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업에 관련하여 뭔가를 하기보다는 굳이 커피가 주제가 되지 않아도 공간에서 자유롭게 전문 예술인들의 예술을 보여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참여예술인들의 예술을 녹여내는 과정에 좀 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업의 니즈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평소 협업 관련한 일을 많이 해오고 있어 좀 더

편하게 열린 마음으로 협업에 임했는데 이번 협업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같을 수 없고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전통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음악을 청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요, 전통을 알리는 일을 ‘업’으로 잇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을 시각화해 보는 작업을 펼쳐보고 싶고 음악의 분위기가 가지는 냄새, 색, 질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업에 흥미를 느껴 융합해보고 싶었습니다. 몸에 담을 수 있다면 음악을 온전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다양한 감성들과 감각들을 온전히 느끼며 음악을 만든 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수진

협업활동 시 사진 촬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활동으로 음악 제작과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의 스토리의 최종 편집에서 컬러(효과음)와 BGM을 맡고 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번까지 총 4번의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 협업은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협업에 관한 시각차로 인한 불편한 동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며 느낀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적 사고인데요, 예술인들의 말에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었고 처음부터 카페의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을 알리는 기획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예술인의 기획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유지해주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총 4번의 사업 참여를 하면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나 완성도를 떠나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디테일을 담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업에 참여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매칭된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협업'입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이 주도하는 개별 작업보다. 협업 프로젝트의 주제, 스토리텔링, 구성, 매체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기꺼이 협업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획의 주제나 방향성은 진행 도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협업이라는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과 설득, 논의 등 의사 진행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다른 매체의 예술인들과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전형적이며 관성적인 사고의 방식에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계약이 없을 수 없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적 지향점과 방향성이나 작업 방식을 보면서 위안과 자극을 동시에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이 주도하는 협업 사업이라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나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 경험을 통해 미디어, 설치 작업을 진행했고 사업에 진행될 프로젝트에서 영상 작업이나 설치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양한 협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예술인이 모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진행해보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예술로 사업 첫 참여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고 예술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었습니다. 기업에서의 의견이 참가해준 예술인 각자의 예술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진행을 제안해주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팀원 전체의 협업은 어려웠지만, 장르를 세분화하여 엮어 활동하면서 저는 영화 시나리오 하는 예술인 선생님과 깊이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기업이 커피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인 문제와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전시나 공연을 통해 문화적으로 기업의 생각을 확장해 보려고 시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와 예술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대화들을 나누며 꾸준히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예술인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기업과의 실무를 통해 예술로서 새로운 직무 개발과 기업이 바라는 예술 분야와의 협업에 대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통해 타 장르의 예술인이 고민하는 것과 해결해가는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기회였고 협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제 개인의 역량을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칭된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업의 입장과 예술인의 입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은 기존의 업무들이 있고 바쁜 일정 안에서 예술인들이 소통하며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기업의 업종인 '카페' 공간 안에서 전시나 공연을 했을 때 예술인으로서 파급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예술을 통해 문화적인 확장을 원하는 만큼 다양한 장르의 역량을 발휘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을 중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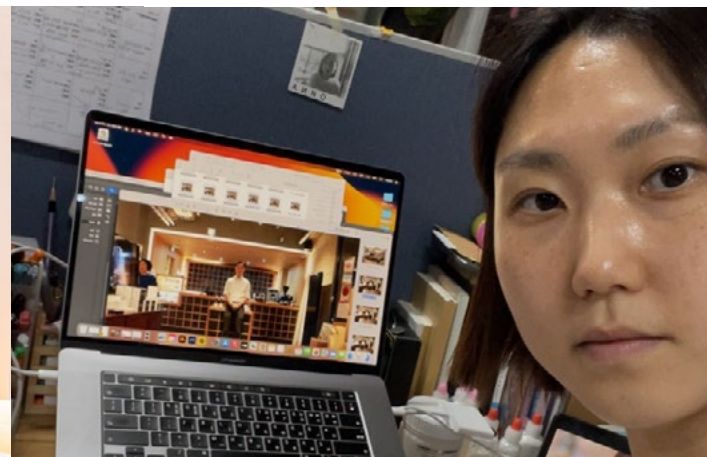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이라는 틀 안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국내외로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기회들이 있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술로 사업도 참여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떤 분야와 협업하여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영화 시나리오 예술인과 소통으로 영화라는 분야와의 협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어 공통된 언어와 생각, 결이 같아 흥미로웠고 상업적인 영화는 체계가 있어 그 시스템을 미디어 장르를 확장해 다큐멘터리나 규모 있는 작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협업 프로젝트 기획 및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통해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매모리 아카이빙 작업인 <커피를 조금 아는 사람들> 프로젝트의 사진 촬영과 사진 보정 작업 및 영상 편집을 진행하기로 계획 중에 있고, <근대의 작업실> 프로젝트의 작업실 설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Icheon-dong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Tel 053-474-4700

Local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9길 39 1층

Instagram @icheon_urc

Web blog.naver.com/icheon_urc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9길 39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5년 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원도심의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낙후된 이천동 일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참여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인구감소, 산업 위축, 주거환경 열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외에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천동 주민들이 원하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며 센터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며 5년간 많은 변화를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 줄어들었던 인구, 사업체 수가 5년간 차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며 다수의 빈집과 협소했던 골목도 넓리며 쾌적한 거주 환경 개선도 이뤄내고 있는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사업분야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계획



마을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
좋은이웃협의회(시민 주체) 정기회의 개최



서포터즈 운영

기관 외경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세훈 연구원

기관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주체들의 '레지던시'이다

담당자님께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 예술인과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를 통해 기관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셨나요?

낙후된 남구 이천동 일대를 재생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낙후로 일어나는 불편을 대규모 공사 없이 개선하고 주민과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여건 개선에 힘쓰며,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를 함께 운영해 지역민들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예술로 사업 참여 동기는 우리 센터에 실질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먼저 고려하고 있었던 레지던시 사업의 현실화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 센터 공간 제공을 통한 뉴딜사업 목표 달성과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시너지를 유도하고자 했고, 두 번째는 마을 역사관의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마을 역사관에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변의 고미술 거리, 건들바위, 대봉저수지, 어울림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를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이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셨는데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가 있나요?

센터에서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마을 역사관에 주민과 이천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다른 지자체나 행정기관과 같이 이천동의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만 채워 준비하려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전문 예술인들이 우리 센터와 매칭되어 회의를 거듭하며 고미술, 이인성 거리 등 문화예술에 특화된 이천동 특성상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천동에서의 쌓아온 수많은 계절이 곧 역사이기에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이라는 센터 뉴딜사업 타이틀에 부합하여 주민들이 회상하는 이천동을 예술작품들로 승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와 협업하게 된 김보미 리더 예술인 외 4인의 예술인분과 협의하며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예술협업활동에서 '나도 작가 되기'라는 프로그램

시행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천동에서의 삶을 담아내는 작품이 만들어졌고, 새로이 개관하는 마을 역사관의 첫 전시를 주민들의 작품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이 중반 진행되었는데 참여예술인들과의 협업과정은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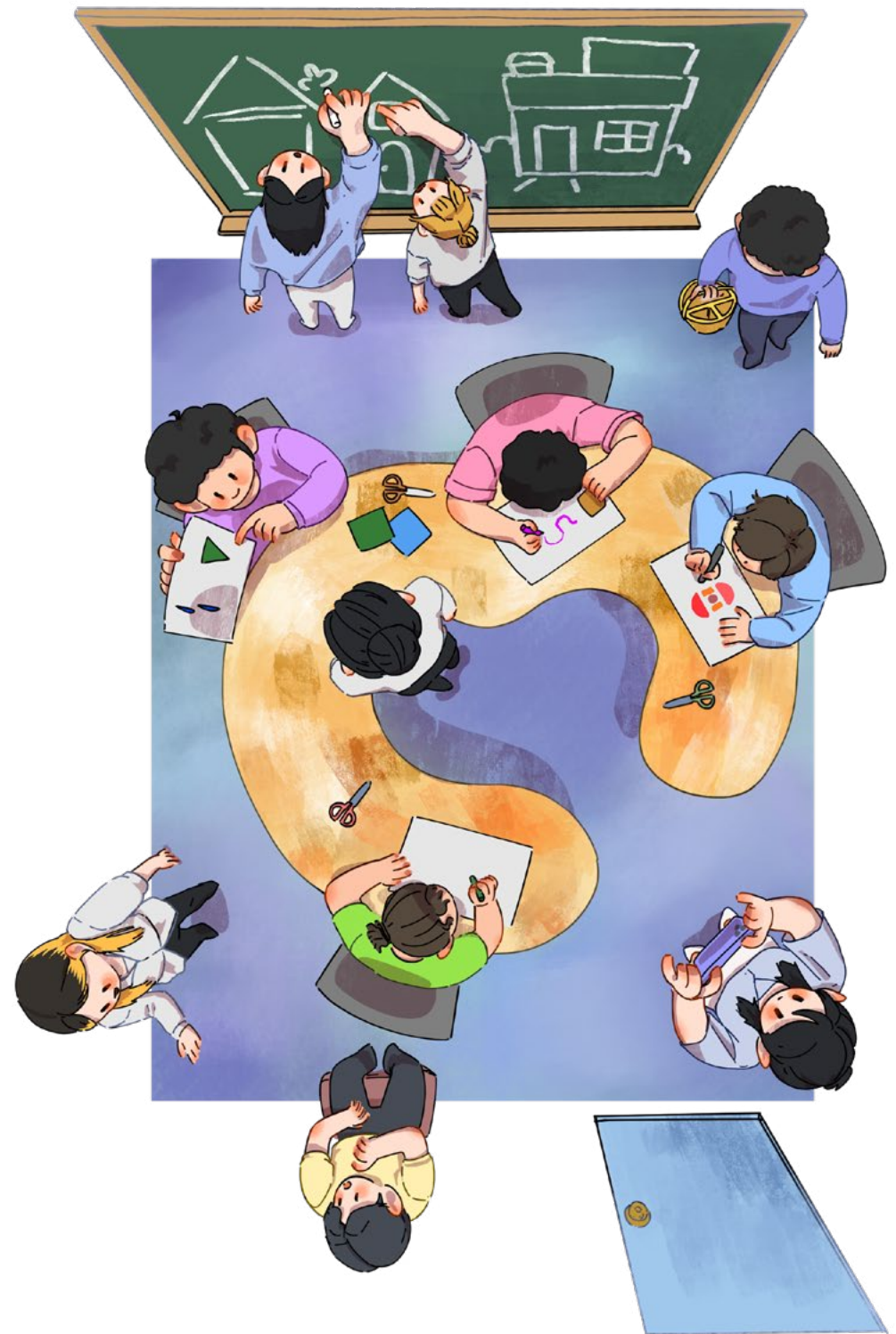
또, 지금 시점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신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술협업 활동 초반 예술인들과 구청 사이에서 원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이 더디게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작가들의 협업/개인 작품도 있었으면 했고 예술인들은 아티스트의 개런티 없이는 작품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센터의 의사결정 방식이 주민+센터+구청이라 많은 협의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예술인까지 더해져 의견을 통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계획까지 많은 회의를 거듭했고 결과적으로는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 예술인들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주민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도시재생과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했고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 협업 활동을 함으로써 장점은 기관에서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예술, 창작 분야에서 전문적인 시선으로 사업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에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혹은 기관 활동에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우선 우리 센터의 공간인 레지던시를 예술인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창작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센터 운영 시간 외에도 해당 방을 사용할 수 있게 전용 키도 드리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프로그램 진행 이후 예술적인 잠재력을 발산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었고 이천동 지역의 개성을 살린 프로그램이어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미술 프로그램이 아닌 연극, 음악을 이용해 주민들이 생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되 쉽게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맞춤형 사업



저희 팀은 **막힘없는 소통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장점인 팀입니다.

뉴진스(5인의 여성예술인)

김보미 + 권소현 + 김보라 + 남가형 + 임지혜

팀 소개

우리 팀은 다섯의 여성 예술인들로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소통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장점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협업 중입니다.

우리(팀)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6개월 뒤의 원하는 모습)

-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만남으로 앞으로의 협업작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 계속해서 교류하며 서로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예정.
- ✳ 한분야만이 아닌 예술의 결합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을 계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느낀 점이 많을 것. 이를 통해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
- ✳ 주민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영감을 받아 개인 작업으로 발전 가능.
- ✳ 이천동 주민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
- ✳ 앞으로 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내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활동 가능성이 보이며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강의를 계속 이어질 수 있음.

협업성과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개관 2년 차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주민들이 배나무샘골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고 주민들이 쉽게 자주 방문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모색해봄.

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 ① 언어, 취미 등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술, 음악, 문학 등의 강의는 찾기 힘들었음. 센터에서도 니즈가 있어 문학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과 직접 만나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음
- ② 강의는 총 5회로 진행 예정이며 회차 당 미술 수업 한 시간, 문학 수업 한 시간으로 예술을 통해 나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임
- ③ 이 외에도 예술인 레지던시 사용방안, 센터 음악재생, 이천동 관련 공모전 등을 제안 하였고 예술인의 시작에서 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어떤 면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



마을 역사관 개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앞 배나무샘골 마을 역사관이 공사가 끝난 뒤 개관 예정에 있음. 이천동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이를 모티브로 역사관 내 전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재 이슈임. 계획 중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 결과물을 역사관에 전시함으로써 이천동 주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역사관을 채우려 함.



나를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예술인들과 만남과 협업에 흥미를 느껴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 곳의 이슈를 예술로 풀어간다는 것에 예술가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이 흥미를 더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존중하며, 기관에 예술인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예술인들에게 지역과 기관의 니즈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큰 장점이 있기보다는 모자란 부분을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성실함을 목표로 할 것이며, 사업을 통해 많이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들로 창작의 모티프가 될 수 있게 할 것이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이천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술협업활동이 중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리더예술인으로서 다양한 예술인들과 기관의 사이에서 예술인의 역할과 기업의 니즈를 서로에게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이천동의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의미를 두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활동을 돌아보며 제가 생각하는 이천동 도시재생센터의 장점은 따뜻함입니다. 많은 주민이

오가며 센터에서 수업도 하고, 1층의 바리스타 체험장도 이용하고 커피를 내리는 체험도 하면서 배나무샘골 문화센터는 그야말로 만남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따뜻함이 이천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예술로써 풀어나갔으면 하는 이슈가 처음부터 명확하여 예술인으로서 이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풀어나가는데 비교적 수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태도로 이견을 좁혀 나갔으며, 센터와 예술인 모두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정확한 목적과 활동 범위에 대하여 미리 예술인과 기관이 명확하게 숙지하면 조금 더 빠른 협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매칭된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로 활동은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작업, 협업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팀원 선생님들과 만났기에 항상 5인이 모두 함께하는 활동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개인 작업보다 예술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협업의 기회를 중요히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센터를 위해 더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이천동을 느끼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여, 주민들에게는 예술인과 만남을, 예술인들에게는 더욱더 생생한 이천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참여 전 생각하기에도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으나, 실제로 활동해보니 훨씬 더 새롭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예술인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기관과 협업한다는 점에서 지역예술가로서 봉사 정신과 자부심을 일깨우게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예술가로서 작품을 발표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술로 선생님들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갈 예정이며, 단순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과의 결합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작업에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갑니다.



나를 소개해주세요.

과거 도시재생 아카이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문학과 미술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콜라주 작품 창작도 새로운 시도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타 장르 예술가와의 협업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미술작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할 기회가 없는데, 파견사업을 통해 다른 분야의 예술인과 협업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콜라주 프로그램을 글쓰기와 연결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술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은 예술가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칭된 이천동도시재생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남구 이천동 주민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총 2시간씩 5차시로 그 시간 안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예술을 하는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공을 많이 들여 지금까지 절반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참여율이 높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매우 기쁘다. 주민들에게도 저와 참여예술인에게도 뜻깊은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술로 파견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랑이 샘솟는데요, 작업실에서 홀로 작업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품 발표와는 다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성취감이 있었고,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과 기관이 개인 예술가들을 신경을 써주고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느껴집니다. 덕분에 다른 예술가, 기관, 주민들과 소통하며 작업을 알릴 기회를 얻는 것 또한,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술로 활동을 시작할 때, 이천동 도시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남구청 관계자들까지 예술인 파견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프로젝트 기획에 관해 수시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덕분에 파견사업 기간에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연구원님은 예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예술인과 기관 사이에서 조율을 잘해주셨어요. 센터장님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활동하는 내내 지원받는 기분으로 보람있게 활동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관에서 우리 예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셔서 협업 회의, 협업 활동이 모두 센터에서 이루어져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 시·도·하고 조예하기 ★

참고: 예술인

김보라

주미침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일정계획, 의견취합, 기관과의 소통

나를 소개해주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예술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단한 동기랄 것이 없었으나 기관 및 예술인들과 만남을 거듭할수록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며 열정을 갖기 시작한 '나'를 발견했고, 더 나아가 우리와 매칭이 된 기관의 이슈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보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저를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좋은 팀원들 덕분에 그런 생각조차 있고 재미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 패션, 맛집 등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팀원들과는 협업 활동을 떠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요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것이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작가님들과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큰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각자의 분야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는 부분이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술인으로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 따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서울로 출장을 갈 때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지역마다 예술 사업 및 정책이 다르기에 활동 범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술인으로서 지역에 대단한 기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역 예술인이 끊기지 않고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그 격차를 줄이고 묵묵히 내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이번에 '작가 되기 프로젝트'를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님들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수업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속해있는 문학이라는 분야는 어쩔 수 없이 글쓰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풀어내는 과정이 더 풍성하고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수강생들 역시 예술을 접하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고 더 풍부한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웹 소설은 본래 웹툰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2차 저작물은 영상, OST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와 조율하에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예술인들과 제가 늘 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도 색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시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늘 갈을 수는 없기에 오해가 생기고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생기지만 그것도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발을 맞추어가는 시도인 것입니다.



참여예술인 권소현

나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능숙한 편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빠른 편으로 이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상해 내는 것에 자신이 있는 현대미술작가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학교에서 미술강사로 교육하고, 여러 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인들과 파견기관 간에 수행해야 할 부분을 잘 찾아 해결하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천동 도시재생센터에 필요한 예술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역사관에 필요한 전시를 잘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예술로 사업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활동을 너무나 잘 진행하고 있고,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예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원하는 <센터 활성화, 역사관전시실 개관>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찾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마무리가 기대됩니다.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점이 이 기관에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장점도 있고, 이런 공공기관의 운영상황을 알게 되면서 기관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주민들의 인생이야기들을 글이나 작품으로 마주하고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 저도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개인 예술 활동이 지역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지역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참여해보니 결국 예술인도 지역소속 예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예술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맡아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결국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예술인들은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미술 수업과 전시 기획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학생들이 아닌 50-60대 중장년층 심지어 미술작가가 아닌 일반주민들의 작품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되면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계획의 가능성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천동 주민들 스스로가 귀한 존재이며 특별한 예술인이라는 생각을 안고 마무리가 된다면 참여예술인으로서 너무나 보람찰 것 같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술인으로서 자궁심을 주는 사업

나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공연단체 가온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연출가입니다. 저는 다수의 연극, 뮤지컬 연출과 독립영화 감독, 지역예술가 워크숍, 지역예술가 프로필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예술로 모든 참여자와 원활히 소통하여 기관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천동 센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천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이슈를 예술적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활성화, 배나무샘골 역사관 개관, 이천동 홍보 영상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센터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배나무 샘골 역사관에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천동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생활예술강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천동 쉼터입니다. 1층에 마련된 무료 바리스타 체험과 2층 헬스장은 이천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센터에 예술로 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예술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업하거나 협업 활동 장소 제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이천동의, 이천동 주민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이천동 이야기를 배나무샘골 역사관 전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참여예술인이 센터를 수시로 방문하며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몰랐던 이천동의 이야기 또는 이천동에서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전시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주민들 내면의 이야기, 어디서든 꺼내놓지 못했던, 주민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예술적으로 담아내어 주민참여 예술 활동의 성취를 얻고자 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와 새로운 형식의 예술작업을 기대합니다. 저는 공연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협업과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고민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대 예술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인 전시장이나 공연장 로비 등에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공연 확장에 영향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의 연극, 뮤지컬 축제와 다양한 종류의 페스티벌에 지역의 예술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예술인으로서 창작 뮤지컬 제작 역량과 생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특색 넘치는 페스티벌 진행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장르 협업을 기대하며 지역의 예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로 이뤄내는 화합

남가형



H-Arts

에이치아츠

Tel 0507-1341-5199

Local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48길 19

Instagram @hartsmusician

E-Mail h-arts@naver.com

Web hartsmusicstudio.modoo.at

Youtube www.youtube.com/@user-ct3tz4bt4c

모든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
우리동네 생활 문화 공간



예술인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피아니스트 한예진이 설립한 예술, 공연기획사로 2019년부터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오고 있다. 또한 남구에 위치한 공연장은 1층 재즈공연홀, 2층 미니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연기획, 예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있다.

사업분야



예술, 공연기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예술교육



스튜디오

에이치아츠 내부 전경



에이치아츠 한 예 진 대표

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해주세요.

예술가들에게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아티스트 중심 기업입니다.

에이치아츠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예술, 공연기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콜라보 공연, 프라이빗 콘서트, 음악쿠크루 등을 진행하는 공연 기획사입니다. “모든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예술로를 통해 기존의 활동하고 알려진 예술가뿐 아니라 청년, 신진, 지역 등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공연이 아닌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예술 공연을 에이치아츠라는 공간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기업과 소공연장으로 등록을 마친 에이치아츠의 콘서트홀과 스튜디오 공간을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고민을 예술로라는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술로라는 사업이 에이치아츠에 꼭 필요했던 거죠.

에이치아츠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자체 기획 공연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공연 비용을 지불하여 지속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으며 국내 최고 음향 시설로 만든 장소(에이치아츠 스튜디오, 에이치아츠 콘서트홀)에서 리허설과 녹음, 소규모 공연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치아츠 프라이빗 콘서트 ONLY FOR YOU, ONLY FOR JAZZ를 매달 기획하여 소규모 인원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또한 유럽 작가와 타지역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함께 공연하며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대구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에이치아츠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나요?

기존에 에이치아츠는 자체적으로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 예술로 참여 예술가들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더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함께 작업하고 싶었어요.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예술로 협업 활동으로 여러 예술 분야가 결합한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시도하였고, 이에 영감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연주자들이 공연하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치아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1층과 2층을 가상 세계에 재현하여 참여 예술가들의 오프라인 공연과 가상현실 공연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의 다양성과 조화



여러 예술인이 만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술을 통해 하나 되어
판타스틱한 콜라보를 보여주겠다.

판타스틱 콜라보

이숙현 + 황찰리 + 신유경 + 박승현 + 이다은

팀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판타스틱 콜라보' 팀입니다.

지난 5월 2일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 함께 지은 팀 이름입니다. 여러 예술인이 만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술을 통해 하나 되어 판타스틱한 콜라보를 보여주겠다는 성대한 꿈을 가진 팀입니다.



협업주제

① 에이치아츠 홍보콘텐츠 개발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연기획사 및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기관을 홍보합니다. 박승현 예술인을 중심으로 에이치아츠 건물 1층과 1층의 공간을 잘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② 색다른 공연 기획

기업과 MOU를 맺고 있는 주빌리디자이너 이영미 작가와 함께 프로젝트 공연을 기획합니다.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여 공연 콘셉트를 정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음악공연을 제작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는 프라이빗 콘서트를 직접 기획하여 참여합니다. 성악가 신유경 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독창회에 팀원 모두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여 공연을 구성합니다.

③ 다양한 예술 분야 예술인들과 교류하기

에이치아츠가 위치해 있는 남구에 예술로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이 많아, 참여자들과 예술적 이야기를 나누어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협업성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연과 기획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기업 탐색 및 니즈 파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 팀 프로필 사진촬영 및 기업 홍보사진 영상 촬영 등 기록물을 제작함. 기업 홍보물 SNS,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홍보와 남구 인근 소재한 기업, 기관과 함께 교류하며 예술인 상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함. 에이치아츠 공연장에서 주빌리디자이너 이영미 작가와 함께 성악, 재즈, 사진, 연극,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 프로젝트 <판타스틱콜라보>를 2023년 10월 13일 선보임.



FANTASTIC COLLABORATION
판타스틱콜라보X에이치아츠
(융합공연라이브영상)



나를 소개해 주세요.

작곡가로서 색다른 소재들을 활용한 음악을 만들어 작품을 발표하며 활동하고 있고, 소리와 다양한 시각적 재료들을 결합하여 미디어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 2022 예술로에 참여예술인으로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서로 협업하여 하나의 공동목표를 이루는 것이 매력적이라 여겨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및 예술적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리더예술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치아츠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설레지만 무서웠어요. 새로운 곳에 누구와 함께 활동하게 될까 기대되었지만, 기관 대표님의 포스에 압도되었어요.(웃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고요. 그런데 겪어보니 대표님은 포스 뒤에 굉장한 재치와 귀여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 예술인들도 모두 개성이 넘치고 열정적이어서 재미있었기 때문에 색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선택지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 개개인의 활동, 개인적 이야기에 대해서도 서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내 분야에서 간혀 있던 생각의 틀, 한계를 깨버릴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으로 나에게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주었던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협업 활동은 나만의 것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매 순간 하는 것 같아요. 현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술도 어느 정도 대중화와 상품성을 띠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과 많이 교류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하며 경험을 쌓고 색다르고 재미있는, 대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상품화 시켜보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북북북 뿔기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찰리재즈오케스트라 지휘자, 예술감독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크고 작은 재즈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연주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찰리 개인으로는 라틴재즈 스펙트리스트로 다양한 라틴 타악기를 소개하고 연주하고 있으며 콜라보 공연 등에서 재즈 피아노와 재즈 드럼 연주자로 많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과학대학교 초빙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아츠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에이치아츠 공간에서 진행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공연이나 연주 등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7월에 에이치아츠 기획 공연 프라이빗 콘서트 ONLY FOR JAZZ를 에이치아츠에서 공연하였고, 다른 예술가들과 최종성과공유회에서 이색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좀 더 다양한 공연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협업에서는 단순히 공연만이 아닌 연극과 음악을 하나의 음악극으로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공연에 대해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간혹 타지역의 예술가들이 예술가로 활동이 어려워지는 여건들을 보곤 해서 지역 예술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본인의 분야 타악기, 그리고 전통 재즈, 현대음악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다양한 결과물 들을 만들어 지역의 음악적 활동에 활력이 되는 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예술인

황찰리

자유로운 예술가들

요미당(영남 나 나)은으로는 처음이지만 막내처럼 귀요미라네 아이디어 뱅크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예술가는 예술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활발히 활동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성과 결과물에 대한 수준 높은 퀄리티가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가들과의 퍼포먼스와 무용과의 공연, 클래식 연주자와 공연 등 이미 많은 콜라보 공연을 진행해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음악극이나, 제가 활동하는 찰리재즈오케스트라 및 다른 단체와의 콜라보 공연, 영상작가와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예술성과 대중성이 잘 조화되어 예술을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예술가, 예술인으로 남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또 다른 예술 만들기 프로젝트!



＊판타스틱 콜라보레이션＊

참여예술인

신유경

기그 담당자보다는 다르게 기그 케릭터, 프로젝트 포진 기획 및 진행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성악 전공자로서 전문연주자 및 연주기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해있는 단체로는 램넨트앙상블 대표, 대구오페라하우스 콰이어 단원, 로다테 합창단 단원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과 협업해서 색다르고 실험적인,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만들어 가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술교육가 및 예술교육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문 예술교육기업 사단법인 숲과별의 대표, 프로젝트팀 비온드 대표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교육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아츠와의 예술협업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가와 기관이 함께 Win-Win,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로서 개인이 가진 예술 장르의 전문성을 살려 그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되 기존에 만들어진 틀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관은 기관의 니즈를 예술가들과 함께 채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되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존중하고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 협업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참여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잘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협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협업의 결과물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매달 진행되는 협업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소개하면서 다른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를 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접목하거나 지금껏 시도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구는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참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활동할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도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예술인들이 서로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내는 가장 친숙한 지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겐 가장 좋은 환경이고 또한 지역을 위해 나의 분야를 살려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몫을 얻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융합하게 된다면 미디어 분야 예술가와 AI 전문가와 함께 협업하여 발전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연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순수예술로서의 공연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판타스틱 콜라보 엔터테인먼트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사진을 매체로 저만의 생각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작업은 2022년 블루원갤러리에서 진행한 'skoll'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다음 작업을 위한 생각 정리와 작업비용을 벌기 위해 오세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상업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아츠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취방에서 스튜디오로 가는 길 사이에 에이치아츠 건물이 생겨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술로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청기관을 골라야 했었는데 에이치아츠가 있어 1지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음악공연 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기 에 저 말고 다른 분들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에이치아츠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각자 다른 분야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다른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사진 쪽이나 회화 쪽으로만 얹게 알고 있어서 음악이나 연극 분야는 이해도가 떨어졌는데 협업 예술인들의 설명을 듣고 예시본 등을 보여주셔서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쉽지 않지만 보람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사진의 경우 디지털 사진으로

넘어온 이후 복제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졌기에 작품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전시를 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작품 판매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개인 작업과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는 예술로 참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로 참가 후 협업 예술인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길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 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미 '업'과 '예술'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등에 개인작업물을 올린 후 인기를 얻으면 본인 작품으로 굿즈를 만들거나 기업과 연계하여 콜라보를 하는 등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작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예술인이 본인만의 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고 재학 시절, 사진전공 동기들이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시를 받은 후 시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여 시집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예술인들에게 본인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와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진을 만졌을 때 소리가 나는 등 소리를 표현하는 장르와 융합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서로 의지하는 사랑방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연극 배우와, 작가, 기획 등 공연예술계 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배우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아츠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악 예술인들이 많아 평소 연극 쪽에서 활동하며 만나지 못한 예술인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었습니다!

에이치아츠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 장르가 다양한 예술인들과 만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협업하며 협업 활동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예술성을 배우게 되고 연극과 뮤지컬을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업으로 삼는다고 해서 예술이 예술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극과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융복합 예술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로운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배움의 장터



Sdot Inc.

(주)에스닷

Tel 053-421-4211

Local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28 (공평동)

Instagram @sdot_1985

Web www.sdot.co.kr

Youtube www.youtube.com/@sdot_official

만드는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에스닷



1985년 대구문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문구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 에스닷으로 회사 명칭을 변경한 지역의 기업으로 대구, 경산, 대전(대전점, 대전 시청점)에 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유통 중이다. 문구를 및 미술용품, 공예용품, 세계 최초 EG-FREE 무독성 페인트인 던-에드워드도 입점되어 있다. "만드는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에스닷을 소개한다.

사업분야



문구·컴퓨터 관련 용품·DIY용품 판매 및
납품전문업체

내부 전경



기관 외경



㈜에스닷 박창준 대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기존 화방은 전문 화가인 아티스트나 전공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취미로 미술과 같은 예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용품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를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닷이 전문가와 초보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작품 활동을 하셔서 테고, 기존에 거래하던 화방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에스닷이 지역 예술인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예술로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를 통해 기관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셨나요?

에스닷은 문구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다양한 전문용품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 고객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에스닷이라는 이미지와 지금의 에스닷과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차이를 줄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용품을 사용하는 리뷰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고객들을 연결해주고자 하였으나, 참여예술인의 활동 분야가 다양하여, 지역민들에게 “에스닷”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매칭된 참여예술인들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예술인을 파견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신 장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의외의 예술인 조합으로 인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예술인이 처음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저조차도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주제를 향해 예술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조화시켜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업에 변화가 있었나요? 혹은 기업에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예술인들이 모여 현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에스닷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실화하지 못했지만, 에스닷이 향후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외부인의 관점에서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예술로 대구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에스닷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

에스닷은 “대구문구센터”로 시작되었듯이 문구는 에스닷과 떼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스닷에는 미술용품, 공예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고, 그런 상품들은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닷을 몇 번 와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에스닷의 진면목을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24년도에 참여 의사가 있으실까요? 24년도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이슈로 예술인들과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싶으신지요?

네. 올해는 처음이라 적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원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회사에서 만들어 보고, 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온라인을 통한 미술대회를 기획하여 예술인들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기업과의 협업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닷(dot)

조창희 + 김동욱 + 강민영 + 배유진 + 나재희

팀 소개

각자 다른 분야에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협업의 개념을 각자 잘 알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의 조율하는 과정이 순조롭고 사업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기업과의 협업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팀)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6개월 뒤의 원하는 모습)

예술로 사업을 통해 접근한 이슈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해서 에스닷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기간 내에만 한시적인 이벤트성의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면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작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될 것이며,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개인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업하는 인연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업주제

①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지역의 문제 또는 이슈

기업은 우선 에스닷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함. 문구센터라는 인식을 바꾸어 지역을 대표하는 화방으로 자리 잡고 싶어 함. 다양하고 전문적인 미술용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문제와 기존 대구문구센터라는 인식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에 이슈를 두고 있음.
또한, 온라인으로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② 현재 고려하고 있는 해결방안,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 내용

대표님께서 온라인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함.

③ 추가적인 해결방안 도출 방법 등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SNS 릴스를 통해서 제작해 보려고 함. 대표님 개인이 하시던 방법과 달리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해 볼 예정임.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술 초보자를 위한 팝업 부스를 만들 예정임.

협업성과

에스닷 매장 소개 영상, 로고 메이킹, 시그널 사운드 제작 등으로 풀어내었다.



리더예술인 조창희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리더예술인으로 참여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기관과 기업의 이슈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상생시킬 수 있는 예술로 사업의 취지가 좋습니다. 또한, 그 작업 방식이 개인이 아닌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 다시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이 중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술로 사업은 협업 과정에서 예술가 본인의 장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하는 장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술가적인 시각과 가치관으로 이슈에 접근해서 다양한 방식의 해석으로 협업을 진행 할 수 있었는데요, 에스닷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장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험적인 아이디어도 쉽게 수용해주는 열린 기업이라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의 경영이념과도 같아 예술인들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매칭된 (주)에스닷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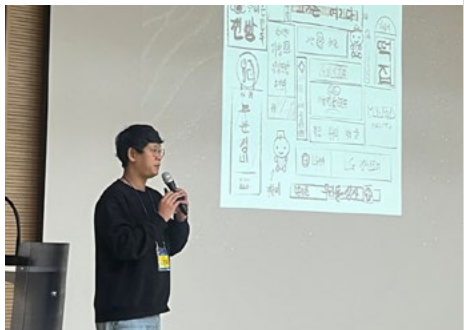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예술가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마음껏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물이 비교적 아쉬울지라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에스닷의 이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는 추후 기업과 예술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느껴봤어요, '만드는 즐거움의 시작'이라는 에스닷의 문구는 음악 활동과 공연콘텐츠 개발 활동에서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공연작품창작에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리더예술인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타 장르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싶었는데, 기업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선택적인 요소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문화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좋아서' 하는 예술 활동이 '누군가에서 영감'이 되는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명감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예술 활동이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즐거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예술로 사업 참여예술인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미국과 영국에서 배운 선진화된 미술 지식을 한국 사회 및 기업과 함께 공유하여 제가 미술, 예술 분야에서 위로받고 또 매혹됐듯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일반 시민들도 미술의 매력을 깊이 알고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 역시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각자의 사고와 생각이 어떠한지 소통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끼리 모여 협업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잘 접할 수 없었던 영상, 편집, 웹디자인, 음악 분야를 습득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이 중반 가장 진행되었는데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술 분야의 예술인과 소통하고 작업했었는데 음악, 연극, 무용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닷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개인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사용하던 재료가 아닌 처음 접하는 재료가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공연예술가이기에 무대 위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무대라는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기보다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면서 공감을 통한 감동을 주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장르와 융합이 되던 모두가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행위이든 무대화시켜 보기를 희망합니다.

많았고, 이러한 것들을 작품에 응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된 (주)에스닷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에스닷을 지역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닷은 오래전부터 대구 지역의 대표 문구센터로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문구뿐만 아니라 공예, 미술,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재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에스닷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에스닷의 장점과 특징을 잘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과의 매칭과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이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폭넓은 사고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는 점입니다.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하면서 분야마다 특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자예술인 김보영

★ 예술 상생의 힘 ★

에스닷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프로그램 중 이크렐 페인팅 기초 수업을 담당하여 미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는 기법을 지도함

또한, 다양한 미술 재료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 에스닷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 미술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다학제, 융복합형, 탈 장르의 예술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평면 회화만 작업하고 있지만 다른 장르와 융합하여 새로운 실험 및 창작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상과 음악을 융합한 미디어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형상들이 미디어를 통해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작품을 할 계획입니다.



창작예술인 강민영

미술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시각예술 작가로서 사용자 입장의 제품소구에 주력할 예정 판매자와 사용자의 거리를 좁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함. 또한 미술 초보자를 위한 재료 소개 및 구성을 제시하여 팝업 공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함

나를 소개해주세요.

2017,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장르의 다양한 예술인들과 기업을 만나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있어 다시 사업에 참여했어요. 5년이 지나 그때보다 개인적으로 작업에 대한 성숙도도 높아졌으며 더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이해를 통해 기업과 재미있는 협업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이 중반 가장 진행되었는데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대표님의 마인드 덕분에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로 예술 활동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에스닷은 1983년 오픈해 오랫동안 대구의 문구센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부각해 홍보하여 많은 사람에게 더욱 사랑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되길 바라며 협업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개인 작업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미술 재료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보 미술인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매칭된(주)에스닷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에스닷 문구센터라는 이미지에서 미술전문 재료 섹션이 잘 갖춰진 에스닷이라는 전문성을 부각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화방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기업과의 매칭과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이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 방식들의 결과물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개인 활동에서 얻을 수 없는 결과값을 얻어보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기업의 니즈를 빠르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협업 활동에 착수하고 진행하는데 이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국악과 공연 장르 예술인들과 함께하면서 개인 작업 시각 설치 작업의 연관성을 찾게 되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전시 오프닝 공연을 함께하고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예술인

배우진

나를 소개해주세요.

전문공연을 통해서도 라이브 페인팅, 무용, 뮤지컬, 현대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해왔고, '2022 예술로', '찾아가는 국악 콘서트', '도동서원 태고 프로그램'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노인종합센터, 지역아동센터, 도동서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연주 활동과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야금뿐 아니라 전통예술에 대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업에 대한 기업 대표의 고민을 예술인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협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진행하여 기업의 장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의 열정과 노력,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열려있는 생각과 마음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었고, 예술인들이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신 것이 기업의 장점이자 기업 대표님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대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 대한 여러 방향과 길을 고민하고 공유하고 싶었고, 예술인들이 예술 자체에서 자아실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방면에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된 (주)에스닷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처음에는 미술과 관련된 물품과 주로 연관되어있는 에스닷 기업에 국악이라는 전공 분야를 가진 예술인으로서 어떤 부분을 도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협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국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능력과 사고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닐지라도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많이 생각해서 팀원들과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기업과의 매칭과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이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의 생각과 업적을 본보기 삼고,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책을 읽듯이 같은 예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같은 어려움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로를 응원하고 스스로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협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르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서로가 앞으로의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구라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 하는 예술인으로서 대구가 문화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예술을 넘어서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예술인이 많아지고, 그런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국악이라는 장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장르들과 협력 하여 공연예술을 만들어 감으로써 많이 홍보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국악과 미술을 융합한 음악 미술 치료나 국악과 움직임(운동, 행위예술, 무용)을 통한 아동 발달치료 및 놀이 등 공연예술 분야 외에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도구나 예술로 국악이 많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예술가들과 교류하여 하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적 시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습니다.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에스닷은 다채롭고 꾸준합니다. 에스닷 대표님 역시 열린 시각으로 예술인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다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직원분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없이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예술가분들과 대표님의 소통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의 성과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기업과의 협업은 예술의 상업성이 발휘되어 가는 부분을 접하고 그 안에서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품게 해줍니다. 예술 내, 외적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좋겠어요.

매칭된 (주)에스닷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업의 니즈에 맞춰 각 예술가의 시각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융합하여 하나의 성과물을 완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이후에도 에스닷에서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예술교육, 대구 지역 특성 뮤지컬 공연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 등을 통해 사회와 일상생활에 예술로 가득한 따뜻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 예술인의 보람? 의미? 아닐까요?

기업과의 매칭과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이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업 또는 타 장르와의 협업은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접해보지 않은 타 장르와의 융합에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였을 때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것에서 배려와 소통을 배우고 개인 활동에 접목할 수 있었으며, 타 장르 예술인들의 시각을 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결과적으로 저의 창작 활동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실제 예술로에서 만난 다른 장르의 예술가분들과 작업을 하여 공연을 실행하였습니다. 미술 분야의 분들과 협업하여 진행하였는데, 같은 미술 분야라 하더라도 세분화 되어있고 각 예술가 분마다 스타일이 다르시므로 기회가 된다면 올해 함께 활동한 예술가분들과도 함께 공연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술인

나재희

유튜브 등에서 시청될 수 있는 움직임, 인문 제작 및 지속 가능한 콘텐츠 스토리 제작.
에스닷 이미지 개선을 위한 슬로건 제작, 에스닷 미술용품 미술 초보자 정면에서 접근하고 리브 홍보 카드 제작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 외 타 분야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함

★ 한 페이지의 확장 ★

HOOLA

홀라

Tel 053-252-8640

Local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6길 92-1

Instagram @wwwhoola

Web linktr.ee/wwwhoola

Youtube www.youtube.com/@HOOLAworld

터무니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인문 예술팀



HOOLA

[홀라HOOLA]는 대구 북성로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과 문화기획을 통해 터무니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인문예술팀이자 지역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밴드이기도 합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이하 모루)] 개관부터 현재까지 중구청 위탁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모루는 두드리며 만드는 곳, 북성로 기술생태계의 역사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하고 특히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손기술'에 주목하여 기술장인들의 기술과 예술가들의 협업, 기술 전승 등을 통해 북성로 기술자산과 기술생태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문화적 재해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북성로 지역자원 조사



기술 예술 융합



지역자원 재생과 공유

홀라 외경



홀라 안진나 디렉터

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해주세요.

지역 아카이빙 및 문화기획을 통해 터무니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인문 예술팀이자 업사이클밴드입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

사업은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를 창조하고 서로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 저희는 예술인들과 그들의 역량이 꼭 필요했습니다

홀라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개관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구 북성로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자원조치 마치 아카이빙과 문화기획을 통해 터무니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인문 예술팀입니다.

모루MORU는 Make Origin Renovate Urban의 약자로, 북성로의 유무형 자원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해 도시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과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 및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과 철거, 획일화되어 가는 라이프스타일 사이에서 도심 속 야생적 삶의 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실험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홀라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두드리며 만드는 곳, 모루는 북성로 기술 생태계의 역사 문화자원을 아카이빙하고 특히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손기술'에 주목하여 기술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가들의 협업, 기술 전승 등을 통해 북성로 기술 자산과 기술 생태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문화적 재해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예술인과의 협업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유익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업 과정을 통해 예술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예술적 역할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구'와 '예술'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며 더 넓은 스펙트럼의 시장과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북성로의 작은 틈새가 예술 무대가 되는 미소서식지(Micro Habitat) 공연 무대를 시도해 보고 싶어요! 생태계는 결국 미소(MICRO)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깐,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의 장소를 사람들과 느껴보고 싶습니다.



#북성로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손기술
#기술예술융합 #고유한 지역자원 재생과 공유

컬러 오브 시티, 북성로! 예술로!

김효선 + 김상덕 + 박세기 + 박지훈 + 이준식

팀 소개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 붐붐 북성로 판타스틱! 북성로 환상특급 열차에 몸을 실은 5인의 길, 예술로X북성로! 이번 예술로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러를 잘 발현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컬러에 초대 되어 또 다른 색을 들고 확장된 세계관을 작품을 풀어내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술로(길 로)를 만들고 싶어요.

기관의 주요 활동지인 대구 '북성로' 지역에 잠재된 유무형 자원을 찾고, 재발견하고 작품으로 재직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디딘 땅의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예술로 풀어내어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예술로(길 로)가 되고 싶어요. 북성로를 만나고 이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 우리 가 도시를 바라보고 담아야 할 것들 등을 고민하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고유한 색을 갖고 있는 북성로처럼 도시에는 고유한 색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도시의 다양한 존재들(사람, 이야기, 장소, 동식물 등)이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예술로(길 로)가 되고 싶어요.



협업주제

북성로의 밤과 낮, 두 얼굴을 만나다

- 북성로 유무형 자원의 가치 발견과 기술 예술 융합 프로젝트(워크숍, 전시 등)를 통해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제시
- 면적과 부피 그리고 부동산 논리로 획일화 되어가는 도시공간을 다양한 주체의 얹힘과 설킴이 있는 도시생태계로 재인식과 공유
- 도시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도시로 귀결되는 사회적 이슈 도출과 액션 그리고 공유

협업성과

지역X기술X예술생태에 대한 탐구와 재해석, 그리고 모루라는 공간에 대한 재미있는 발견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놀이의 장을 구성하고 즐기며 배우고 익히는 것을 구현함. 북성로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 발견 프로젝트인 '북성로 낮과 밤'을 주제로 2023년 10월 17일/ 10월 19일/10월 22일/10월 26일 총 4회에 걸쳐/ 예술로X북성로 워크숍을 개최함.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기획전시 <북성로 환상특급 출몰하는 도시의 유령>을 2023년 10년 31일 ~2024년 1월 26일 까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에서 개최함.



홀라(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성악가, 클래식 공연 기획 및 교육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역 '북성로'를 만나게 되면서 제 예술 활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북성로의 고유한 자원들, 지역 이슈들 등을 듣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하고 제작한 것들로 무대에 서게 되었고, 공연을 기획하거나 무브먼트를 위한 예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성로는 저의 두 번째 예술대학입니다. 사실 대학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준 곳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둔 홀라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만남을 통해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호!!)

진행하고 계시는 예술협업 활동과 이 협업 활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북성로는 유무형 자원이 풍부한 도시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개발과 철거, 획일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곳 생태계는 잘 보이지 않거나, 삭제되거나, 잊히기 쉬운 거 같았습니다. 북성로를 만나고 이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고 답지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확장되는 예술프로젝트를 작게나마 하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야생적 삶의 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 실험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협업 활동 시간에 리더 예술인(본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ENFP의 성향을 가진 리더예술가는 머리가 꽃밭이며 그 꽃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합니다. 참여예술가들의 머리에도 무엇이 있는 지 좀 더 듣고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체가 고충입니다. (웃음) 그러나 우리 팀 예술가님들이 넉넉한 마음과 웃음으로 받아주시고, 늘 잘 해내 주셔서 이런 고충은 사라지고 맙니다. (참여예술가님들 고맙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에 초대되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굳혀지거나 잃어버렸던 날 것, 야생적 예술 감각을 회복하고 환기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하려면 어떤 방식에서든지 '회복'과 '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북성로의 작은 틈새가 예술무대가 되는 미소서식지(Micro Habitat) 공연 무대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생태계는 결국 미소(MICRO)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깐,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의 장소를 사람들과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정적인 삶(매달 꽃히는 월급)과 섞이고 확장되는 삶(기관X지역X이슈X4명의 참여예술인X예술로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한마디로 정말 좋은 사업!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대구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대구의 풍경과 장면을 매일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모습과 사회적 담론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로의 길이 또 다른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라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홀라는 예전부터 활동하던 걸 자주 봐왔었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으면 어쩌하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협업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었고,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연과 학력만큼 중요한 것이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이나 명성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지방 소멸이 임박한 현시대에서 각자의 거점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이 있나요?

원래는 실제 존재하는 장면을 특별한 조작 없이 담아내고 책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프로젝트성 작업과 함께 전시의 형태로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의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업을 보여주는 형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들을 위한 버팀목



박지훈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대구에서 주로 2D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페인팅을 기반으로 작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대상간의 관계,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대상이 속한 관계의 복잡한 맥락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작품은 각각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된 복합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제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생각할 여유를 주는 작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홀라와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년에 '홀라'에서 활동하셨던 작가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의 구체적인 특징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리더예술인과 참여예술인들의 이전 경험과 지식으로 잘 이끌어주셔서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저의 예술 활동 방향을 정하는 데 유익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업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예술적 역할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시장과 관객,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이 있나요?

주로 디지털 페인팅과 2d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기에, 더 다양한 예술 분야가 합쳐진 2d 애니메이션을 개인 작업이 아닌 협업작업으로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



‘다 되는 배우 박세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 예술가들의 예술 장르는 미술과 시간예술, 연극, 연가, 실험극, 몸짓 사회 등으로 프로젝트에서 틈새 혹은 연결을 담당 그리고 복성로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실험극으로 재형하는 역할. ‘복성로에 정령들이 나타났다?’ 복성로 오르게 플레어!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연극 배우이자 영화, 라디오, 방송 매체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홀라와 협업 활동 중에서는 연극, 연가 작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공연과 복성로에 대한 관심과 예술에 접목하는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홀라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원했던 매칭이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진행될 작업에 대한 기대로 설레었습니다.

2017년 대구예술발전소 입주 작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타 장르와 협업을 시작하였을 때, ‘홀라’라는 기관이 같은 시기에 복성로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술로 참여기관 중 홀라를 보았을 때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예술도 계속해서 새로움을 원합니다.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협업은,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 예술 활동은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지역 예술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통해 예술을 통한 학습과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술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가르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이 있나요?

예술가의 시선에서 각자의 장르를 크로스해 보고 싶습니다. 작가의 전문 분야에서 타 장르의 예술적 시도는 또 다른 창작 결과물을 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량도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빛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대구에서 유화, 드로잉 등을 이용하여 취향의 세계를 평면작품으로 표현하는 작가 김상덕입니다. 좋아하지만 실제로 경험하기 두려운 것들을 그림 속에 상상화처럼 표현하고 그것들을 타인에게 작품이라는 형식으로 노출하면서 느끼는 희열감을 작품의 추동력으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홀라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홀라와는 협업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매우 즐겁고 기대되었습니다. 본 기관은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 예술로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좋은 기억이 있어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라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인들의 각 전문 분야를 살린 협업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복성로와 홀라라는 공간을 접목한 결과 보고 展을 준비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힘이 된다는 점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이 형성된다는 점 또한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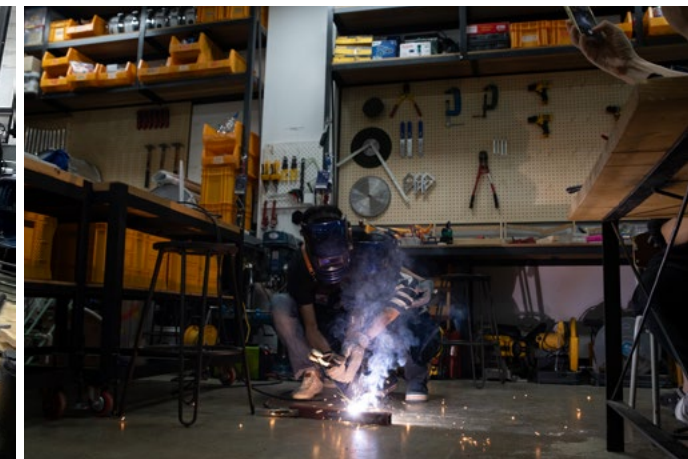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이 있나요?

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작품과 저의 작품을 접목한 콜라보작업을 강화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번 즐거운 조별 과제

판공적 시간 유지, 저와 마주치게 될 예술가면들, 기관 관계자분들, 지역주민들, 저니그린 고양이들~ 당신들과 함께할 참나의 시간을 드로잉하고, 소유하는 역할. 그리고 드로잉한 것을 채색함으로써 살아있는, 생생한, 반영적인, 소리 지를 등을 표현. 복성로 후백의 정면에 채색함을 입힌다! ‘복성로는 늑치 않을 것이다!’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Deagu Branch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Tel 0507-1364-0500

Local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Instagram @kahp.dg

Web daegu.kahp.or.kr

Youtube www.youtube.com/@MEDICHECKDAEGU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는 1964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창립한 이래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학술적 조사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신 첨단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 의원급 최초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인증한 신뢰높은 검진 전문기관입니다.

사업분야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



학술적 조사연구



시민 건강증진 향상

기관 외경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박혜정 팀장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국민건강증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지킴이', '행복도우미'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

2020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예술로 대구 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는 1982년에 설립된 이후 41년 동안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 보건행사 개최, 보건교육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캠페인을 많이 실시하였는데 기존의 캠페인에서 벗어난 건강과 예술의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장르와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과 건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건강과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건강과 예술의 콜라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리듬 놀이와 그림그리기 같은 예술적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즐기는 기회가 되었으며, 연주회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드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술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술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더 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활동은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예술과 창의성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과 예술의 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올해 활동은 건강캠페인과 예술프로그램 협업에 중점을 맞추었으나,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버스킹 공연, 예술 전시회 등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연필화 그리기, 보컬 수업과 같이 직원들이 예술과 창의성을 향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처럼!

예술과 건강은 우리 삶의 원동력!

어벤져스(5아티스트)

이희주 + 서찬영 + 박한나 + 신웅 + 이정우

팀 소개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의 협업 활동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술적 체험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예술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관과 함께 시민을 위한 사회공헌 협업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협업주제

① 사회공헌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진행하기

② 이미지변신

병원이 특성상 지니는 차가운 이미지에 예술적 향기 더하기

③ 사회 프로그램 기획&진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관리협회의 홍보 효과와 함께 사람들과 기관을 연결하며 예술을 통해 사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하기

협업성과

기관의 목적과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유의미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 경로당, 요양병원 등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 캠페인에서 음악 및 미술 활동을 진행함. 활동 중 완성된 어르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또 다른 참여 기관인 달성미술관과 함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킹 하며 '그랜마 오픈스튜디오' 전시를 개최하고(2023년 11월 4~26일) 음악회, 미술 체험 등 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함.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작곡을 전공한 전공인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여성작곡가협회, 대구작곡가협회, 영남작곡가협회, 실랑스 등 여러 작곡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작 작품 발표도 하고, 대구음악협회 작곡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음악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양한 공연 활동에 기획과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프 연주자로 앙상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하프코리아 앙상블과 힐링뮤직전문 앙상블인 ArteVita 아르떼 비타의 맴버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하프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미니하프 뿐만 아니라, 레버하프를 익혀 공주 백제문화제 외 다양한 축제 공연에 참여, 버스킹,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 병원이나 시설 방문 연주 등 연주자로서도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 하고 있는 나온아트, 아트그룹 AMuse의 대표로서 아이들을 위한 음악극, 힐링 음악과 시네마 뮤직 등 다양한 음악 기획과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시니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인연은 작년 2022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작년에 처음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며 리더로서 어떤 기관과 만나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다양한 기관에서의 협업 활동도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기관을 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음악놀이 지도자, 음악심리상담사, 노인음악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저로서는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음악심리, 음악치료 등을 활용한 예술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매칭이 되었고, 좋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기관 직원들을 위한 버스킹, 힐링 전시회, 색과 건강 영상 제작, 예술가와 건강 영상 제작을 통한 건강검진의 필요성 홍보 등 협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과 예술인들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올해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작년에 진행하였던 협업 활동 보다 활동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한 기관에서 협업 활동의 발전단계를 실험해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행하고 계시는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밤차,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크,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술가들이 함께 예술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회의를 거쳐 몇 가지 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7월 18 일에는 신천제일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 스트레스 지수 점검 체크를 하는 날, 예술가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예술가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집하여 보았고, 그중에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리듬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기 전, 예술가들은 함께 모여 활동 진행 방법과 활동 구성 등을 회의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을 진행하도록 의논하였으며, 직접적인 협업 활동으로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였어요. 외에도 기관에서 진행한 벽화 그리기, 경로당 순회 검사 시 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EM 홀공 던지기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했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이라는 것은 혼자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활동을 영위해 나가야 하고, 그 예술을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기고 향유해야 하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변화와 발전에 이어져야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기관과의 협업 활동은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예술가들이 개인 활동을 하면서 기관과 연계를 하여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문화로써 기관이 사회에 나아가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 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예술 활동의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기회가 되어 개인의 활동에서도 사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예술로 사업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른 예술 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고,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사회가 녹록지 않죠.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부수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예술가가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술을 예술이게 그냥 둔다면 누가 예술 활동을 할 것이며, 누가 사회 변화의 일부로서 예술의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인가요?! 이러한 점에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활동이 ‘업’이 될 수 있도록 예술가들에 대한 권익 보호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예술 활동과 다른 장르를 융합하여 ‘업’으로 이어지면 더 큰 예술 활동의 영역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통합문화예술교육사업, 창작 음악극 공연 등으로 음악, 미술, 연극을 전공한 예술인들과 함께 협업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다른 장르와의 예술이 만나야 더욱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로 활동을 통해 만난 예술가들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통합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고 싶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향유하며 자신의 생활을 안정감 있고 풍요로움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로, 예술 활동으로 예술가들 간의 다리가 되어 주고, 예술 활동으로 사회와의 다리가 되어 주는 예술로~!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성악가로서 클래식 음악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 클래식 강좌와 가창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음악회 진행과 해설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관은 병원이다 보니 차갑거나 딱딱하다는 편견과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는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혹 음악회나 전시장, 공연장을 방문하여 감상하는 것에 거리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 예를 들면 기관의 목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비영리단체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등을 이해하기가 쉬웠고 해결을 위한 의지가 생겼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음악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였고, 또 강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관객과 수강자들에게만 음악적 대화를 나누었다면, 지금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 시민들에게 한층 가까워진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예술 활동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입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달같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만 (웃음) 음악의 경우는 시간 예술이기에 노력하는 바에 비하여 짧은 공연을 마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연습이 없으면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처럼) 아름다운 음악도 존재하지 못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계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사회와 국가가 예술과 공연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약자를 위한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는 지구와 '우리' 라는 위성이 만나 '사회와 기업적 예술 활동'이란 어린 왕자를 만나는 사업.



나를 소개해 주세요.

미술을 전공하여 기관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시와 예술 프로그램 구상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미술이라는 분야에만 활동하였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쉽지 않아 스스로가 고립되고 표현의 한계성을 느껴 예술로 활동을 통해 다 감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술로 사업에 지원했어요. 환경에 맞는 아이디어 창출에 자신이 있고 기관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상업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싶어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외부의 활동보다는 건강관리협회 내에서 직원분들에게 예술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관 내에서 할 활동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웃음)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신체적 건강을 검사하는 기관이라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적 심적인 건강 부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술을 통한 힐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명확한 체계가 있다는 부문에서 나중에 다른 기업과 콜라보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가와 협업하면서 예술로 활동과는 별개로 함께 활동하는 선생님들과 콜라보하여 공연을 하였으며, 융합 프로그램을 같이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 느낌입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수도권은 전시 참여 공모가 많아서 다들 어저 있는 여러 갈래의 길 중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가는 느낌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목적지를 가야 하는 느낌입니다. 아직도 그만큼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도권은 뻥뻥한 숲 사이에 저의 나무를 심는 것이고 지역은 많지 않은 나무들 사이에 저의 나무를 심는 것이니 꾸준히 좋은 활동을 한다면 더 빨리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한 장르만 무조건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고 함께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타 장르와 융합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과의 교류 및 활동을 통해 교육 쪽은 물론 공연 그리고 순수 미술에서도 타 장르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가능성을 높여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호흡기(힘들 수 있는 활동에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서찬영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특히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예술로 협업 선생님들의 경험과 예술적 역량을 잘 배워서 성장하고 싶어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대감이 90%였고 10%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팀원과의 협업, 나보다는 기관을, 그리고 팀을 위하자는 생각을 중요시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시야가 넓어진다는 뜻이죠.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의 색을 담고 개발하는 예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음 사실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것이 생계와 연관된 이야기일 뿐 예술이 업이되면 예술이 아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간(판매)를 할것인지 본인이 집에서 본인만의 예술을 할 것인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예술이 계속 시도 되고 있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발견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소스를 찾으면서 서로가 WIN + WIN 되는 활동을 찾고 있어요. 예술로 활동을 통해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나의 작품 세계관을 확장 시키고 싶고, 함께 협업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 한국건강관리협회와는 작년 예술로에서 협업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따라서 지난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욱 펼쳐보며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술이라는 분야는 일상에 스며들어서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분야의 예술인과 이야기길 하다 보면 쉽게 풀리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혹은 어려워서 눈 감았던 분야라거나 새로운 이야기 등 창의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죠. 특히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서로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수도권으로 많이 밀집되어 복잡하기도 하고, 더욱 재미난 소스들이 많아 가끔은 가고 싶다 하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향상 조용하고 물 흘러가듯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많은 전시 등이 풍부하게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참여 작가들과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면서 융합 전시, 혹은 단체전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관에서 만난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차 재밌는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해석하는 연주 혹은 글, 노래를 들으면? 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로!

박한나





Village cultural center craftsmanship cooperative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



손으로 만드는 감성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

TEL 053-593-9942
LOCAL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INSTAGRAM @pmzhabin
WEB pmz.kr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은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건립된 하빈PMZ (Peace Memorial Zone) 평화예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평화라는 콘셉트로 역사를 보존하고, 평화를 주제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고 공유하는 콘텐츠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체험공간으로는 하빈에서 특산물을 이용한 조리 수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음식체험관, 공예 수업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시공간, 주민들이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 회의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PMZ카페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 (하빈PMZ평화예술센터)를 소개한다.

사업분야



음식료 사업



특산물 판매



교육 전문 클래스 운영



예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전시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

구소형 팀장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또 담당자님께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기업은 마을기업이며, 요리 수업 및 공예 수업 등 교육을 주로 하는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본으로 진로직업교육, 동아리 교육, 바른 식생활 교육, 요리 교육, 사제동행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식 탐구와 인성교육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며 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통과 배려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빈PMZ평화예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 교육 프로그램 관련 미팅 및 기획, 전시 관련 업무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통해 기관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시고자 지원하셨었나요?

센터의 공간에서는 봉촌리 지역 특산물(연)을 이용한 체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매년 6월에는 6.25축제, 10월에는 가을음악회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술로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예술가와 함께하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체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시실 공간과 센터, 평화 예술촌이 예술 활동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의 활동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예술의 대중화와 아울러 또, '하빈'이라는 지역의 외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지원했습니다.

참여예술인들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예술인을 파견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신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술이라는 분야를 유연하게 바라보게 되고 대중들이 더 가까이에서 예술을 바라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에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혹은 기관 활동에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센터의 건물이 배리어프리로 되어있는 이점이 예술로 사업을 통해 한층 더 부각이 되었고,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로 대구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

하빈PMZ평화예술센터에서의 체험들과 행사를 평화 예술촌과 함께 평화의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 파견사업은 기관과 예술가의 니즈를 "예술적 가치"로 상승시키는 동반성장이 가능한 활동이다.





팀 소개
연극, 미술, 영상이 모여 평화롭고 인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 하빈PMZ평화예술센터와 협업하기 위해 모인 예술가들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개인별 작업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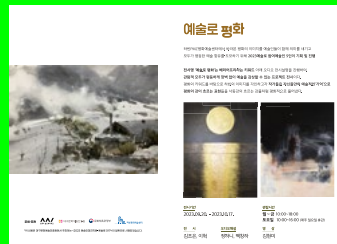
협업주제
지역에 있는 하빈PMZ평화예술센터라는 공간을 어떤 예술적 스토리로 풀어낼 것인가에 중점적으로 고민하였고, 공간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개개인의 예술 스토리로 '평화'라는 키워드와 배리어프리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개별 활동해온 예술적 시각으로 하빈면 문화예술공간을 바라보고 장소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바탕으로 기관과 자유롭게 예술로 풀어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특성을 이해하고 열린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풀 수 있도록 기관에서 선도해주셨고 이에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협의하여 같은 방향성을 잡아 하나의 연결고리로 합쳐 실행하고자 지속적인 만남과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팀)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6개월 뒤의 원하는 모습)
그간 개인의 작업을 하며 나를 담는 데 집중이 되었다면 예술로 활동을 통해 좀 더 사회 공익적인 작업으로 확장하고 다른 장르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느꼈습니다. 한반도 해보지 않은 장르를 경험해보고 평화, 예술, 배리어프리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통해 예술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배리어프리라는 인식의 변화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문화예술의 권리, 작업에서도 그들을 위한,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자의 작업의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된 작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에서 인식의 변화가 다양하게 상생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내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협업결과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예술로 평화」 마을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하빈PMZ평화예술센터에서 바라본 평화의 이미지를 「예술로 평화」라는 전시로 담아내었다. 파견된 예술인 5인이 함께 의미를 새기고 모두가 평등한 예술 향유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 및 진행하였다. '배리어프리'라는 키워드 아래 오디오 전시 설명을 진행하여 관람객 모두가 평등하게 장벽 없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전시로 하빈이 가진 '평화'의 이미지를 각인하고자 지역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낙동강을 해석하였다.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예술적인 '기억'으로 평화의 강을 묘사하여 기관의 이슈를 향유하였다. 또, 연일이 가득 하빈면을 채우던 뜨거운 여름날부터 억새길을 거슬러 올라 가을 축제를 개최하는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모든 순간을 아카이빙하여 기관의 이슈를 담아내었다.



꿈속을 걷는 나그네-이혁



평화전시 리플렛-김조은 이혁 오디오해설



**예술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리더예술인 정하니
총괄 기획·제작, 기관과의 소통 담당



참여예술인 김조은
시각 예술인으로서 시각적 결과물로 협업에 참여, 시각 이외에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참여예술인 백창하
기관과 소통한 리더예술인과의 협업 방향 협의에 따라 극작 및 연출가로서 팔로워십 및 배리어프리 전시 [예술로 평화] 전시해설 담당



참여예술인 이혁
미술체험 프로젝트 강사, 전시 작가, 영상 내 시각적 결과물 제작



참여예술인 김현미
영상 촬영 및 편집, 행사촬영 및 편집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벽 없는 문화예술기관이 되기를

새로운 융합 예술의 활동로 리더예술인 **정하니**

리더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소통하고, 새롭게 상생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흥미로운 작업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인들과 새롭게 독특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점이 매력 있게 다가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관심사인 공연, 전시 등 복합 예술 장르의 실현을 통해 이러한 협업 활동으로 새롭게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과정 중심으로서 즐겁게 작업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가의 시각에서 '하빈 PMZ평화예술센터'의 숨겨진 매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술로 삶을 바라보는 예술가 선생님들의 역량을 조합하고 보람 있는 프로젝트 실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매칭된 마을 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작년에는 공연·전시로 기관만의 스토리를 '연꽃'이라는 지역의 특산물로 스토리텔링하여 예술로 풀었다면 올해는 영상이라는 새로운 톨을 가지고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을 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과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키워드 아래 전시·영상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된 마을 문화센터 숨씨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업하기를 원하셨고, 그 부분 역시 예술가들의 안목을 믿고 '새롭게 바라보기', '낯설게 바라보기'를 통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들이 표출될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요소들로 지금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수용하셨고, 추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지역 안에 평화와 역사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새겨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존하고 있는 에너지와 어떻게 상생하여 더 나은 에너지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빈만의 가지는 고유한 공간과 모이는 에너지,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예술의 공존 사이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리어프리'라는 공간적 장점을 활용해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벽 없는 문화예술 기관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하고 작업 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융합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가깝게 친해져야 하는 단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새롭게 각자가 가진 장르의 예술적 안목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의 이슈를 함께 풀어보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융합 예술로서 확장적 가능성을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매예술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배리어프리라는 단어에 대해 서도 좀 더 우리 예술 영역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의 연장선으로 예술인들 끼리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업하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예술가로서 우리 동네만의 독특한 문화적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문화-예술을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질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를 함께 발전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지역의 예술가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역만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지역에서 예술인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매체예술과 융합할 수 있는 미술 전시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확장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매체와 톨은 발전하는데, 그에 비해 예술가들이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그 영역을 다원 예술로 확장하여 다양하게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관람객들은 오감이라는 감각을 직접적인 체험의 형태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1차원적인 형태의 작업이 아닌 공간 체험의 형태로 다양하게 직접적인 예술을 체험하는 미디어 아트적인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형태 예술의 확장으로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시음성해설을 QR코드로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처럼 다른 장르가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의 형태가 다양하게 표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술로 평화

참여예술인 **김조은**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 과정에 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마을 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과는 작년에 이어 인연을 같이 하게 된 기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참여를 하다 보니 처음 참여를 하신 선생님들과 기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빈PMZ평화예술센터는 센터장님과 팀장님께서 예술인들을 늘 배려해주시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요구사항이 많다 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 요구사항에 따르기만 했을 텐데 저희 팀은 예술인 모두 서로 배려하며 일이 진행되었고 개념도 평화와 배리어프리라는 사회에 이롭게 하는 예술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개인의 작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성장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 '배려'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저에게는 그저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 활동 또한 그렇고 예술로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켜보면 작년과 올해 예술로 사업을 통해 '사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과 만남을 통해 작업의 확장이 정말 많았고 하빈 PMZ평화예술센터를 생각하면서 얻게 된 작품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기 보다는 선물처럼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매칭된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전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미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작업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평화와 예술을 더 녹여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예술인으로서 좀 더 예술로 녹여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온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키워드는

배리어프리로 녹여내고 예술은 참여예술인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과 올해 인연을 같이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과 서로의 예산들을 고려하여 서로를 배려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시각예술을 하는 작가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품에 평화적 요소를 녹여낸다든지 배리어프리 적 요소를 넣어 작품의 이야기를 오디오 녹음으로 들을 수 있었고 작품을 디스플레이 할 때 보통의 시선보다 좀 낮게 하여 어린이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낮게 배치를 하는 것 또한 영향을 받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술로를 하는 동안 평화와 배리어프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 덕분에 얻어진 결과라 생각 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인해 힘을 받고 지역 예술 공동체가 되어 예술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고립되지 않고 더 많은 소통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공연 예술 속에 저의 작업 요소를 녹여낸다거나 제 작품을 영상화 하여 미디어로 풀어봄으로써 여러 장르의 협업으로 더 큰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예술적협업을 조율하는 과정 또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를 배려하며 이루어 낸 예술로 평화였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더 많은 소통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참여예술인 **백창하**

나를 소개해주세요.

아트컴퍼니 소모라는 극단을 운영하며, 연극 및 뮤지컬 장르의 연출가나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를 필자의 장르로 모셔와 희곡으로 작업하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하빈PMZ평화예술센터)와 협업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예술로라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익숙한 작업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해야 했었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어렵고 낯설긴 하지만, 예술로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지점은 바로, 한 명의 개인 예술가로서 또 다른 가치 확대일 것입니다. 평소 하던 작업을 확대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일에 개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인정을 받고 성취를 얻고자 해요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함께 예술로를 진행하는 동료 예술가들과의 시너지와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관과 참여 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장점은 아주 명확한 이슈를 가진 예술센터라는 점 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들이 하빈마을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 데요,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마을에 관한 이야기, 역사적 사실, 연에 관한 고마움 등. 예술가로서는 이야기 하고 싶은 지점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술가들을 대하는 모습 역시 기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을 향한 배려와 다양한 예술적 지점을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는 참여하는 예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영감과 열정이 피어났습니다. 기관에서 형성해준 따스한 분위기로 그동안 협업 과정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정신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하지만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칭된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과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하빈이 가진 이슈를 어떻게 주제와 형식으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함께 하는 예술인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빈이 가진 지점과 우리 예술가들이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그리고 표현 하고자 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로 활동이 단순히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예술작업 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올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배리어프리 같은 요소 들은 일상과 예술작업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를 더욱 확장하여, 언젠가는 꼭 작업에 녹여내어 보고 싶다는 계획도 생겼네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구만이 가진 장점과 색채,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동네(대구)만의 장점과 특색이 있는데요, 이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흉내 내지 못하며, 대구만의 특색이나 색채가 만들어내는 빛나는 지점이 있다. 저는 이를 사랑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늘 새로운 장르와의 협업을 갈망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이야기나 주제를 여러 장르와 만나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신선함과 다채로움은 언제나 기대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예술로 작업을 하면서 동료들의 작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 하고자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여러 영감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술로 프로젝트를 넘어 우리들의 예술작업에서도 이러한 협업이 자연스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자신의 에고(Ego)를 내려놓고 함께 섞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기관이 가진 이슈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지를 고민하며, 여러 어려움과 장벽을 넘어 마침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함께 찾아내는 것. 예술로는 배리어프리

**치열하지만
존중과 배려가
공존하는 시간**

오케스트라 연주

참여예술인 **김현미****예술로 사업의 참여 동기를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외주작업의 경우 철저히 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 지지만, 예술로 사업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기업과 동등한 파트너의 관점에서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숨은 매력을 발굴하여 영상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기획, 시나리오, 연출 그리고 필요하면 촬영과 편집도 가능하기에 협업을 통해 발전 하고 싶어요.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가진 색깔, 서로가 가진 니즈들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이것을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 했어요. 우리는 하빈이 가진 '평화'라는 키워드에 집중했고, 이견을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과정 또한 평화롭게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빈의 장점은 '평화'라는 키워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키워드를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다른 예술인 또한 하빈과 평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요.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하빈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것을 단단히 하면서도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예술인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관심이 있던 배리어프리 작업에 대해서 다양한 예술에 접목해 적용해볼 기회였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팀들의 다른 예술가분들과도 충분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예술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는, 함께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작업에 애정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칭된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빈이 가진 '평화'라는 키워드를 예술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 고민했는데요, 어려운 일이었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음 예도 실행되지 못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렇다 할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 초조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며,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예술가들, 그리고 기관이 그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성장했음을 느낀 후로는 그런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물의 유무보다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또 기관과의 협업 및 다른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얻었어요.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이지만, 개인 활동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제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이번 협업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지역에서 활동 하는 것은 예술인으로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 했습니다. 물론 지역은 기술적인 부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관해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이기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그 나름의 방식을 고민해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색깔을 찾고, 자신의 무기를 개발하는 일인 것인데,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업에 애정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사회(기업, 공동체)와 예술인, 다른 분야의 예술과 소통하는 좋은 경험

참여예술인 **이혁**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고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 습니다. 개인의 작업이 아니기에 그 과정에서 협업의 대상인 기관과 예술인들 사이에 프로젝트 제안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수렴이 되지 않는 상황들에 직면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풀어 나가며 합의점을 찾고 하나둘 해결하는 과정도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인과 기관이 한 발씩 물러서서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고, 배려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은 예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능한 한 수렴하고자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기관협업 일정이 있어 하빈면을 방문하는 날이면 기분이 좋았어요.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나요?

예술인파견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2023예술로 대구가 처음입니다. 저 자신의 작품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나와 열린 소통을 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또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고의 확장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매칭된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번에 매칭된 기관 마을문화센터 솜씨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하빈PMZ평화예술센터에서의 예술협업은 한국전쟁 피난민촌이라는 특성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이북 출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작업을 전개하는 저의 상황과 이주민에 관한 작품 주제와도 잘 연결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역적 기관의 특성을 저의 영역과 함께하는 예술인들과 합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작업 주제와 매체를 확장할 다른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매체의 확장과 예술 프로젝트에 다른 분야의 예술(연극, 성우, 사운드)등을 추가했을 때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구지역은 예술 활동 지원이 수도권과 유사하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청년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많다는 것에 긍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떤 분야와 협업하여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올해 실행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인형극입니다. 작가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올해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음 활동에서는 꼭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작품에 고립되지 않고 열린 소통 사고의 확장



Daemyeong Performing Arts Center

대명공연예술센터

아이엠 그라운드
대명 소개하기



대명공연 예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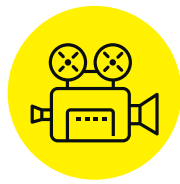
TEL 053-621-8005
LOCAL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중앙1길 54
INSTAGRAM @dpac_art
WEB dpas.kr
YOUTUBE www.youtube.com/@dpas17125

대명공연예술센터는 대명동에 있는 연극, 음악, 무용, 오페라,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단체나 예술 단체나 개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대명 공연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이번에 대명공연예술센터 위·수탁 운영을 맡게 된 (사)대구스트릿컬처팩토리는 실연예술 및 거리 공연,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함께하는 기획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지역 예술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위·수탁 운영을 통하여 좀 더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에게 열려있는 예술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명공연예술센터를 소개한다.

사업분야



예술인이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구 연극사 전시관과 마을 방송국 운영



대명 공연 거리 주요 축제 및 공연 안내



대명공연예술센터

송승태 CP

대명공연예술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대구 남구청에서 산하의 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대명 공연예술센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 예술인을 지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센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예술 분야와 생활 예술 분야를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동 일대의 연극 공간이나 음악이라든지 오페라나 성악, 미술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센터에 연습실이나 전시실이나 공유오피스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 연습이나 활동을 위한 도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 외 저희가 별도로 진행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구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 생활 예술 관련해서도 연습이나 대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활문화센터와 전문 예술인을 위한 공간의 중간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통해 기관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시고자 지원하셨었나요?

대명동은 연극, 미술, 음악,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거주하며 일상을 보내는 곳으로 '대구의 흥대' 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예술 분야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서로 간의 교류할 기회가 잘 없고, 복합영역으로 펼쳐지는 동시대 예술의 고민을 담을 다양한 시도도 필요해 졌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이 밀접하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나 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활동, 주민을 위한 예술 향유나 문화적 활동 등 예술 창작을 위한 예술 외에 다양한 문화적 기획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 기획·행정을 주도하는 대명공연예술 센터에서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직예술인들과 협력하여



이 공간을 거점으로, 또는 모티브로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예술인 그룹이 이 문화 자원들을 관찰, 기획, 창작, 수렴, 발산하며 새로운 작업이나 활동의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예술가로서 다른 다양한 세대의 예술인을 만나고 다시 조명해보거나, 문화복합지구로서의 공연 거리와 대명공연예술 센터를 발판삼아 대중에게 예술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활동을 해보거나, 대명동에 있는 공간들의 맵핑 및 소개를 통하여 예술인의 시점으로 재해석한 대명동의 공간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떠올리며 전문예술인과 함께 풀어 가보고자 지원했습니다.

참여예술인들과 대명예술공연센터 예술협업 활동은 어떤 방향인가요?

센터의 2층 공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상설 전시실이 있는데 상설로 운영되는 것이라 전시가 변경되지 않으면 계속 정지되어있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전시 대관을 받고 있지만, 아직 공간이 알려지지 않아 정체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술인들을 통해 센터에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요, 2층 전시실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의 집적지로 대명동이라는 곳을 재조명해줄 수 있는, 센터와 동네에 연결된 예술공간들을 리마인딩 시켜줄 수 있도록 오는 '15분 예술 동네' 프로젝트의 취지와 같이 알리는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졌었고 예술 인들 간의 네트워킹, 사실 최소한 이더라도 공연예술 분야 외 장르별 예술가를 매칭을 의도하였기에 현재 매칭된 참여 예술인이 매개되어 서로 몰랐던 장르의 예술인 들이 센터와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킹을 형성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대명공연예술센터는 꽤 많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며 장르별 예술가들의 무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장르별 벽이 높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간혹 타 장르와 융복합 형태를 꾀하시는 예술인들을 만나긴 하지만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명 공연예술센터에 가진 재원으로 표방하는 것은 공연예술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만나고 융합되어 나오는 시너지가 어떨지 가장 궁금했고, 주변 예술 기업기관들도 센터에 자주 방문 하고 교류하니 센터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가능하면 센터 주변의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들과 참여예술인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대명동이라는 공간을 다양한 예술가 들이 자유로이 실험하고 교류하고 융합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팀 소개

와짜와짜! (대명) *아프리카 말린 캐 족의 언어로 '아자아자!'라는 뜻.

확실히 독특한 5인의 모임. 근데 다 여자. 서로가 서로를 독특하게 생각함. 느슨한 듯 은근 확실한 결속이 존재하는 듯함. 서로 마음의 벽이 없는 건 확실한 듯. 만나면 항상 배가 고프다.

협업주제

〈대명 예술 플라주〉 골목 예술제 - 7월 1일 (종료)

- 협업 기관인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대명 2, 3동의 지역특화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6월 사업에 관하여 예술거점기관으로서 축제 운영을 맡음.
- 예술로 참여예술인들은 전문 예술인력으로 해당 축제 사업에 함께 운영과 공연에 참여.
권수는 (공연 총 연출 및 진행) / 권효정 (공연 미술감독) / 김지인, 정혜진, 이보람 (연주자)

기관이 다루었으면 하는 이슈

대명과 예술이 관련한 아카이빙. 상시 체험이 가능한 형태의 전시물로 2층 공간을 채우길 희망 /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 내용

1. 대명공연예술센터, 기반한 지역과 예술 관련한 아카이빙 상시전시
2. 공연예술 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네트워킹&커뮤니티 운영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안

대명동, 대명공연예술센터, 예술이 관련하여 기록돼 있는 내용을 조사/발취 팝업, 포토존 형태의 예술적 시각물로 제작. 기관의 니즈를 최대한 고려하되 일시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진정성 있는 시각물을 제작하고자 함.

지역 활동 예술가, 예술기관 업무관련자, 그 외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 상호 지원과 성장을 도모.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 정보를 교환하여 자원과 기회를 확장하여 예술작품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 예술 생태계를 확장을 기대함.



추가적인 해결방안 도출 방법

전시 또는 예술가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리셉션 공연 등을 추가적 구성할 수 있음.

우리 팀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6개월 뒤의 원하는 모습)

서로의 강점을 살려 음악가들의 리셉션 성격의 공연과 시각 작가는 전시 시각물을 구체화하여 예술적인 역량을 함께 감상하는 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예술 경험을 통하여 협력과 교류의 힘을 통한 창의적 활동이 각자의 예술에도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함.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연결되어 상호 영감을 주고받으며, 예술적인 생태계를 확장에 작게 기여할 수 있는 사례들을 도출해내고자 함. 예술로 사업 이후, 협업한 예술인들의 분야에 함께한 예술인들의 작업과 인지도를 향상시켜, 서로를 통해 뻗어나가는 인프라들이 구축, 확립되어 더욱 확장된 예술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함.

협업결과

「아이엠그라운드 대명소개하기(feat. 대명의 진심)」

대명공연예술센터와 7월 예술협업 활동으로 〈15분 예술동네-대명예술플라주 골목 예술제〉를 진행하며 참여예술인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펼쳐봄. 10월에는 2층 공간에 전시를 추진하였는데 기관의 아카이빙 자료를 기반으로 대명공연예술센터를 의인화하여 프로그램과 마음을 소개하는 편지글 형식의 시각 구조물로 제작하여 대명동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할 수 있도록함.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예술로 와짜와짜 심야 네트워킹 '대명살롱'〉을 개최하여 대명공연예술센터 및 공연 거리 활성화에 대한 논의, 대명동과 예술에 대한 주제로 프리토킹을 하며 대명공연예술센터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해봄.

각자의 예술에도
촉진될 수 있기를



리더예술인 권수는

프로젝트 기획 방향 제시, 운영 리드.



참여예술인 권효정

기관에서 필요한 시각적 아이디어 도출과 구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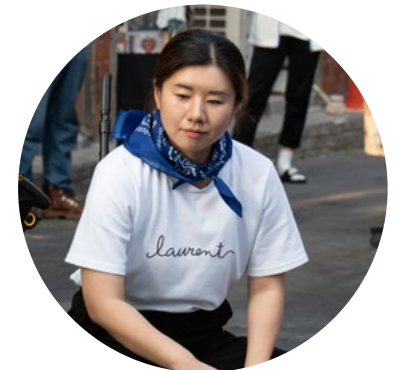
참여예술인 김지인

전시 레퍼런스 및 관련 자료 조사 (예술가 네트워킹 프로젝트) 예술인 참여자 섭외, 운영 현장 관리



참여예술인 정혜진

부스 전시 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및 실제 경험 공유/전시 레퍼런스 및 관련 자료 조사



참여예술인 이보람

프로젝트 관련 자료 조사, 전시기획 소스 제공, (예술가 네트워킹 프로젝트) 예술인 참여자 섭외, 기획 보조



오묘하고 독특하고 흥미로운 예술협업

리더예술인 권수은

나를 소개해주세요, 더불어 참여 동기도 알려주세요.

공연예술인. (뮤지컬, 연극배우/ 공연 연출/ 공연기획자/ 예술 강사 등)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와 콜라보(융복합) 작업에 관심 많아요. 적당히 예술적이고 적당히 일반적이며 적당히 독창적인 지점의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상태를 추구하며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지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소리 크게 내며 지지 해주기 잘하는 것이 장점인 듯합니다.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접점에서 새롭게 자극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작업을 최근 꾸준히 고민하며 시도하고 있어요. 예술과 관련한 지역 기반의 시각적 전시물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공연예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식의 다원 예술적인 실험적인 이색작업으로 경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연 프로덕션 운영 외 시각 전시기획을 직접 운영함으로 공연에 시각적인 요소를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소통하고, 구성해 보고 싶어 참여 하게 되었어요.

대명공연예술센터와의 협업 활동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공연은 15분 예술 동네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일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대명예술플라주> 참여했어요. 그리고 대명동과 대명공연예술센터, 예술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와 교체가 용이한 예술적 시각물을 제작하고 상시 전시 기획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를 연계하여 지역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테이블 커뮤니티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들이 함께 교류하는 지점들을 대명공연예술 센터에서 예술로의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허브가 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업 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타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자극 교류. 새로운 예술 장르의 시각과 관점을 또 다른 자극으로 수용하여 예술의 본질은 벗어나지 않으며 효율을 높이며, 개인의 예술적 역량 발전에 새로운 챕터를 도모하는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관과의 협업 과정은 어떤가요?

기관과의 소통은 굉장히 원활했어요. 상호 상황과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적 인재들이 소모되지 않는 지점들을 함께 바라보고, 에너지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 함께 하며 얻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장르를 훌륭한 능력들을 함께하는 타 장르 예술인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교감 될 수 있다는 지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장르 예술인들의 예술적 시각에서 주어지는 실마리와 같은, 작지만 큰 다른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예술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소 중 문화 예술적인 요소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지역에 지역 예술인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참여가 예술인 개인으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능력 외적으로 함께 연대하여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의 지점이 발생되고, 기관의 니즈라는 방향이 또 하나의 설정처럼 느껴져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과 흥미롭게 과정보들을 즐기고 있다는 자극과 환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지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문화교류의 순환

참여예술인 김지인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 과정에 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대구대명공연예술센터와의 협업 과정을 순조롭고 좋았습니다. 예술로 연주 또 앞으로 공연센터에서 있을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보람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새롭고, 안정됐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제 개인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발전하며 앞으로 다른 예술 모임이나 협업 활동에서도 더 큰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성취감 또한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저에게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매칭된 대명공연예술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대구대명공연 예술센터와 예술인들 각각의 의견과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주고받아 서로 오해가 없고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팀원들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 또한 협업 활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대구대명공연거리에서 있었던 연주는 사실 제가 많이 해왔던 작업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전시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르고 경험이라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괴감과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술인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업무를 분담받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도 얻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 느낌을 받았고 예술인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스킬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능력들이 제 개인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구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예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술 활동을 통해 대구의 정체성과 문화를 나타내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예술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활동, 악기와 클래식 음악을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 등 저의 예술 능력을 대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또는 국제무대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미디어 아트와 클래식 음악을 융합 하여 가상 현실(VR) 음악 공연이나 시와 음악의 결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이
새롭고,
안정됐습니다

다채롭게 예술협업

참여예술인 이보람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진 예술적 역량 외에도 예술기획, 교육, 협업,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앞으로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예술 향유 및 공공예술 분야로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술적 경험의 공유를 통한 긍정적 에너지를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프라의 확장입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는 타 장르의 예술인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 또한 저희 팀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네트워킹 사업 '대명살롱'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인적 자원을 많이 얻어 가고자 합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관과 참여 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 일까요?

저희 팀은 기관이 원하고 필요한 니즈를 최대한 고려 하여 사업 방향을 정하고 그 큰 방향안에서 참여예술 인의 성취감과 만족도 또한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참여예술인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진행 하였습니다. 대명공연예술 센터는 참여예술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며 예술인들이 계획하는 것을 실현 하기 위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에서 회의를 많이 진행해보니 센터는 위치적으로나 내부 구조적으로나 예술인 들이 잘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란 걸 알게 되었으며 예술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방문하여 개인적인 예술 활동하는 데 활용 해야겠다는 생각이드는 곳입니다.

매칭된 대명공연예술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인과 기관 쌍방의 존중, 쌍방의 만족입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개인적인 예술 활동을 유지하면서 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술로 대구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장르 예술가들이나 기관 조직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개인 예술 활동 시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해볼 수 있어 이로 인해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의 예술문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한다고 자부하게 합니다. 물론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렇기에 떠나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도 되기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린 후 예술의 영상화가 이제는 필수적 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대중들 에게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예술 소비로 이어지는 예술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

예술 활동하는 데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

상생하는 예술의 가치**참여예술인 권효정****예술로 사업의 참여 동기를 알려주세요.**

'예술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고 지역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성장시킨 저의 강점은 매사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새로운 환경에서의 빠른 적응력입니다. 이번 사업참여를 통해 대구의 문화 예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의 예술적 경험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관이 예술협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 좋은 환경과 배려 가운데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는데, 리더예술인께서 소통과 업무 분담 친목 등 다방면으로 활동에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잘 채워 주셔서 만족스러운 협업 활동이었어요.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시각예술을 전시를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 하나의 기능적 요소로 사용하고 소비해봄으로써 예술가로서 사회와 호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새로운 장르와의 만남을 통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확보함으로 예술가로서의 행보로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발판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번 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센터의 니즈와 예술가들의 영향력이 교집합을 이루는 지점을 잘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지역에서 8년을 창작 활동을 해오면서 때로는 지역에 너무 고립된 것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 다녀올 기회로 여러 미술관과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것은 그 나라, 그 지역만의 것이 녹아 있고 깃들여 있는 작업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때론 로컬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않나 꿈꿔 봅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각 예술가라 전시의 형태에 음악이나 퍼포먼스 같은 새로운 장르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매체의 한 형태로 표현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시각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 세계의 확장과 에너지 충전



**예술가로서
사회와 호흡하고
있다는 자긍심**

봄날의 햇살**참여예술인 정혜진****예술로 사업의 참여 동기를 알려주세요.**

예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류하고 오랜 시간 소통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하고 성찰하며 지역 예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타 장르의 목소리를 듣고 예술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5인 예술인 중 미술분야 선생님 외엔 모두 공연 분야였어요. 새로운 시도가 많아 큰 고난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미술 분야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전시를 준비하고 기획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나요?

여러 분야 예술인들과의 교류의 확대를 희망하며 교류를 통해 분야를 통찰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함께 협업하는 예술인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었어요, 개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여서 협업을 통해 소중한 동료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이번 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관과 예술인의 소통이 우선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통이 어려워진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부딪히거나 결과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도 예술인도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였고 의사결정 사항에서도 이견이 없어 즐겁게 협업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인으로서의 예술적 시야의 확장입니다. 직접 경험을 하지않고서는 환경이나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몇 달 동안 함께 회의하고 견해를 나누며 장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협업'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고 기관에서의 니즈를 함께 연구하고 풀어나가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상상력, 창의력이 생겼어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개인적 활동으로 보아서는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있어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협업해보니 식견이 넓어졌는데요. 이런 형태의 다원 예술이 계속 만들어지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떤 분야와 협업하여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술인들을 섭외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기획 활동을 해보니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따로 계획은 없으나 기획자로서의 작은 축제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상상력, 창의력이
생겼어요**



Cooperative Society Farmer's Market

협동조합 농부장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생명공동체를 꿈꾸다



협동조합 농부장터

TEL 053-321-0909
LOCAL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37
INSTAGRAM @coopnb
WEB www.coopnb.com
YOUTUBE www.youtube.com/@user-py3ox7nq3n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매개체로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설립되었다.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소비를 지향하며 지역의 로컬푸드 판매 외 레스토랑 운영 및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농민 교육 지원과 지역민의 인식개선 운동, 지역 환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농부장터를 소개한다.

사업분야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의 실현



도농 교류, 도시농업, 로컬 음식
교육 안전성 강화, 수수료체계를
통해 농민의 수익을 보장함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



위기상황 속 먹거리 취약계층의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 1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운영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며, 이익금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다.
- 2 제로웨이스트 환경운동에 앞장서며 먹거리 돌봄 사업, 농민 교육지원, 어린이 무료 수업과 원예 수업, 소비자 로컬 푸드 체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모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농부장터

이지애 팀장

협동조합 농부장터 어떤 기업이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또 담당자님께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격 책정 및 포장, 진열, 관리를 통하여 생산물에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인근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업의 지속성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산지 방문 및 먹거리 관련 체험을 제공하여 규모의 경제 속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조합원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데 이때 필요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조합원 대상 산지 체험과 먹거리 교육을 기획하거나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기업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통해 기업에 어떤 이슈를 해결하시고자 지원하셨었나요?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소비자-생산자-직원 모두가 조합원으로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이해와 협업을 통하여 운영하고 정관에서 그리 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핵심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모양새가 아주 이쁘지 않아도 대부분의 소비자 조합원은 로컬푸드의 취지와 목적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홍보와 관련 운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로컬푸드에서 생산자와 생산물에 대한 이해가 잘 전해진다면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된 이슈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생산물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생산자 자체에 대한 인간미를 볼 수 있는 색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약 두 달여간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참여예술인들과 협업과정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타 사업과는 조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생각한 바가 달라 조금 서툴렀던 부분이 있었기도 하지만 예술인 선생님들께서 농부장터에 했으면 하는 것을 역으로 제안해주셨고 그사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 여건이 된다면 시도해볼 만한 재미있는 아이টে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당장 실현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이টে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각기 다른 예술인들이 모이니 다양한 시각으로 사고할 수 있었고 각자 보유한 탠트를 모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색적이었고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에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혹은 기업(기관) 활동에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본 사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생산자분들은 협동조합 농부장터에 상당 기간 관계했던 분들입니다. 그 기간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소를 나누면서 소년 같은 모습도 보았고 농사꾼으로서의 순수한 열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많은 수고로움에 감사하였습니다. 담당자로서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생산물도 다르게 보이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술로 대구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협동조합 농부장터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나요?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형성을 목표로 만들어 졌습니다. 벌레 먹은 과일, 배추 한 포기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담긴 땀과 노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지만 녹록하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원거리 물류가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 동네에서 키운 농산물을 고집한다는 것. 그리고 편한 길을 두고 힘든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농민 한분 한분의 정신은 농부장터를 이루는 지주이고, 그 가치를 알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는 농부장터의 살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알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예술인의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기업과 예술인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예술이다.



팀 소개

팀 '아 트랙터'는 서로 다른 장르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장점을 창의적 시각과 아이디어로 녹여낼 수 있는 팀입니다. 함께 매칭된 기관 '농부장터'는 협동조합이라는 큰 틀로 이루어져 상생을 목표로 다져진 곳입니다. 이러한 기관과 함께한 저희 예술로 팀은 다양한 관점과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를 통해 기관의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예술 분야의 감성과 창조적이며 조화로운 협업을 통해 기관의 문제에 대해 섬세하게 접근하고 창의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매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주제

[협동조합 농부장터] 기관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생산자에게는 생산의 삶을 영위롭게 만들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운영 중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방식은 이상적이고, 조합원들의 협동을 통해 이룩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기업의 이슈는 예술인 파견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이곳의 가치를 실현하게 해줄 3가지로 정하였음.

1. 이용소비자들이 늘리기 위해 매장의 디스플레이 개선과 외부 인테리어를 변경
2. 생산자 스토리를 담아 친근한 생산자를 알리는 것, 큐알을 붙여 생산품에 붙일 계획
3. 카페 테리아의 이용자를 늘리는 방법

그러나 공통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현 기관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추후 저작권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예술가들의 활동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함.

예술가들은 이 기관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

1. 농부 생산자들의 인터뷰를 담아내어 생산자 스토리를 만들어 냄. 기관에서 조합원 생산자의 리스트를 받아 9곳의 예상으로 인터뷰 가능한 여부를 판단함
2. 형식은 목소리와 사진으로 촬영하고, 영상은 짧은 밈으로 하여 포인트 동작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목소리, 사진, 영상을 넣고, 폴리 (효과음), BGM을 넣어 하나의 영상으로 도출함.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며, 채널의 저작권은 참여예술가들이 공동으로 가짐
3. 또한, 예술가가 생산자들의 사진과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4. 생산자들이 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 작품을 판매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함

5. 기관에는 매장 내부에 스피커를 통해 라디오처럼 틀 수 있도록, 목소리와 폴리를 넣은 파일을 드리고, 지속해서 틀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예상됨

6.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에 비용 문제와 지속 가능성이 해결되는 점점이 됨

추후 사업이 마무리되고, 예술가들이 마음이 연결된다면 다른 농업생산자의 이야길 담고, 채널에 이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됨

협업결과

협동조합 농부장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의 얼굴을 알려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농작지를 직접 찾아가 생산자의 농사 철학이 담긴 이야기와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생산자 스토리를 담았다. 유튜브 플랫폼, 오디오, 블로그 형태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직매장에서는 생산자 스토리가 라디오 형태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생산품과 생산자 소개를 QR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생산자와 구매자의 소통을 확장하고 판로를 열었다.

아-트랙터 유튜브

youtube.com/@atractor2023

협동조합 농부장터 블로그

[아트랙터 생산자 인터뷰]

blog.naver.com/gbnongbu



아

리더예술인 장하윤

기관과 소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 조율과 계획을 조정하는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이 마찰이 있다면 중간자로서 해결해 나가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여예술인 박지수

협업 활동 시 사진 촬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활동으로 음악 제작과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 생산자의 스토리의 최종 편집에서 폴리(효과음)와 BGM을 맡고 있습니다.

피

랙

참여예술인 김인철

선 참가 작가분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주저함이 없는 의견 개진을 돕고자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활발한 의견 공유가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 프로젝트 진행방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잘 정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진행자로 발탁되었으며, 질문지 외에 다른 질문을 유도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참여예술인 신준민

팀에 화합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와 적극적 환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팀명에 해당하는 로고를 제작합니다. 트랙터를 타는 두더지를 로고로 만들어 영상의 인트로와 아웃트로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터

참여예술인 윤진

팀 트랙터의 박수와 눈치, 협업 활동 시간 관리를 담당합니다.

* 팀 내의 아이디어뱅크로, 웃음 코드와 재치 있는 영상을 담기 위해 PD 역할과 인터뷰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종합예술을 위한 협동

리더예술인 장하운

나를 소개해주세요.

시각예술을 분야에서 평면 회화와 설치 작업으로 저의 시각에 들어온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먼 이야기가 아닌 아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지만, 지나쳐 버리는 풍경에서 감정과 감각을 곁을 담아 타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리더의 역할을 맡았고, 참여하는 기관의 니즈에 듣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남기고자 하며, 또한 함께하는 예술인들이 모두 다 장르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과 여러 기술을 녹여넣어, 다음 기회에도 자랑하고, 누군가 한 번쯤 물어보게 되는 협업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리더예술인으로 지원해주시고 선정되었습니다. 리더예술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시각 예술가여서 혼자 작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전시 기획하는 일을 접해보면서 무엇을 함께 만들어가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공든 탑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파견사업에서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과 무엇을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업을 위한 조율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분야의 문화예술인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종합 예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협동의 힘을 길러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두 달여 간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기관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기관은 니즈를 모두 충족하기를 원했고, 니즈를 충족을 위한 매장 디스플레이, 로고송, 생산자 스토리 촬영에 관한 재료를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을 한 결과물을 지속해서 쓰고자 하셨습니다. 지속해서 쓰기 위해선 저작권이 걸려있었기에 이런 부분이 조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여러 차례 회의하였고, 결과물의 저작권은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가지로 하였습니다. 농부장터의 조합원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링크를 농부장터와 생산자조합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관의 장점은 여러 작품의 생산자들의 조합원들이 이루어져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생산자에게 경매시장으로 판매해서 하는 대금보다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생산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주는 것이 농부장터의 큰 장점입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안전한 농작물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매칭된 농부장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생산자의 농작지를 촬영하고, 어떤 철학으로 농사를 짓고, 농부장터의 소비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영상에 담게 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는 구매로 연결해 주며 생산자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고,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선택 한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선택되고, 돈을 벌기 위해 선택된 직업이 아닌, 작가의 시선을 작품 담아내고자 작업 활동하며 삶의 특정한 기동을 세우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은 예술을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닌 녹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예술인파견사업이 다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내어 가며 파견사업 안에서 융합과 협동, 협업을 펼쳐 내 보고 있습니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삶입니다

화합을 이루어

참여예술인 **김인철**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설과 수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작가분들과 함께 작업한 경험이 무척 기억에 남아 3년 차인 올해 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어 농부장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선과 방식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야외활동 참여에 거리까지 않아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텍스트 편집 작업 및 기사 작업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글들을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두 달여간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과정은 어떠셨 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 일까요?

초반에 약간 난관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의 이견이 프로젝트 진행 자체에 제동을 걸 수도 있었지만, 기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재고를 통해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술인들도 제 역할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열정과 책임감을 뚜렷이 느끼고 있는 생산자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 진행된 생산자 인터뷰를 통해 그분 들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알 수 있었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농부장터는 그 자체만 으로도 큰 자산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새로운 경험을 얻고 싶습니다. 예전 경험이라면 문화/ 예술 분야 인사에 대한 인터뷰 경험이 전부였지만, 이번 농부장터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산물 생산자분들이라는, 개인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담과 노력으로 수확한 작물을 직접 유통하는 것에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예술인들과의 교류 또한 제가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 차 예술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농부장터 팀원분들만큼 팀워크가 좋고 케미가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을 미루지 않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시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작업하는 분야가 다르면 인식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익숙한 정적인, 길게 풀어내는 형태가 아닌 핵심을 찾아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을 몇 차례 겪을 수 있었고 사안을 바라보고 내면화하는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머지 두 달을 함께 겪으며 좀 더 내면화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Next Level이다. 저 너머의 문을 열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니까.

다양한 시선과**방식을 통해****그들의 이야기를****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농사꾼 같네요

참여예술인 **윤진**

나를 소개해주세요.

영화를 하면서 연출과 제작, 출연하였기에 저의 재능을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저의 이러한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중심의 문화를 대구 예술인들과의 조합으로 대구에 새로운 문화 산업을 개척하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영화인들과의 교류밖에 없던 작업이 예술로 파견지원 사업으로 인해 다른 예술가들과의 인적 인프라를 얻어 추후 다른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다른 어떤 정보들을 공유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영역뿐만이 아닌 다른 예술 지원사업에도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것도 있고, 영화 촬영

내에서만 보던 장비들도 다른

예술가들의 작업물 들을 보고

응용을 해서 미술에서 필요한

도구가 영화작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예술가들이 알고 있는

인프라들도 공유하고 지역에서

영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사고 영역을 확장해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나의 경험으로 보면 서울에서의 작업과 대구에서의 작업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대가 큰 만큼 서울은 지원자도 대구보다 두꺼워서 경쟁이 더 치열하며, 경력자를 더 원하는 현장에서 그런 경력을 쌓기에는 서울보다 오히려 대구가 더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영화를 하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돈독한 유대감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1,000편에 가까운 영화가 제작되어 영화제에 출품하지만, 서울보다는 지역에서 제작한 영화가 관객들에게 노출할 기회도 서울보다는 대구에서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영화를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연기 하려고 연극을 시작했었고, 영화에 출연을 하다 보니 제작과 연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업'과 예술이 구분을 짓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분이 지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현재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른 장르와 융합 하여 '업'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걸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는 협업활동

참여예술인 박지수

나를 소개해주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작곡가로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만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술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며 저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협업하는 예술인분들과 함께 녹아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음악 작곡 및 편곡입니다.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작업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 매우 순조롭고 다양한 발상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가치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농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경제적인 자유와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에 있어 경험을 얻고 싶습니다.

매칭된 농부장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참여예술인들과의 의견합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의견을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이 잘 진행되면 어떤 것이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관점과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예술인들이 제시해주면서 생각이 관점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가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어 생각해보면 대구만의 특색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색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이 업이 된 지금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구분되지만, 이 상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업이 된다면 연주뿐만 아니라 전시와 설치 쪽에서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역사회에 녹아든 예술



농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속가능성을 봅니다

참여예술인 신준민

나를 소개해주세요.

예술로(협동조합 농부장터)를 통해 다른 장르 예술가들과 농부장터의 니즈를 토대로 참신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각예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농부장터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홍보 관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생산자 줄거리 콘텐츠 및 디자인 측면)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도 기관에 지속해서 활용되도록 가치 있는 시각 자료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농부장터의 생산자 인터뷰를 다니며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술, 영화, 음악, 문학) 장르별 예술가의 능력이 달라서 새로운 관점과 협업의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분야 예술인, 다른 삶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또, 여러 농장을 다니며 생산자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보며, 농부의 삶, 그 현장을 통해 예술인의 삶, 결국 인간의 삶이 비슷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매칭된 농부장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서로 간에 생각하는 생산자 스토리 인터뷰에서 기관과 예술가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분들의 인터뷰를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느끼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혼자 예술만 하는 굳어진 시선을 벗어나 다른 기관 및 다른 장르 예술인분들의 새로운 관점과 일을 해결해가는 능력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부분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곳에서 예술로 삶을 풀어내며 활동하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삶,
결국 인간의 삶이
비슷하다는
부분을 느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TEL 1661-2626
LOCAL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INSTAGRAM @airport.korea
WEB www.airport.co.kr/daegu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까지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으로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사업분야



국제교류 중심



영남권 거점공항



관광객 유치



물류 중심지

- 1 경상도 중심부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은 입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국을 쉽게 연계할 수 있어 대구·경북의 유일한 국제교류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경산, 영천 등 대구 인근지역은 30분 이내 경주, 안동, 포항 등 경북 관광명소는 9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여 영남권 거점공항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대구 주변의 경주권, 경북 북부권(유교권) 등 관광 보고를 찾는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입니다.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 4 대구는 경부선, 대구선 등의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영남 대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종합무역센터, 종합유통단지 등이 있어 명실상부한 경상남, 북도 무역과 물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태현철 차장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

공항은 여행자들의 대기 시간이나 이동 시간을 포함한 여행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 전시회, 퍼포먼스, 그림 등은 여행자들의 경험을 더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적인 예술인들을 모셔 문화 예술 관련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공모 안내 공문을 보게 되었고 지원하였습니다.

대구공항은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공항을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 여러 장르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구공항은 대구의 게이트 웨이 역할을 하며 대구의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하고 대구의 아이덴티티를 부각하는데 예술을 활용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고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무료한 대기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6월 26일 진행된 이륙데이에는 이른 휴가를 보내려 가는 고객이 많았는데, 장마가 막 시작하던 시기라 비행

KAC 대구국제공항

자연이 꽤 됐었습니다. 마침 전래놀이 체험을 진행했었고 특히 대기를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곳은비로 약간의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공항과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을 통해 공항은 그새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은 대구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대구공항 인지도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항 내 전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 환경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여행자들은 대기 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26일, 이륙데이라는 이름의 문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대구공항을 홍보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고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보람되고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이번 예술협업의 경우에는 전래놀이 체험, 전시, 밴드공연, 마술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래놀이 체험으로 진행된 도토리 팅이를 고객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모습과 마술공연 중 몇몇 분의 고객이 도우미로 참여하여 행복해하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양한 장르에서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미있는 문화행사를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과 기업이 윈윈하는 사업



팀 소개

공항을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문화 향유 기회와 기분 좋은 추억을 나르는 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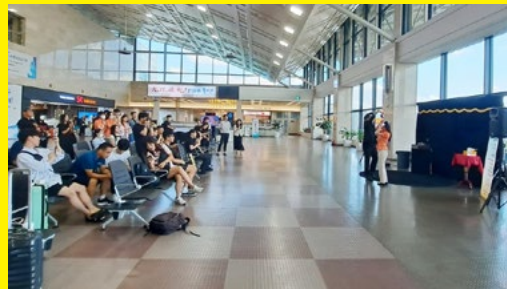
협업주제

대구국제공항의 이슈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 시간과 같은 무료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예술로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 팀은 모든 팀원의 분야가 달라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록을 숫자로 표현하면 26(이륙)으로 재밋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협업 활동이 시작된 5월부터 매달 26일을 대구공항 이륙(26)데이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통문화 놀이 체험인 '도토리팽이 만들기'를 시작으로 미술, 클래식, 실용음악 등 여러 장르의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과 직원분들께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협업성과

매달 26일을 이륙=26(이륙데이 문화가 떴다)으로 지정하여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5월 미술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연 당일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하여 8월 11일 진행
- 6월 전통 도토리 팽이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 7월 Route 49 버스킹 공연
- 8월 클래식 공연(아코디언, 성악(Tenor))
- 9월 대구공항 신청사 개관기념 <걸어온 시간展- 김리아 작가>
- 10월 클래식 및 대중음악 융합공연 연주



비행기는 하늘을,
예술은 마음을 나르다
Sky & Soul Connection



에



리더예술인_허재운

기관의 이슈 진단, 협업 프로젝트 기획·운영, 보고서 점검, 회의, 간담회 진행



참여예술인_이해웅

마술공연 및 현장 운영

어



참여예술인_김리아

사진촬영과 디자인, 미술, 프로젝트, 공연, 체험 활동 등을 진행과 보조

아



참여예술인_이보은

서기 및 회의록 작성, 일정 조율

피



참여예술인_이한솔

대중음악 공연, 전체 음향 감독, 프로젝트 기획, 현장 보조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설렌다

리더예술인 **허재운**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국악예술단 동동 대표, 대구시 무형문화재 이수자, (사)대구 국악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특히 국악과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해 소통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드론, 버블아트, 마술, 다문화 예술가, 삼살개, 비보이 등 지역기반 예술가와 콘텐츠를 활용한 작업을 실현 하였습니다. 근·현대 지역 음악가와 국악을 융합한 학술 음반 사업도 선정되어, 4개의 음반을 기획하며 건강한 지역문화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대구공항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매칭이 되고 싶었던 곳인데 기관으로 설정되어 열씨구 좋을씨구 추임새가 절로 나왔습니다. 기관 차장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자 동네 주민이었던 적도 있어 친밀감이 더욱 쌓였어요. (웃음) 예술가들의 이름과 사업명이 적힌 배너 제작, 예산추가 상승 노력, 활동비 지원, 지역 맛집, 커피, 회의실 제공 등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에 늘 감사했어요.

진행하신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매달 26데이를 진행했습니다. 기관과의 첫 미팅 때부터 우선 시되었던 부분이었고, 예술가들 또한 일상 속 문화 소통에 모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대구공항의 여러 이슈로 프로그램이 연기 되기도 하였지만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공항의 이슈는 단순히 협업 활동 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항에는 공항 경찰대, 기동대, 긴급현장 상황반, 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순찰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협업 활동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심리, 생명, 예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장기간 타 분야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따라 예술뿐 아니라 경제, 사회, 트렌드 등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계의 확장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금 더 많은 예술가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사업



경계의 확장
가장 큰 영향력

공항 이용객에게 예술로써 기대감을 형성

참여예술인 이한솔

나를 소개해 주세요.

현재 대구를 기반으로 대중음악 관련 예술 활동을 하는 이한솔입니다. 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회사 '썬소설멜로디' 대표이사, 음악스튜디오 '빙커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Route49'라는 팀의 프로듀서로 대중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프로듀싱 등 음악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예술 관련 교육 등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과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대구국제공항은 저에게 예술인으로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예술인으로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공항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타 예술인과의 특별한 협업, 과연 공항에서 원하는 예술인과의 협업은 무엇이 있을지 등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는 공간인 공항에서의 예술 협업 활동은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구공항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대구공항 기업 매칭 이후 오리엔테이션, 기관 회의 등 많은 이야기 끝에 나온 결론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예술 경험 제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음악(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민화, 미술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을 골고루 매칭하신 것을 보고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떤 협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예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제공하자'라는 결론을 내었고, 현재 공연자로서 공연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프로젝트 기획, 음향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관 및 타 예술인과의 협업은 대중음악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저의 식견을 넓힐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협업은 저의 예술인으로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업은 저에게 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으로서 식견을 넓히고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각 지역 별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별 문화적 아이덴티티 강화,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 경제 및 문화 생태계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강화하거나 시도 해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인들과의 협업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하나의 작품으로써 각 장르를 잘 녹여낼 수 있는 융합예술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장르의 음악가들이 만들어 낸 음악을 토대로 민화 화가가 작품을 그린 후, 그림과 음악을 연계한 공연,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등 각 예술 장르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협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창작과 문화적 교류를 끌어내는 예술 혁신의 플랫폼

이용객의 경험 가치 향상, 기대감 - 여행의 기대, 문화의 기대

참여예술인 이해웅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미술은 단순한 트릭 이상의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상상력의 확장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클로즈업 미술부터 무대 위의 그랜드 일루전까지 넓은 범위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모토로 "드림빌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단순한 오락거리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믿기에, 미술을 활용하여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미술을 통한 교육적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을 느껴, 흡연예방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미술 공연, 그리고 학교 폭력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알리기 위한 "생명존중 미술공연" 등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깊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과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공항은 일상에서도 특별한 공간이며, 여러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미술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큰 도전이자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며 지루함을 느끼는 여행객들에게 미술을 통한 즐거움과 놀라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미술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기대되었습니다.

대구공항과의 예술협업활동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용객의 경험 가치 향상"입니다. 공항은 여행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미술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공항이라는 국제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이용객들에게 미술이라는 보편적인 예술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공연은 단순한 미술쇼를 넘어, 문화와 인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은 제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대구공항과 같은 큰 규모의 기관과 협업하게 되면서 미술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 미술은 단순한 무대 위의 공연을 넘어서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 협업하는 과정은 저의 창작활동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에서 온 시각과 해석, 그리고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은 미술을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예술 활동의 방향성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더 나은 작품 창출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은 나의 뿌리이자 내가 성장하며 얻은 여러 경험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저에게 큰 보람을 줍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 특색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은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감정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희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의 감성과 방식에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악, 민화, 대중음악, 클래식 같은 장르는 각자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있어, 그것들을 미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은, 국악과 미술을 결합한 공연입니다. 국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맞추어 미술 트릭을 선보이는 것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화와 민화의 협업을 통해 전통적인 민화 그림 속 이야기를 미술로 재현하는 것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클래식 장르와의 협업도 계획 중입니다. 대중음악의 비트에 맞춘 빠른 페이스의 미술 트릭이나, 클래식 음악의 서정적인 부분을 활용한 감성적인 미술 퍼포먼스 등을 통해 관객에게 다양한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

‘에어 아트’이다. 우리 팀의 이름과도 같지만 예술을 통해 공항 내, 여러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다.

참여예술인 이보은

나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합창 작·편곡가이자, 여러 합창단의 반주자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남성 중창단 ‘아르스 노바’, 어린이 합창단 ‘리틀 프렌즈’, 옥산초 동문 합창단의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필그림 미션 콰이어’ 단원으로 노래하며 창작곡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곡동인 ‘예술나무 숲’과 ‘명곡진흥협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새로운 창작곡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합창단에게 작·편곡을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작곡한 합창곡들이 공모에 당선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대구공항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구공항과 매칭되었을 땐 ‘기쁨과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많은 예술인이 대구공항을 지원 했기에 이곳과 매칭된 것이 더욱 큰 행복이었습니다. 대구공항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로, 그곳에서 예술을 통해 다양한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별한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예술로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와 함께 저의 예술 활동을 더욱 폭 넓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협업은 예술가로서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예술적인 성장을 이룰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지역사회를 속해 살아가는 예술인으로서의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립시키고, 다른 예술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기회의 장을 체험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공항과의 협업으로부터는 지역 문화와 예술을 대중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접할 수 있어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창작적 영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술을 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수록, 지역에서 나고 자란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활동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주는 ‘바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예술을 통해 꾸준히 이어달리기를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은 지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예술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역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동시에 예술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과 공감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예술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첫째는, 민화, 마술,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제작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 간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대구공항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함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업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심리적인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요즘인 만큼 감정, 정서, 사회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춰 정서를 담은 힐링 콘텐츠 제작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와 공감 유도하는 공항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여러 곡을 선곡하여 뮤지컬 형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엮어보거나 실제 작곡하여 대구공항만의 이야기가 담긴 뮤지컬 형식의 합창곡을 직접 만들어 공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물

감동을 전달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대구공항과의 예술협업은 창조적 예술과 공항의 융합으로 문화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협력입니다.

참여예술인 김리아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민화 작가로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 하며, 예술 교육 및 아트클래스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재료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며, 이를 전시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새로운 창작 기회와 도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에 흥미로움과 기대를 느꼈습니다. 공항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예술과 일상의 융합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고민했습니다.

대구공항과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대구공항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구공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대구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구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시야를 확장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접하며 작품의 풍요로 움을 높일 수 있으며, 융합적 접근 으로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 지역의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풍부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의미가 큼니다. 지역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를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음악, 국악, 마술 등 다양한 예술 형태의 융합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영감을 얻고,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 하며, 예술의 창의성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 하며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와 소통



Bokhyeon 1-dong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북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진행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

TEL 053-939-3550
LOCAL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9길 13 2층
INSTAGRAM @bh1dong
WEB bokive.com/
FACEBOOK @bh1dong



- 1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 발굴,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주민의식 제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등 주민 주도적 역량 강화 교육 실시한다.
- 2 북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생성 및 발굴,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합원 및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보경 팀장

기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북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

'북현타작(他作) 사진아카데미'와 '북현 그림마당'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감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로 예술적인 활동이 도움이 될 것 같아 2021년 처음 <2021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예술인들과의 협업 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북현1동 피란민촌 전시 기록물 콘텐츠 발굴에 많은 도움을 받아 곧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의 변화를 앞둔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과 공간에 대한 좀 더 많은 기록 전시물을 생성하고 보존하고자 <2022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도 신청하여 예술인들과 협업 활동을 진행하여 다큐영상 외에도 '국악동요'라는 큰 성과물을 생성하여 이에 올해 마지막으로 도전 할 수 있는(3년 연속지원) 기회를 만들어서 철거를 앞둔 피란민촌의 모습을 기록하고 새롭게 변하는 과정을 영상기록물로 생성하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북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북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써,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물리적 재생과 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회적 재생, 그리고 주민 자생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재생의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 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로써 예술적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년째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에 처음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여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예술 활동을 통한 세대 간 소통 매개체 발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년 북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될 거점 공간 '복잡소'의 기억전시관의 기록물 생성 및 저장을 위한 활동으로써 다시 한번 예술인들과의 활동을 통해 장리를 뛰어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 생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북현1동 피란민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이주, 철거, 재창작 등의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란민촌의 변화 과정을 기록해 온 지금까지의 예술로 활동 결과물을 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전시회' 기획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예술로 참여 작가들의 시선으로 북현1동을 기록하고 아카이빙 한 전시물들은 향후 북현1동 거점시설 '복잡소-기억 전시관' 운영에도 이어져 지역주민들과 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세 번째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와 예술 분야의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지역 변화의 모습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현1동 피란민촌의 각자의 삶의 모습들과 애환들이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바랍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연결된 무지개



팀 소개
참여예술인들의 분야가 한 분도 겹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 중 생기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의 방법이 전부 다르지만 누구도 흘러들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활력이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났을 때 설정된 기관은 물론 팀원 전체가 각 분야에서 본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모습이 기대된다.

협업주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발굴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사업지 주변 원룸촌 거주자들과의 세대 간 단절 및 갈등을 예술인들과 주민들의 협업을 통하여 해결하고 변화되는 사업지(피란민촌)의 모습을 영상이나 조형물, 음원 등으로 제작하여 향후 건립 될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억전시관 전시 콘텐츠 생성 및 보존, 더 나아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 모델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협업성과
복현1동 피란민촌이 기억되고 재현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사업을 지속적 과제로 수행하고 있음. 2023년 11월 1-5일 복현동 장미사랑방에서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복현RE:CORD展'을 개최함. 11월 1일 전시 오프닝은 단순 오프닝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개최 축하 세레모니 등을 진행함. 전시는 6개월간의 협업 활동 산물 및 예술인들과 함께 주민 역량 강화의 하나로 펼친 주민 작품 전시임.

박재현(영화) 예술인의 다큐멘터리 '복현72' 상영 후 11월 7일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상영회를 개최함.

장재영(연예) 예술인의 웹드라마 시나리오 '너럭바위' 원고를 **이승희**(미술) 예술인이 제작한 오브제에 전시함.

권영세(문학) 예술인의 '빈집 우편함' 동시 및 시화전을 **이승희**(미술) 예술인이 제작한 오브제에 전시함.

'복현RE:CORD展'현장이 대구MBC 생방송 시사각각 461회(2023년 11월 8일)에 피란민촌 기억저장소 '복카이브'로 방송 송출됨.



대구MBC 생방송 시사각각
461회(2023년 11월 8일)에
피란민촌 기억저장소 '복카이브'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복현 RE:CORD 展

1. RECORD : 명사 - 기록, 동사 - 기록하다
 2. RE : 접두사 - '다시' 재(再) - 의 뜻 + CORD : 명사 - 끈, 노끈, 줄 따위를 이르는 말
- 복현1동의 모습을 기록한 전시를 통해, 복현 1동이 '다시' 살아나는 연결점(點)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전시 프로젝트.
 - 복현1동에 소재한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복현1동 주민들과 참여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전시.
 - 청년세대에게 어릴 적 찾아뵈었던 할머니 집 같은 포근함을 간직한 공간, 기성세대에게 삶을 일구는 터전과도 같은 공간에서 각자가 느낀 저마다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장르 복합 전시 프로젝트



**모색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지만
누구도 흘러들지 않는
공정 시너지**



리더예술인_박준우

센터와 공동 기획 및 예술인과 센터 간의
협업 중 일어날 마찰을 예방합니다.



참여예술인_권영세

복현1동 연장동시 <골목> 문학활동과 창작
및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에 참여합니다.



참여예술인_박재현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관과 예술인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아카이빙
자료를 만들 거나, 복현 1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여예술인_이승희

복현1동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
들은 각기 다른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시각예술 그중에서도 설치와 영상을
매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로 사업
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의 활동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예술인_장재영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에 영상화를 위한 연예
분야의 예술가적 활동으로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One Love

리더예술인 **박준우****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장르 융합 콘서트를 제작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곰스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디퍼커션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직접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곧 개발이 시작되어 흔적이 남지 않을 공간에 예술을 통한 과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었을 때 현재 우리가 협업한 이 순간이 후대에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하고 기대되었습니다.

진행하신 예술 협업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다양한 장르의 참여예술인들이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전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시기획은 문학, 미술, 영화 등 장르가 다양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장재영 작가님을 제외한 다른 예술인들은 이미 북현1동과 함께 했던 분들이라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고, 모든 참여예술인이 타 장르와의 협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고충이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센터장님을 포함한 기관의 직원분들도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해 주셨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타 장르와의 협업은 언제나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느끼는 점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면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모습에, 예술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 도전하게 될 다양한 일들에도 이 기억을 토대로 대화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업 활동을 하며 강화하고 싶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미술, 영상 등의 장르와 콘서트를 협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장르에서 얻는 에너지가 많습니!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Art is all around us. 예술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흔적이
남지 않을 공간에
예술을 통한
과거의 흔적을
남기는 것**

참여 예술인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의 니즈 충족

참여예술인 장재영

나를 소개해 주세요.

현재 드라마 기획 및 집필을 하면서 드라마 작가 데뷔를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기업과의 협업은 북한1동 도시재생 현장을 소재로 한 짧은 창작 드라마 대본을 집필 중인데, 10월 예정된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이주민의 애환과 미래에 관한 꿈을 테마로 한 작품인데, 노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교 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 하는 판타지 요소가 섞인 짧은 3부작 웹 드라마 작품입니다.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잘 매칭됐다고 생각했고, 반가웠습니다. 제 모교 인근에 현장이 있었는데, '북현동'은 제게 친근한 어감을 주는 동네이거든요. 매칭 당시 제일 먼저 제가 '지원합니다'를 써넣었고, 리더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매칭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센터 측과의 협업에 아주 만족합니다.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센터 측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활동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측의 니즈 충족을 위한 활동이니까요. 저는 전시회에 전시할 수 있는 웹 드라마 대본 창작을 선택했는데, 정이 들었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의 애환과 미래에 관한 꿈을 담고 싶었습니다. 예산상 제작할 순 없겠지만, 이주민과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대본 작업은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 주로 단독 작업의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료 예술인 및 기업 측과의 협업을 통한 예술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은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담는 작업이니까, 여러 사람과의 협업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방 자치 시대가 도래한 지 꽤 되지만, 아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예술 인프라나 예술인들의 활동 측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향인 대구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 보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 수도권 못지 않은 큰 성과를 보이며 큰 줄기로 커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강화하거나 시도 해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아무래도 드라마 대본을 쓰는 사람이니까, 지역을 테마로 한 드라마 작품을 집필하고 제작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웹 드라마 제작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 돼야 하므로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국가 지원금을 보조받아 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는 그런 작가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과 참여 예술인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 측의 니즈를 충족 시켜주는 예술 콜라보 작업.

예술 작품은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담는
작업

동행

참여예술인 이승희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시각예술 분야로 주로 설치와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하나의 작업으로 만들어 사람들과의 '틈'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는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술로 시작한 게 2021년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로 참여도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의 지난 활동의 갈무리를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로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기 보다는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관할인 북한 피난민촌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시각예술의 경우 작업하는 대다수의 시간이 개인 활동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의 협업의 지점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이러한 예술로파견지원사업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인들과의 협업의 경험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야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탈중심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로 여기며 계속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의 활동은 스스로 정체되는 지점들이 있어 좀 더 다각도적인 시각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술활동협업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예술로파견지원 사업을 통한 협업 활동은 필수적인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활동이 지난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목표로 하진 않더라도 물질적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활동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협업 활동을 통해 배우는 다음과 이해

사람들과의
'틈'을 만드는
작업

예술 활동의 비타민

참여예술인 권영세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시인으로서 문학 작품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문예지를 통해 창작 문학 작품 발표를 합니다. 또한, 문학 강연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현1동 도시현장지원센터와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북현1동은 제가 청년 시절 살던 마을인 남구 대명동 언덕바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옛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술로 사업을 올해로 3년째 참여하였는데, 3년 모두 북현1동 도시현장지원센터와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매칭되었을 때 이때까지 해오던 활동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현1동 도시현장지원센터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첫째는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현재의 모습을 동시(童詩)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골목 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특징적인 현재의 모습 마음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 창작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기관 및 타 장르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개인적인 문학 창작 활동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또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른 존재 의미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에 공감하여 개인적인 예술 활동의 자극제가 되었어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타 장르 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활동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보다 친숙하고 익숙한 활동 의지를 가지고 지역 예술의 발전에 대해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 예술의 전통성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문학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타 장르 예술인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생산적인 협업 활동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활동 기간 연장으로 지속적인 협업 활동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기관에서 3년간 예술 협업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활동 중 창작한 문학작품(童詩)의 2차적인 결과물(童詩集) 제작 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현1동 피란민촌 연작동시집 『골목 이야기』처럼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의 견인차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은

예술 활동의 자극제

예술적 감수성을 더한 기록하기

참여예술인 박재현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영화를 각본, 연출, 촬영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극영화를 작업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는 다큐멘터리나 아카이빙 작업등 다양한 형태로 작업 영역을 확장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칭된 기관에서는 사라져 가는 북현1동의 피란민촌이라 불리는 지역을 촬영하며 다큐멘터리 형태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기록하여 만드는 작품과 다른 예술인분들의 창작물을 전시하는 기획전 또한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매칭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슈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또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 매칭된 기관에서는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창작물로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점이 잘 맞아떨어져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와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이곳에 거주하셨다가 떠나시는 분들을 기록하는 일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은 저마다 환경도 다르고, 각자의 입장과 사정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든, 부정적인 입장이든 제가 기록하는 결과물 안에서 편파적인 시선으로 담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우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지역 내의 이슈나 알지 못했던 이웃 동네의 모습을, 예술로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술작업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태어나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라 다양하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렸을 적 바라봤던 이 지역의 모습과 달라지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들로 작업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지역의 창작자들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고 있어서, 예술가 개인과 지역이 연결되는 특별한 의미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극영화를 위주로 작업했던 제가, 예술로 사업을 통해 기관과 매칭되면서 기록영화(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현재 대구라는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다큐멘터리에도 더욱 관심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발굴하고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더욱 찾아보고, 더욱 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의 예술인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기업 및 기관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더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이로운 사업

개인과 지역이

연결되는

특별한 의미



The sseulmo Cooperative Society

더슬모 사회적 협동조합

지구를 위한 놀이터

예술로 대구 매칭기업
12

더쓸모 사회적 협동조합

TEL 010-9147-5911
LOCAL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5길 25-1 1층
INSTAGRAM @the_sseulmo
WEB the-sseulmo.com

더쓸모 사회적협동조합은 버려지는 인형 및 플라스틱 장난감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쉽고 재미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은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전시를 통해 환경예술의 가치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버려지고 망가져서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술이 되면서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식의 접근을 통해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과 지구를 위한 놀이를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분야



환경교육
환경교육과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교육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방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인 현대 시대에 다양한 재활용 방법과 대체 가능한 천연 소재를 찾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지구를 살리는 캠페인과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쓸모 사회적 협동조합

양민경 대표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더쓸모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해 오늘의 지구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업입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

평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어느때처럼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기관의 이슈를 예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전시 활동에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면 좋을 것 같아 지원했어요.

더쓸모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기관이며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버려지는 인형 및 플라스틱 장난감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를 통해 지속가능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쉽고 재미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은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전시를 통해 환경예술의 가치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버려지고 망가져서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술이 되면서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식의 접근을 통해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과 지구를 위한 놀이를 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녹여 정크아트의 환경 예술을 저희와 함께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예술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더쓸모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기후 위기 시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생활예술 작가들을 발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있어요.

예술인과의 협업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 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환경예술 분야를 확대할 수 있었고 정크아트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저희 팀은 지난 5월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이 추구하는 환경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하는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협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많은 사람에게 선보이고 싶어 더쓸모는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 중 12일간 범어역 아트웨이 오픈갤러리 큐브에서 협업 전시를 진행했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 예술가들의 설 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정책



팀 소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카운슬링 도우미, 더슬모 사회적협동조합 팀입니다.

저희는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예술인들이 모여 문화예술로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진행된 저희의 협업 활동을 소개합니다!

협업주제

쓰레기 생활 예술이 되다

1. 자원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정크아트 작품 전시 활동.
2. 버려지는 것들을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며 폐자원을 활용한 환경 예술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전시 프로젝트.

협업성과

예술인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된 '버려다'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14-25일 아트웨이 범어아트 큐브(범어역 4번 출구, 지하)에서 개최함.

예술과 업사이클링, '정크아트'로 불리는 작업은 일회용품 사용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단순히 쓰레기라 여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주고자 기획된 전시임.

전시와 더불어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풀어낸 영상을 제작함.



문화·예술로 환경 관련 문제의 긍정적 인식 개선



너와



리더예술인 장재철

활동 전반의 서포터,
문화예술 카운슬링 도우미



참여예술인 최윤경

재활용 플라스틱 작품 제작 및 전시 관련 업무

나



참여예술인 박찬우

영상 촬영 편집

의

쓸모



참여예술인 이승재

영상 촬영 편집



참여예술인 김희진

포스터 리플렛 디자인



예술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카운슬링

리더예술인 장재철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 매매, 전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페이팅, 설치, 조각 등 3D 작품 작업을 많이 해요.

더살모 사회적 협동조합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좋았습니다. 우선 더살모 사회적 협동조합의 방향성이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이라 호기심이 있는 상태였어요. 플라스틱이라는 매체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슈해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요소와 연관된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움으로써 제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관에는 여러 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작가들이 재활용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진행하신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슈는 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홍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미술, 연극,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영상제작과 전시를 통해 기관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배우, 감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의 전문성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화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딱히 고충은 없었습니다. 활동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전문적인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소한 점을 말해보자면, 협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는 사회 활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라든지 서류상 해내야 할 것들을 실행하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로 돕고 배려하고 맞춰가며 진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은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원 예술, 융합예술 등 다양한 전시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분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전시를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술로 사업은 기업의 이슈 해결뿐만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이 업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작가의 최종 목표는 예술을 업으로 삼는 게 아닐지 싶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으니깐요. 그래서 예술로와 같은 사업이 있지 않나 싶어요.(웃음) 이번 예술로 활동을 통해 미술, 연극, 영상이라는 여러 장르가 합쳐진 영상과 전시 형태의 작업물이 도출되었는데, 지금이 시작점이라 생각되고 이를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펼쳐보고 싶어요.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예술 카운슬링 도우미

가장 이상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

참여 예술인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의 니즈 충족

참여예술인 박찬우

나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독립영화 시나리오 창작과 영화 연출을 하는 박찬우입니다. 기업과 예술이 협업하여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흥미롭고 유익해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소 환경에 대한 이슈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천연소재 사용에 대한 더 설모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보가 흥미로웠으며, 여러 예술가분과 이곳에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느꼈습니다.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술에 대한 인식과 기업이 추구 하는 목표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어떤 것을 원하고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의 교류가 필수적이라 생각 했으며, '환경'이라는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할 주제 의식에서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제 예술적 견문과 인식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영상이라는 예술에 미술, 연극, 디자인 등이 교류되면서 표현에 대한 다양성이 확증되고, 이에 따라 좀 더 창의적인 영상 예술 방식이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건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얽매어 스스로를 고립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을 하지만, 지역 예술가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더 많은 창작 기회와 다양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제 나름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모든 예술가는 아마 자신이 하는 예술적 활동이 자신의 '업'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제 수입의 대다수가 독립영화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영상 장르와 다른 장르의 융합이 이뤄진다면, 다른 예술이 들어간 '아트 영상' 혹은 '아트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양한 예술 장르 화합의 장.

제 예술적 전문과 인식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기업과 예술의 매개체

참여예술인 이승재

나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예술인 연극 분야의 이승재입니다. 저는 연극 분야에서 배우뿐만 아니라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서 기획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활동했습니다.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환경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재활용을 하여 미술적으로 다양하게 활동 하는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매칭되었을 때 본인도 좀 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 기업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면 서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과 본인의 예술 협업 활동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활동에 대해 소통이 없이 본인것만 하게 된다면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지만 많은 소통과 피드백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여 만족스러운 예술협업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엄청 많지요. 먼저 타 장르의 예술인을 새롭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예술인과 추후 또 다른 작품을 기억할 수 있으며 상호 네트워킹하여 그 장르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더 좋은 작품이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예술 활동을 통해 활동하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기여하며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있나요?

제가 활동을 하는 연극 장르가 타 장르와 협업을 하여 또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연극의 협업을 통한 장르, 클래식 음악과 연극의 장르 등 기존 하나의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시도하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로운 네트워킹과 기업과 새로운 인연



다양한 장르를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 작품

예술인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시도

참여예술인 최윤경

나를 소개해 주세요!

시각예술작업을 하는 최윤경 작가입니다. 점점 과열되는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과 상품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고 더 나아가 그 경계에 있는 성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쓰임이 있는 예술작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는 조각의 부류 속 무동력의 움직임이 있는 모빌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과 상품의 경계를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로 활동을 통해 기업이 제시하는 사회적 문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팀원들과 쓰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시각 예술작가로서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나갔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팀 구성원은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 시각 디자이너, 시각 작가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팀원들의 작업실에 방문해 보면서 다른 분야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듣고 봤어요. 다른 장르를 가까이서 공유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고 활동을 더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웃음) 질문을 곱씹어 보니 예술 활동을 통해 대구라는 지역을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인 '대구'라는 단어를 생각하기만 해도 지역을 흥미롭게 나타낼 수 있는 모티브들이 줄지어 생각나요! 지역에서 작업 활동을 하는 의미에 대해 더욱 깊게 고민해 보고 작업으로도 시도해 보려 합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업과 예술은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타 장르와 융합한 일을 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발휘될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장르와 융합한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장르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감독님 덕분에 대구단편영화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 영화의 포스터들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포스터 뿐만 아니라 영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시도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나갔다

새로운 소재의 발견

참여예술인 김희진

나를 소개해 주세요!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영역을 넓혀 미디어아트 영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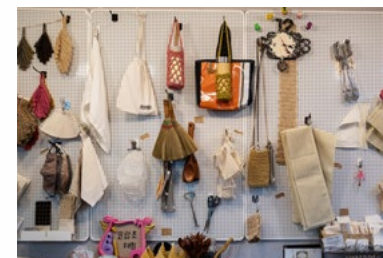
기업의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기업에 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더설모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관에서 진행하는 정크아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크아트를 하면서 물감이나 다른 재료를 활용하여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완벽히 다시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없기에 진정한 업사이클링과 미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업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협업 활동을 하든 이 부분을 생각 하며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다른 장르에 대해 예술로 활동을 통해 시간을 투자하여 알아가면서 다양한 소재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평소 작업하던 주제가 아닌 새로운 주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영역에서도 UPI이 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본래 대구 출신 작가는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 정착한 이곳은 제2의 고향이자, 새로운시작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 지역에서 오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싶고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은 저에게 도전입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의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고 예술의 가치를 재화로 평가하기에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저는 제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고 일하고 있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또 다른 예술가들을 발견하는 '창'



'빛'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



Dalseong Art Gallery

달성미술관(달미)

소외된 농촌 자락,
우리 동네 예술공간

예술로 대구 매칭사업
13

달성미술관 (달미)

TEL 053-614-4665
LOCAL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신당길 73
INSTAGRAM @dalmigallery
WEB bliss.w-114.com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에 있는 달성미술관은 미술과 자연의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전시관과 작업실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며 도자기,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달성미술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어린이, 가족 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자기 체험, 미술체험이 있으며 도자기, 미술 관련 자격증반이 개설되어 있다. 지역주민들, 특히 노년층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추진하여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독려하는 개인설립 미술관이자 지역 메세나 문화공간인 달성미술관을 소개한다.

사업분야



전시 사업



예술 교육 전문 클래스 운영



예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사회공헌사업



달성미술관 신재한 관장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소외된 농촌미술과 특히 노년층 미술프로그램 참여에 중점 하여 세대 간의 사회통합 교육, 노인의 인지 능력 및 행동 맞춤형 미술 지도가 필요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과 교육의 일자리 수업을 통한 창 취업을 연계하고 농촌 노인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현재 상황과 동향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이해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여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웰빙과 웰다잉(well-dieing)은 상통함. 전문예술 인들이 세대의 가교역할을 하여 미술, 문화예술로 세대 간의 시대적 차이를 풀어내어 노인들의 경륜의 삶을 미술 또는 그 외 문화예술로 창출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관으로서 기대하며 함께 예술협업, 협력할 것입니다.

달성미술관을 소개해주세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또 관장님께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옥포 예술인들의 회장을 맡고 있어 지역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개인적으로 달성미술관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한 달의 한 번 모여 도자기도 만들고 붓글씨도 쓰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포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옥포 내에서 활동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양로원이나 재가병원 등에 방문하여 가진 재능을 기부하며 다양한 형태로 문화 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을까요?

달성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며 앞으로 달성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다 보니 달성군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청에서 직원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고, 사업 취지가 좋아 신청하였습니다.

달성미술관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미술관 내에는 달성도자기공예협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옥포예술인협회와 자체적으로 미술치료사와 노인미술 심리치료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거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을 공동체 모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 노인들을 위한 생활문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여 기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모두 개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달성미술관을 거점으로 하여 마음을 합심해 더 나은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에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혹은 기관 활동에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이제 7월, 활동 두 달에 접어들며 커다란 변화라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만, 리더, 참여예술인과 대면 회의를 하면서 지역을 소재하여 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을 함께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달성미술관에서 해왔던 문화예술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예술로 대구 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달성미술관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일회성이라도 진정성 있게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예술협업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급문화로 인식되고 있지만,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장벽을 낮추어 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외없는 예술을 지향하는 달성미술관(달미)에 꼭 필요한 예술로 대구



팀 소개

달미 어벤저스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겹치는 장르가 없어서 각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함께 달성미술관을 위해 기획한다면 의미 있는 예술기획이 될 것입니다. 마시멜로 탑 쌓기 1등,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지요.

협업주제

옥포읍에 위치한 달성미술관은 은퇴한 관장님의 본가를 미술 활동 체험장으로 개축하여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설 갤러리이다. 옥포읍엔 노인들이 수박 농사를 짓고 있으며 노인정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달성미술관은 도시와 시골, 농업과 공업,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미술관을 거점으로 교류하며 미술과 다양한 영역의 예술프로그램으로 체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문화로 교류하며 서로를 인식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하며 특히 고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술인 팀은 현장을 방문 후 여러 차례 현장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우리가 할 수 있고 앞으로 달성미술관이 자립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옥포읍 노인 체험 문화 활동
2. 도농 상생 구역에서의 문화 전초기지
3. 자생적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뿌리 내리기
4. 코로나 이후 활동이 저조해진 미술관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우리(팀)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6개월 뒤의 원하는 모습)
우리 팀이 진행하고 홍보하는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달성문화재단이나 2024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같은 타 지원사업에 이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달성미술관이 옥포읍의 자생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 개발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구체적인 활용방안 작성
-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과 공연을 활용하여 거점을 홍보
-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내년 재단 지원사업 신청-지역의 문화거점으로 기관이 자리매김

달성미술관「달달한 예술에 취하다」
지역 특성에 따라 노년 세대가 많은 달성군 옥포면에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고령화 시대 소외된 세대와 지역민의 삶에 기여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예술협업 활동을 추진했다. 노년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높이고자 파견된 전문예술인들이 시각예술, 국악,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공연 시연을 진행하였고 교육과정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호박과 딸기, 수박 등 작물을 수확하며 느끼는 기쁨을 표현한 글, 그림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작품들이 완성되었다. 글, 그림, 사진, 아카이브 인터뷰 등이 작품이 되었고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 기관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와 협업하여 11월 한 달간 <그랜마 오픈스튜디오> 전시를 개최하여 예술협업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예술협업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 결과물도 함께 전시하여 활동에서 도출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달성미술관이 옥포읍에서 자생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속적인 활동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관의 이슈를 풀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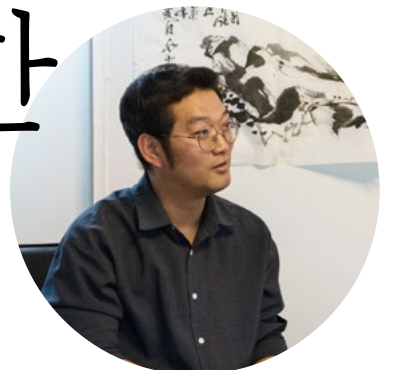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지요

달달한



리더예술인 정세웅
전체 총괄



참여예술인 김현규
연극 놀이, 연극 치유의 교육,
커리큘럼 개발, 공연연출, 기획



참여예술인 남종호
홍보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스케치 영상들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미술관의 모습을 담아
많은 사람이 영상을 통하여 미술관의 존재를
알게 도와줌.



참여예술인 송유식
세이커와 칼림바 만들기 체험교육



참여예술인 황세희
노인들과의 민요교육 체험

취하다



예술협업 활동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잇는 브래킷(격식)이다

리더예술인 정세용

달성미술관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달성미술관이 있는 곳은 욕포을 입니다.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까지 관장님이 자생적으로 달성미술관을 유지해오셨어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자생력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예술협업을 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자생력을 다시 복원시키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우리 참여예술인 중 사회 참여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함께 협업하는 달성미술관에 매칭되신 예술가들은 장르가 같은 예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르는 비록 다르지만, 그분들의 활동 내용도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 계속 예술 사이트에서 있게 될 것이니 먼저는 예술인들과 교류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욕포을, 지역민들과 소통을 증진하여 사회 참여 활동으로서 한 층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이 사업을 처음 참여하면서 리더예술인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관장님도 이 사업에 기관으로 처음 참여하시고 예술가들도 참여하고 매칭되며 서로 마음을 맞춰나가는 단계에 있기에 고충이라면 앞으로 잘 짚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제가 찾는 것이 고충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들과 만남, 대화, 회의를 통해 소통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를 것이 분명하기에 리더라고 해서 리더의 생각을 투영하고 협의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 과정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조금 느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월까지 활동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과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관장님과의 사업이해에 대한 절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관장님께서도 그 소통을 필요로 하시고 과정이 무르익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어서 그러한 점은 좋은 측면입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이미 2009년 방천시장 예술 프로젝트를 하며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고, 수성구에 동성 시장예술 프로젝트, 서구에 이현 공원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수성구 수성빛 예술제에서 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소통과 타 장르 예술인들과 다독거림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직업으로 한 사회인으로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해 말하자면?

19세기에 각기병이 있었어요, 비타민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하얀 쌀밥을 그렇게 먹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지 않았는데, 쌀이 하얗게 정제되는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이 소실됩니다. 이 때문에 쌀밥을 배불리 먹는데도 각기병이 생기는 거죠, 쌀을 전부 정제하지 않고 섭취하면 비타민B1이 자동으로 생성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술가들과 주민의 삶이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풍족하게 활동하고 있고 주민들도 풍족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제된 플랫폼들 안에서 일어나는 괴리 현상이 분명 존재합니다. 주민과 사회와 문화와 예술인들이 이어질 수 있는 윤희율, 비타민B1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지, 예술을 예술이게 두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쭙보며, 선생님의 장르와 다른 장르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은 직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생활미술, 생활예술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꼭 분리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다 녹아 있으면서 직업도 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창의적 컨버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허드렛일이나 사무 보조적인 일은 이미 AI가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역할이 훨씬 커지므로 예술가들이 사회적 참여로 스며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술가들이 사회적 참여로 스며들어야 할 것

힐링

참여예술인 **김현규****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은 공공재로 분류되기 보다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경제체계 속에서 가치가 형성되고 가격이 책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사회의 전 구성원이 즐겨야 할 문화예술이 일반 시민들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활동으로 인식되거나 변질되어 문화적인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관계와 활동 속에서 탄생합니다. 누구나 관계 맺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나 그 인식과 기회의 장은 부족합니다. 교류와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 활동할 때 개인의 행복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며 활동하고 관계 맺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예술협업 활동이 진행 과정에 있는데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달성미술관이 근교에 있어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그마한 미술관은 거대한 프로젝트보다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밀도 있는 프로젝트가 어울렸습니다. 이에 리더 참여 예술인과 기관(달성미술관)은 타 장르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실행단계를 그리며 유쾌하고 흥미로운 기획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타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매칭된 달성미술관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달성미술관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활동 이력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타 장르의 예술가와 깊이 교제하고 이해하고 만나게 되는 기회가 소중했습니다. 앞으로의 연극 활동에 있어 타 장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연극 공연에 활용(협업)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성이 짙은 서사극 형태의 판소리 공연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술인을 지역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꽃 튀는 화학 반응

**문화예술은
관계와 활동 속에서
탄생합니다**

놀이터-예술에 예술을 더하여 놀다.

참여예술인 **남종호****나를 소개해주세요.**

문화예술이라는 테크 안에서 일하고 지내고 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혼자서만 점점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다양한 예술인들을 함께 만나면서 우물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다양한 예술로 다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낮선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법을 새로 익히고 체득하여 추후에도 다른 낯선 환경에 들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면서 공통의 목표로 함합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다양한 예술인분들을 새롭게 알아 가게 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확실 예술의 배경이 다르기에 시작의 출발점이 달랐고 해결방안 또한 달라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매칭된 달성미술관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도 지금의 협업을 이루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그러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잘 나아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 활동이 생길 것이고 서로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에서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 개인적으로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슬픔을 덜어주기도하며 다양한 감정을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예술이 '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인 거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먹고살 수도 있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여 먹고살기 위한 예술이 되어 버리면 처음 예술을 시작한 그 의미를 잃어 갈 수도 있으니 그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융합 하여 예술이 된다면 하나의 예술이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 누군가 우리의 무대를 보고 또 다른 무대를 생각 하면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되고 꿈이 되어주는 예술이 되고 싶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활동의 비타민

참여예술인 황세희

나를 소개해 주세요.

소리꾼 황세희입니다.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판소리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국악공연단체 '예소울'과 교육단체 창익교육연구소 '예소울'의 대표이자 개인 연주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반으로 활동하던 것들을 두고 거주지를 이동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래 갈 예술 활동을 도모하며 대구지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로 사업 활동에서 나와 내 주변을 이해하며 조직·기업·기관·사회에서의 예술 언어의 표현 방법을 배우고, 협업팀으로 다른 분야 예술가들, 분야를 넘어 세대, 나아가 이 시대와도 소통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팀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 모두가 예술로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달성미술관이 지역과 상생하며 더 확장된 범위의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해 나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옥포읍에 위치한 달성미술관은 은퇴한 미술 교사 관장님의 본가를 미술 활동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설 갤러리입니다. 관장님의 노인미술을 통한 개인 사회 환원 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운영도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홍보가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달성미술관의 장점은 도화지 같은 곳이어서 예술가들이 이곳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멋진 크로키의 밑그림 작품이 나올지 색채가 풍부한 색칠을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2023년 기반으로 활동하던 것들을 두고 거주지를 대구로 이동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도모하며 대구지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 활동에서 나와 내 주변을 이해하며 조직 기관 사회에서의 예술 언어의 표현 방법을 배우고, 협업팀으로 다른 분야 예술가들, 분야를 넘어 세대 나아가, 이 시대와도 소통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매칭된 달성미술관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옥포지역 시민들이 달성미술관을 거점으로 문화로 교류하며 서로를 인식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하며 특히 고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술인 팀은 현장을 방문 후 여러 차례 현장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달성미술관이 자립할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옥포읍 어르신 문화 체험 활동
2. 도농 상생 구역에서의 문화 전초기지
3. 자생적 문화 활동하기 위한 뿌리 내리기
4. 코로나 이후 활동이 저조해진 미술관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많은 사람이 찾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예술의 길은 길고도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이 더 멀리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다른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고 나의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방식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결국 혼자 작업할 때는 몰랐던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더 사랑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예술 활동 지속에 정말 중요하고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전통적인 역할의 소리꾼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아이디어로 사용하고 있는 '판소리 크리에이터'의 역할로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과 제한적인 상황들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기며 판소리와 예술로 소통하며 대구지역에서의 사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잘 수행해서 올해 이사 온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성장을 목표로 활동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 사업에는 삶에서 예술 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여러 예술가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극도 얻고 아이디어도 얻고 있습니다. 예술을 업으로 하려고 경쟁하는 시대에서 음악 전공했는데 예술 활동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예술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분야로 나아가서 예술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융합해서 하는 소중한 협업의 기회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가 각자의 색을
내면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든다!



새로운 예술에 대한 도전

참여예술인 송유식

나를 소개해주세요.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재미있는 삶을 살자'라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영상, 연기, 음악 등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음악 분야에서 대중음악 공연, 교육, 작곡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 타 장르와 함께할 수 있는 융복합 예술을 하길 원합니다.

예술협업 활동 진행 과정 속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또, 지금 시점에 예술협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관과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과정은 처음에는 기관에서 예술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낮아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통해 기관도 예술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예술인과 풀어갈 수 있는 이슈를 구체화 해주셨습니다. 미술관 관장님과 옥포 주변의 답사를 통해 환경과 인프라를 확인하였으며,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저희 팀에서는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된 기관의 장점은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술협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협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나요?

각 분야의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저의 예술적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저의 모습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각 장르에 대한 교류를 통해 현재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방향성이 이전보다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칭된 달성미술관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통입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협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목표가 정해질 것이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협업 활동의 결과물이 단순히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이어질지 수 있도록, 마케팅을 잘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 활동하면서 어느 순간 감림길에 막혀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자 생각하면서 연극 활동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연극, 뮤지컬을 했던 경험은 제가 음악 활동을 하는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생각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은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저의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고,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것이 예술적 활동 반경을 넓히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술 활동하면서도 문화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의 다양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 로컬 음악 시장은 자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클럽 공연, 많은 기획 공연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공연과 행사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지역 예술 시장을 활성화해 더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소비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개 이상의 장르와 융합하여 예술이 '업'으로 이어야 한다면 어떤 분야와 협업하여 펼쳐보고 싶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작품 및 활동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어서 예술인으로서 인정받는 전문적인 예술 직업업으로서의 '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융합예술을 통해 펼쳐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예술적 가능성과 창작의 폭을 더 넓히고 싶습니다. 장르에 대한 스타일을 이해하며, 어떤 누군가가 바라볼 때, 음악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자



Daegu Citizen's Forum for Halmuni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희움)

인권, 평화,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희움)

TEL 053-257-1431
LOCAL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0
INSTAGRAM @heeum_official
WEB www.1945815.or.kr

1997년 출범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 지원활동 및 문제해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희움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하여인권과 평화,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활동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복지지원



홍보, 교육, 기록



역사관 건립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Daegu Citizen Forum for Halmuni

(사)희움

한지은 사무처장

기업가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 하는 '실천하는 역사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지워져 가는 상황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어떤 기관이며 어떤 부분에서 예술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본 기관은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부설기관인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부분에 협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생존 지원, 활동 지원, 전시, 교육 등)을 하는 공간입니다.

예술인과의 협업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시민모임에서 몇 년에 걸쳐 중대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할머니 '일대기 편찬 사업'을 통해 <역사의 증언 시리즈>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러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금 알릴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챌린지 작업을 통해 희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예술협업을 통해 강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어진 협업이 있나요?

역사의 증언 시리즈는 총 5분의 할머니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일대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팀 소개

저희는 회움의 '나비'입니다.

할머니를 꽃에 비유하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희는 다섯 마리의 나비입니다.

협업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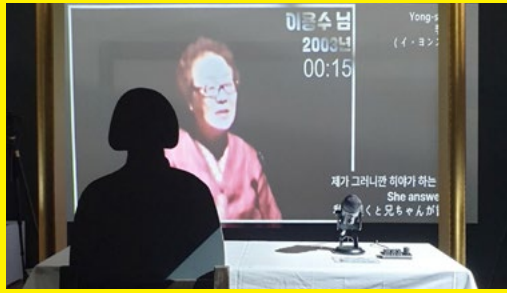
과거에 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습니다.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회움'이라는 단체를 알리고 결과물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정립하고, '피해자',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최종 성과물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영상 속에는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협업성과

회움 챌린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기관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인 '흔들리며 피는 꽃'의 대본 지필, 연기, 노래,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통해 완성함.

예술로 활동 종료 후에도 회움 역사관과 추가로 함께 했던 전시 오픈 <중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展>을 개최함. 본 전시는 그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고 증언을 함께 이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기획 전시임. 대구와 서울 두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각각 2023년 11월 21일~12월 30일 대구 회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2023년 12월 4일~12월 16일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됨.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12월 2일(목) 14시 회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2층 전시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과 매칭과견되었던 김민선 참여예술인이 함께 진행하는 꽃매듭 키텍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기관과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감



회움위안부'역사관 전시 연계 체험 매듭공예



전시<중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
30초 영상



전시<중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
2분 30초 영상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마리의 나비



리더예술인 이상규

대본제작, 프로젝트 구상 및 회의 진행,
기관과 의견 조율



참여예술인 김민선

대본 만들기, 챌리저 5인 이상 섭외 및
영상 SNS올리기, 미디어 전시 영상 제작 시
배우로 참여, 전시연계체험(매듭공예)
교육자로 참여



참여예술인 설성원

대본 제작, 영상 제작, 공연 시 영상
오퍼레이터



참여예술인 이상명

대본 제작 및 정리, 콘텐츠 기획,
공연 시 오퍼레이터



참여예술인 정민경

SNS카드뉴스 제작, 대본 제작 참고자료
수집 및 배경 Backdrop 드로잉, 미디어
전시 영상 제작 시 배우로 참여



예술을 통한 이슈 해결

리더예술인 이상규

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성악가로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통해 예술을 즐거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공연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예술로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희움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희움이 하는 일이 단순한 예술 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풀어내기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의 일부분이다 보니 어떻게 해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접근하는 것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나 평범하게 접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공부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할 것이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기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진행하신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일생과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극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극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끼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내기에 용이했으며, 연기를 하는 데에 있어 그 당시의 감정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과 고통을 가감 없이 느끼고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낭독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리더 예술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기관과 예술인들이 하나의 이슈와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 접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들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초와 고통을 어느 정도 가감 없이 표현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내고 좀 더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사건 등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 자체를 좀 더 예술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의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들이 겪은 아픈 과거는 오브제나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예술 분야 외의 분야를 접하게 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을 만들어 대구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협업 활동을 하며 강화하고 싶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이 활동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생겼으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인 성악(노래)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전하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 내면서 중간중간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들을 불러 관객들이 노랫말과 멜로디를 통해 좀 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국악기를 활용한 반주, 그리고 그 위에 성악가의 목소리를 얹어내어 같은 곡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들의 직무능력을 넓히고 생각의 틀을 깨는 프로젝트

예술로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참여예술인 김민선****나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저는 배우, 극작, 연출, 제작, 연기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은 21년도부터 3년째 참여하고 있어요. 예술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고 함께 작업하며 개인의 예술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 좋았거든요. 올해는 희움이라는 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낭독극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움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관심을 가졌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졌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과 피해자분들이 연로 하셔서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예술 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염려와 기대를 갖고, 기관과 만남을 가졌으며 방대한 자료를 공부하고 증언집을 읽었어요. 그리고 생전의 그분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과거 매듭을 제대로 잘 풀어 많은 시민에게 공감과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였습니다.

희움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잘 돼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제로 기관과 예술협업을 통해 영상작업물 또는 공연으로 '희움'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술작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공연 작업에 다양한 예술인들과 협업이 훨씬 용이해졌어요. 나와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하며, 실제로 함께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정보와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시켜 함께 기획 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다양성의 부재, 그리고 이탈하는 동료를 보며 힘들어하다가도 나아지려는 환경을 보며 묵묵히 달려 나가봅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강화하거나 시도**해보고싶은 협업활동이 있나요?**

다양한 기관과의 작업을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기획과 홍보 등 여러 직무에서 협업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상품 또는 공연물을 대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가능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상품의 경우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만들어지면 어떨지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로운 도전



과거의 매듭을
제대로 잘 풀어
많은 시민에게
공감과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는 방법

'같이'의 가치**참여예술인 이상명****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대구에서 연극을 하고 있으며 주로 연출과 극작을 맡고 있습니다. 연출로서 기본적으로 소통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저의 세계를 펼치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극 예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희움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전부터 근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희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희움이 예술로 참여하였고 매칭되었을 때 첫 예술로 활동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 열심히 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움과 예술협업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하는 협업활동은 '희움과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어요.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저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 된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와 혹은 비슷한 분야더라도 각자의 세계가 있듯이 그들과 함께 세계를 공유함으로써 저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예술로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예술가의 생계적인 안정도 있지만 예술가로서 저의 능력을 지역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학교부터 심지어 군생활까지도 대구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재능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는 제 작품의 원천이 되는 곳이기도 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에요. (웃음)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협업 활동을 통해 탄생한 낭독극을 디벨롭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우선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으니까요! 우리 일은!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같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짜릿한 것



‘희움과
할머니들을 위한 것’
이라는 점

공부의 과정**참여예술인 정민경****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으며, 홍쇼콰이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연 기획, 안무가, 예술 감사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희움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희움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슈가 명확한 기관인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도 국제적인 문제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색안경이라는 것을 느꼈고 생각의 전환이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희움과의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실과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 현실 고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이분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력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극을 진행하는 예술가로서 창작해 나갈 때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장르들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타장르의 창작의 고충과 노고를 이해할 수 있어서 외부의 콜라보 공연 활동을 할 때보다 반성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역예술인으로 활동으로 하는 것은 보다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예술인들 열정이 넘치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다양한 전시, 실험적인 공연에 대해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평범한 예술인으로 머물러있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시각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제 능력을 강화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루는 일은 예술인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장르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예술로 협업 활동을 하며 많은 창작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고 이를 예술 활동에 활용하여 좀 더 강화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색감, 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편집 기술이나, CAD를 배워 다양하게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인 종합 선물 세트



**‘나’만의
방식이 아닌
타장르의 폭넓은
이해를 도와준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참여예술인 설성원****예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단편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단편영화 배급 및 상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웹툰을 단편영화로 제작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규모 단편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며 단편영화의 재미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움과 매칭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년에 함께 했던 기관이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할 생각에 설렘이었습니다. 처음 예술로 활동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한 기억만 있었기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한편 희움에서 다루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예술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희움과 예술협업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희움의 이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이다 보니 주제 자체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술은 창작의 영역인데,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뒀다하다보니 혹 왜곡 등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관과 예술인들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관과의 매칭 협업 및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력이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점이 있을까요?

올해 매칭된 예술인 선생님들 중에 연극인 분들이 많으셨는데, 덕분에 많은 연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극과 영화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흥미로웠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협업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영감을 얻고, 개인 예술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소설가로서 활동했었고 하고, 대구에서는 영화 연출로, 또 경상북도 의성에서는 영화제작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 예술의 중앙 집중화와 시골의 문화 소외현상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도 훌륭한 예술인이 많이 있고, 온라인 매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격차가 점점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만이 가지는 특색과 저렴한 제작 비용 등을 잘 살리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협업 활동이 있나요?

연극인 선생님들과 논의 중에 나온 것인데, 지역의 배우분들이 1인 연기를 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훌륭한 배우를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연기 내용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올해 예술로 활동이 종료되어도 희움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위안부 문제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 희움이 다루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처럼, 과정이 어렵고 힘들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서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해답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서로 네트워킹하고 협업을 하다보면 빛이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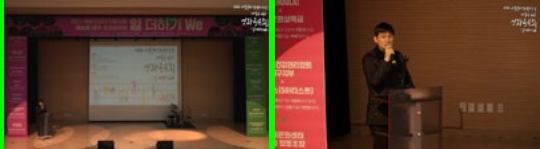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책임감**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성과공유회 ‘일 더하기 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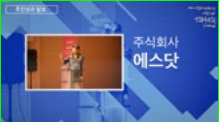







성과공유회 운영
영상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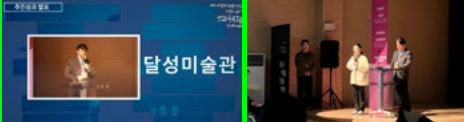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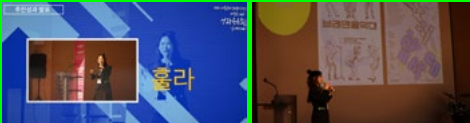
- | 일시 |** 2023. 11. 11. (토) 13:30 ~ 18:00
- | 장소 |**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2층), 다목적홀(지하1층) 외 전시실(1층) 및 로비
- | 참석 |** 14개팀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 62명, 익년도 및 차년도 참여 예정 기업·기관담당자 20명 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명, 진흥원 5명 / 90명
- | 목적 |** 팀별 최종 추진 성과 발표, 참여소감 발표 및 기업기관, 예술인 전체 네트워킹
- | 진행방식 |** 14개소 팀별 리더예술인 추진 경과 발표 및 기업기관, 참여예술인 소감 공유 및 네트워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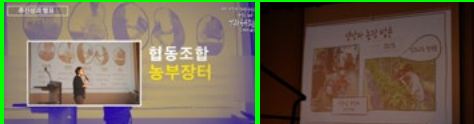
시간	진행내용
13:00 ~ 13:30	<p>참여자 등록 및 안내자료 배포 등</p> 
13:30 ~ 13:45	<p>개회 및 사업추진경과 보고, 성과공유회 진행 및 발표순서 안내</p> 
13:35 ~ 13:40	<p>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박순태 본부장 인사말씀</p>  <p>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해주신 지역의 기업기관 담당자님들과 기업기관의 이슈에 부합하여 무한한 능력을 발현한 예술인들 덕분에 지역 사회 전반에 예술인들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고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예술인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술의 힘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활동 증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년도에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13:40 ~ 13:45	<p>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이숙현 팀장 인사말</p>  <p>저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예술인분들한테 예술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이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관계를 넓히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사례들을 제가 곁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로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의 성장을 조력하고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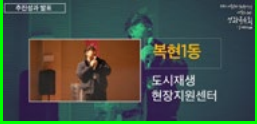





시간	진행내용
13:45 ~ 14:00	<p>1.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리더. 이상규) (발표+영상(10분여)+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전시(11. 21 ~ 12. 30.)</p>  <p> 협업과 성과 예술로 활동은 끝났지만, 올해 협업 기관인 희움 역사관과 추가로 함께 했던 전시 오픈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展 / 그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고 증언을 함께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기획 전시</p> <p> 5월·6월 참여 예술인들간의 소통의 장 마련 /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프로젝트 기획 / 단기&장기로 구성된 두 가지 프로젝트 준비</p> <p> 7월·8월 '희움 챌린지'를 통한 기관홍보 / '고고무'프로젝트 기획 및 프리 프로덕션 기획</p> <p> 9월·10월 '고고무'프로젝트 네이밍 : 흔들리며 피는 꽃 / '흔들리며 피는 꽃'이야기 구성 및 대본작업, 연출 방향 및 컨셉, 영상 작업 및 편집</p> <p> 11월 [대구 전시 안내] 23. 11. 21.(화) ~ 12. 30.(토)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화요일~토요일 10:00 ~ 18:00 휴관일: 일, 월요일 / 공휴일 [서울 전시 안내] 23. 12. 04.(월) ~ 12. 16.(토) 서울 시민청 갤러리 09:00 ~ 20:00 (4일 13시 개관) 휴관일: 일요일 * '인트로', '그날의 용기', '증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파트의 영상 및 어플 제작, 설치로 참여</p>
14:00 ~ 14:15	<p>2. 마을문화센터숨씨협동조합(하빈PMZ평화예술센터)(리더. 정하니) (발표+전시+오디오메이킹영상 발표+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p>  <p> 협업과 성과 <예술로 평화> 전시 및 기관 메이킹 영상 제작</p> <p> 5월(두근두근 첫 만남) 예술로 팀원 구성 및 기관 매칭 / 기관에 방문, 이슈와 니즈 파악 및 공간탐색, 네트워킹</p> <p> 6, 7월(톡톡 아이디어) 하빈6. 25평화축제 참석 및 체험, 영상메이킹필름 촬영·제작, 낯설게 바라보기 및 이슈 탐구, 예술실현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p> <p> 8, 9월(예술로 임무 수행) <예술로 평화>전시 기획 및 일정 확정, 전사작 설명을 위한 오디오 해설 녹음, 리플렛, 현수막, QR코드 제작 후 23. 9. 21. <예술로 평화>전시 오픈</p> <p> 10월(수고하셨습니다) 9~10월 전시 실행 및 철거</p> <p> 11월 성과 공유회 준비 및 하빈 가을 음악회 메이킹 영상 필름 제작</p>
14:15 ~ 14:30	<p>3.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리더. 허재윤) (발표+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p>  <p> 협업과 성과 매달 이륙=26(이륙데이 문화가 멋다)로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술이 주는 소통과 즐거움, 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기업과 예술인의 만남</p> <p> 5월 마술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연 당일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하여 8월 11일 진행</p> <p> 6월 전통 도토리 팽이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p> <p> 7월 Route 49 버스킹 공연</p> <p> 8월 클래식 공연(아코디언, 성악(Tenor))</p> <p> 9월 대구공항 신청사 개관기념<걸어온 시간展- 김리아 작가></p> <p> 10월 클래식 및 대중음악 융합공연 연주</p>

시간	진행내용
14:30 ~ 14:45	4. 주식회사 에스닷(리더. 조창희) (발표+ 영상+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협업과 성과 기업 브랜딩 및 브랜딩 영상 제작 5월 만남과 상호 이해, 이슈와 예술 매칭 6월 내용&생각 : 장르적 접근 7,9월 창작&제작 : 콘텐츠 제작 10월 연결과 지속
14:45 ~ 15:00	5.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리더. 김승민) (발표+ 공연+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협업과 성과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재즈&국악 콜라보 공연 및 전시, 메이킹 영상 제작 5, 6월 아이스 브레이킹 및 기업 지점 방문하여 예술적 영감 획득 / 예술로 사례 분석 및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 7, 8월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팔공산점 배뉴 확정, 프로젝트 작업 시작(7월부터 진행) / 바리스타 사진 촬영, 매일 드로잉, 음악 작업 등 <모두의 작업실> 가제 글의 주제 설정 및 직원들 인터뷰와 스토리텔링 구성 / 총 5지점을 하루씩 일정하여 사진 촬영 9, 10월 세상 모든 카페에서 예술협업을 통해 만든 음악이 스피커로 흘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불랜딩 되는 행복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앨범 기획 및 발매, 커피 한 모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과 같이 여러 장르로 취향껏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함.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1곡씩, 13주 동안 26곡 발매 예정. 23. 10. 19. ~ 11. 19.,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팔공산점 <드로잉전-김재홍> 박시연 트리오와 최은해 예술인의 국악 콜라보 공연
15:00 ~ 15:15	6.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리더. 이희주) (발표+팀원 및 기관 담당자 전원 참여소감) 대구생활문화센터 전시실 전시(11. 4. ~ 11. 26.)   협업과 성과 기관의 목적과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유의미한 사회 활동 참여, 예술로 대구 사업에 참여한 기관인 달성미술관과 예술인들과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킹으로 전시와 음악회, 미술체험 등 진행 5월 팀원들과 친해지기, 기관과 의견 조율 및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개인의 분야를 분석, 이해하고 결과물 설정 및 방향 제시 6~8월 기관과 사회공헌행사 일정 조율, 스케줄링 / (7월 초)음악회 리허설(타 장르 예술인 간의 협업) / (7월 중순) 복지시설 등 차상위 계층에 방문하여 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9, 10월 파견된 기관 직원들을 위한 음악회 개최 및 남은 예술 강좌 운영 /참여 기관인 달성미술관과 결과 산물들이 비슷하여 예술인들과 협업, 노년층 대상 11. 4. ~ 26. <그랜마 오픈 스튜디오> 전시 및 국악·클래식 공연, 체험 운영
15:15 ~ 15:30	7. 더 쓸모 사회적협동조합(리더. 장재철) (발표+전시(영상)+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협업과 성과 기관의 10월 전시 개최 및 환경관련 캠페인 영상 제작 5월 기관과 아이스브레이킹, 협업 활동계획서에 대한 논의와 토론 6~8월 리사이클 제품 제작 관련 인터뷰 영상 촬영 및 전시 작품 준비 9~11월 10월 전시 준비 및 촬영 영상 편집 / 23. 11. 14 ~ 25. <정크아트 환경예술전시회:버리다> 전시 개최

시간	진행내용
15:30 ~ 15:45	8. 대명공연예술센터(리더. 권수은) (발표+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협업과 성과 7월<대명예술골라주>, 10월 대명공연예술센터 2층 전시장 상설전시(23. 10. 23 ~ 상설) 전시 오픈 및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2회 개최 5,6월 협업 기관 이슈 파악(대명과 예술이 관련한 아카이빙, 상시 체험이 가능한 형태의 전시물로 2층 전시공간 활용하고자 함. 지역예술인들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7,8월 23. 7. 1. 대명예술골라주 참여(권수은(리더) 공연 총 연출 및 진행), 권효정(공연 미술감독), 감지인, 정혜진, 이보람(연주자) / 기관과 예술가들의 교집합 찾기, 전시 관련 레퍼런스 서치 후 스토밍 9,10월 전시를 위한 작업 모델링과 설치물 제작, 23. 10. 23.<아이엠그라운드 대명 소개하기(feat. 대명이의 진심)> 전시 / 지역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대명살롱> 10. 23.(월), 10. 30.(월) 21:00 ~ 23:00 총 2회 개최
15:45 ~ 16:00	9. 남구청(이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리더. 김보미) (발표+ 영상+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협업과 성과 기관은 개관 2년 차인 배나무샘골 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으로 니즈에 부합하여 예술교육프로그램 강좌 5회 진행, 마을 역사와 개관 첫 전시로 강좌를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 전시 개최 5,6월 이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관할 구인 남구청 담당자와 회의 / 이천동 도시재생 현황 탐색을 위한 현장 답사(99계단, 서봉사 일대를 중심으로 개관하여 첫 전시를 개최할 마을 역사관 방문) / 기관의 이슈인 마을 역사관 개관을 중심으로 한 활용방안 제안서 작성 / 예술교육프로그램 강의계획서 작성 7,8월 7월 강의 계획서 공유 및 강좌 일정 선정 / 8월 강좌 운영(김보미(리더), 임지혜, 권소현, 김보라 강좌 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과 진행과정 남가형 예술인이 아카이빙 9,10월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을 전시형태로 가공, 23. 10. 6. 마을역사관 개관, 마을 축제 형태로 주민과 함께 참여
16:00 ~ 16:15	10. 에이치아츠 (리더. 이숙현) (발표+영상+공연+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협업과 성과 기업의 홍보콘텐츠 개발 및 기업과 MOU체결된 주빌리 디자이너 이영미 작가와 함께 프로젝트 공연 개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구축 5,6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 기획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관람, 기업 탐색 / 기업의 니즈 파악 후 협업주제 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7,8월 팀 프로필 사진촬영 및 에이치아츠 홍보사진 영상 촬영 등 기록물 제작 / 기업 홍보물 SNS,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홍보, 남구 인근 소재한 기업, 기관 대상 함께 교류하며 예술인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 9,10월 기업에서 주관하는 프라이빗 콘서트'only for you,'참여예술인 신유경 독창회 / 23. 10. 13. 에이치아츠 공연장에서 주빌리디자이너 이영미 작가와 콜라보 프로젝트 <판타스틱콜라보> 진행

시간	진행내용
	11. 달성미술관(리더. 정세용) (발표+영상(전시)+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대구생활문화센터 전시실 전시(11. 4. ~ 11. 26.)  <p> 협업과 성과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기관의 이슈는 옥포읍 노년층의 문화활동과 사회참여, 문화향유이며 16:15 ~ 16:30 16:30 도농상생구역에서 문화 전초기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 <달달한 예술에 취하다> 2회 운영,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산물과 비슷한 이슈로 협업을 진행한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콜라보하여 <그랜마 오픈 스튜디오> 전시 개최 및 연계 공연, 미술체험,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5,6월 예술인과 기관 상호 간의 교류 및 기관의 정체성 탐색, 기관 니즈 파악 /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레퍼런스로 기관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선정 7,8월 전체 기획안에 대해 참여예술가 의견 조율, 협업 활동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일정과 장소 확인 9~11월 <달달한 예술에 취하다> 9. 5. 미술교육(정세용), 국악(황세희) / 10.12 연극(김현규), 음악(송유식) 총 2회 운영, 2회 운영하여 산출된 작품들과 예술로 사업 기관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11. 4.~ 26. 대구생활문화센터 전시실 <그랜마 오픈 스튜디오> 전시 개최 / 11. 15.<For 그랜마> 황세희(국악), 서찬영(첼로), 신동인(미술)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의 무료 건강체험터 운영</p>
	12. 홀라(HOOLA)(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리더. 김효선) (발표+ 시각전시(애니메이션), 사진 회화 3~4점)+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전시(23. 10. 31. ~ 24. 1. 26.)  <p> 협업과 성과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를 위탁 운영하는 홀라는 지역x기술x예술생태에 대한 탐구와 재해석, 모루라는 공간에 대한 재미있는 발견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휴라 수 있는 흥미로운 놀이의 장을 구성하고 즐기며 배우고 익히는 것을 구현함. 북성로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 발견 프로젝트인 북성로 낮과 밤을 주제로 23. 10. 17/ 10. 19./10. 22/10. 26 총 4회에 걸쳐/ 예술로x북성로 워크숍 개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기획전시 <북성로 환상특급 출몰하는 도시의 유령>을 23. 10. 31. ~ 24. 1. 26.까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에서 개최. 16:30 ~ 16:45 16:45 5,6월 팀원들 간의 분야와 작품 활동 공유 및 기업 상호 탐색, 기업이 중구청 관할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협업 활동일과 추진계획 협의, '북성로'탐사 및 자원 조사, 자원 재맥락화 분팀 프로젝트 구성하기 (1) 북성로 기술자산과 기술생태계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워크숍 (2) 북성로 기술예술융합 다원 예술 전시 (3) 도시에서 발생 된 사회적 이슈 도출과 예술무브먼트(As Aritvist) 프로젝트 7,8월 1. 진행할 프로젝트들 기획안 작성 및 수정 보완 (1) 시민참여형 워크숍 : <북성로를 만나는 방법 '북성로의 낮과 밤, 두 얼굴을 만나다'> (2) 다원 예술 전시 : 북성로 기술예술융합 전시 <Re;Awake> (가제목) (3) 확장 프로젝트 Artist(Art+Activist) : 브레멘 음악대, 도시 예술아카이브 프로젝트 등(예정) 2. 시민참여형 워크숍 4개(총 8회) 북성로를 만나는 방법 '북성로의 낮과 밤, 두 얼굴을 만나다' <북성로는 늑지 않을 것이다> 2회, <플레이 북성로 오브제> 2회, <북성로 작명소> 2회, <움직이는 북성로> 2회 3. 시민참여형 워크숍 실행1(4회 진행 예정) 4. 북성로 기술예술 융복합 협업전시 구상 및 기획 9,10월 1. 시민참여형 워크숍 실행2(4회 진행 예정) (1) 진행워크숍 : 북성로 작명소(이준식X김효선X김상덕), 플레이 북성로 오브제(박세기X김효선X박지훈X이준식) (2) 기간 : 9월, 총 4회 (3) 장소 : 북성로 일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p>

시간	진행내용
	2. 북성로 기술예술 융복합 협업전시 기획 수정 보완, 준비 (1) 전체 기획안 작성 완료, 개별 진행 계획안 및 준비과정 공유 (2)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측 준비 및 지원 파트 공유 (3) 전시 설치, 전시 홍보 및 오프닝 홍보 16:30 ~ 16:45 16:45 3. 협업 전시 오픈, 라이브 전시 및 오프닝 진행 북성로 기술예술융합 전시 <북성로 환상특급 출몰하는 도시의 유령> 23. 10. 31. ~ 24. 1. 26.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2층 전시실 4. 도시와 관련된 이슈(이주권, 생명권, 동물권 등)를 다루는 확장된 예술프로젝트 실행 예정 (1) 도시 이주민 관련 이슈와 도시 생태 감수성을 담고 있는 예술프로젝트(Ex, 브레멘음악대) (2) 도시 아카이브 바탕으로 예술기록 프로젝트(Ex, 커뮤니티실험도시 등) 5. 진행한 프로젝트 피드백(전문가 비평 등) 및 내부 간담회 (1) 기관, 참여예술가, 리더예술가 예술로 전체 피드백 등 (2) 예술비평가 등 전문인 피드백
	13. 협동조합 농부장터(리더. 장하운) (발표+영상+팀원 및 기관 담당자 참여소감)  <p> 협업과 성과 조합원들로 구성된 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며 생산자에게는 생산의 삶을 영위롭게,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표, 기업의 니즈는 3가지로 1. 이용객 증대를 위한 매장 디스플레이 개선과 외부 인테리어 변경 2. 생산자 스토리를 담아 친근한 생산자를 알리는 것, QR코드 등을 생산품에 배치할 계획 3. 운영하고 있는 2층 카페테리아의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 공통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비용이 발생되는 점으로 기업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창작물을 예산 없이 추후 저작권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소유하고자 함 16:45 ~ 17:00 17:00 1. 예술인들은 협업활동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합 1) 농부 생산자들의 인터뷰를 담아내어 생산자 스토리를 텔링함. 기관에서 조합원 생산자의 리스트를 받아 9곳의 예상으로 인터뷰 가능한 여부를 판단. 2) 형식은 목소리와 사진으로 촬영하고, 영상은 짧은 밈으로 하여 포인트 동작과 목소리를 담아냄, 목소리, 사진, 영상을 넣고, 폴리(효과음), BGM을 넣어 하나의 영상으로 도출함(*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며, 채널의 저작권은 참여예술가들이 공동으로 가지며 생산자들의 영상과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하여 저장, 소유에 대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 3) 생산자들이 다른 곳에서 작품을 판매 할 때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함 4) 기관에는 매장 내부에 스피커를 통해 CM과 같이 목소리와 폴리를 넣은 파일을 드리고,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결과 산출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에 비용문제와 지속가능함이 해결되는 접점이 되는 듯함. 추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활동이 종료되어도 예술인들이 마음이 연결된다면 다른 농업생산자의 이야길 담고, 채널에 이어 나갈 계획 5,6월 기업 니즈파악 및 각 예술인들의 장점 관철, 역제안서를 기재하여 기업에 예술인의 장점과 현재까지 활동들을 알림, 기업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예산 협의, 활동주제선정 7,8월 김인철(문학), 윤진(영화) 생산자 인터뷰 시작, 총 4차 인터뷰 및 영상편집, 유튜브 업로드 / 신준민(미술), 장하운(미술) 두더지 캐릭터 개발(모션그래픽), 3편의 영상에 박지수(음악) BGM작곡, 모션그래픽 두더지에 폴리 적용 9,10월 영상으로 제작한 인터뷰를 가독성 있게 정리하여 기업 블로그에 연재 / 윤진(영화)의 모큐멘터리 구상 및 제작, 성과공유회에서 공유</p>

시간	진행내용
	<p>14. 북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리더. 박준우) (발표+영상+팀원 및 기관 담당자참여소감)</p> <div>   </div> <p> 협업과 성과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19 ~ 2023의 사업기간을 두고 기간에 맞물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한 3년차 기관으로 재정보조95억원(국비47.5/시비 33.2/구비 14.3)공기업 및 민간투자 약600억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피란민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슈를 가진 기관임. 피란민촌이 기억되고 재현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사업을 지속적 과제로 수행하고 있음. 주민+청년 상생협력 융·복합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개관을 준비중인'복잡소(福Jop-소(所))'는 지역 주민과 청년을 위한 상생협력공간, 피란민촌 스토리 기반한 디지털융복합 콘텐츠 전시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돕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구성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과 기록들로 공간을 구현하고 추후 활동이 종료되어도 예술인들과 지속적 작업과 활동을 하고자 함. 23. 11. 1 ~ 5. 북현동 장미사랑방에서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북현RE:CORD' 전시 개최, 11. 1. 전시 오프닝은 단순 오프닝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개최 축하 세레모니 등 진행. 전시는 6개월간의 협업활동 산물과 예술안들과 함께 주민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펼친 주민 작품 전시, 박재현(영화) 다큐멘터리 '북현72' 상영 후 11. 7.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상영회 개최, 장재영(연예) 웹드라마 시나리오 '너려바워'원고를 이승희(미술) 제작한 오브제에 전시, 권영세(문학) '빈집 우편함' 동시 및 사회전을 이승희(미술) 제작한 오브제에 전시, 대구 MBC 생방송 시사각각 461회(2023. 11. 8.) 피란민촌 기억저장소 '북카이브'로 방송 송출</p> <p> 5,6월 소통과 대화, 설정된 기관의 현황 파악,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예술로 대구'를 신청한 목적과 의의 및 센터 내 고충과 현재 진행상태 파악, 예술인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모색</p> <p> 7,8월 예술협업활동 세부적 계획 등 예술인과 기관 협의를 통한 수립, 주민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예술인 참여, 주민들과 가족을 위한 한정 행사(전시회 등) 기획, (공사 시작 시) 변화되고 있는 북현1동의 모습을 기록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참여 방법 모색</p> <p> 9~11월 23. 11. 1 ~ 5.북현동 장미사랑방에서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북현RE:CORD' 전시 개최, 11. 7.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2층)에서 북현1동 현재 거주 주민과 이주주민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북현72'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전시 개최</p>
17:00 ~ 17:15	
17:15 ~ 17:20	1부 종료 및 다목적홀 이동
17:20 ~ 18:00	<p>기업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상호 네트워킹</p> <div>     </div>
18:00	성과공유회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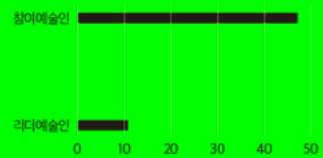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일 더하기 We'참여 기업·기관 및 예술인 만족도 조사

(기업·기관(마을) 총 14개소 중 8개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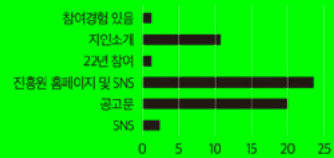
<p>1. 사업 참여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p> <p>지인소개 0.5, 1, 1.5, 2, 2.5, 3, 3.5 연락처만 주심 0.5, 1, 1.5, 2, 2.5, 3, 3.5 친한친한 홈페이지 및 SNS 0.5, 1, 1.5, 2, 2.5, 3, 3.5 광고문 0.5, 1, 1.5, 2, 2.5, 3, 3.5 22년 참여 기관 0.5, 1, 1.5, 2, 2.5, 3, 3.5</p>	<p>2. 2023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대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4, 4.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p>	<p>3.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이 기업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4, 4.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p>
<p>4. 향후 예술로 대구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4, 4.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지 않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p>	<p>5. 본 사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4, 4.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지 않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p>	<p>6. 파견된 예술인과 성과에 만족하십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4, 4.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 그렇다 0.5, 1, 1.5, 2, 2.5, 3, 3.5, 4, 4.5</p>
<p>7. 참여기업/기관의 니즈가 협업활동 결과물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그렇다 0.5, 1, 1.5, 2, 2.5, 3, 3.5</p>	<p>8. 파견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보통이다 0.5, 1, 1.5, 2, 2.5, 3, 3.5 매우 그렇다 0.5, 1, 1.5, 2, 2.5, 3, 3.5 그렇다 0.5, 1, 1.5, 2, 2.5, 3, 3.5</p>	<p>9. 예술로 대구 성과발표회 형태는 마음에 드셨습니까?</p> <p>예 0, 1, 2, 3, 4, 5, 6, 7, 8 아니요 0, 1, 2, 3, 4, 5, 6, 7, 8</p>
<p>10. 성과공유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p> <p>행사 중간휴식시간이 없이 진행되어 발표 중에 자리 이탈이 생겨 발표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습니다.</p>		
<p>11. 기업/기관과 예술인 매칭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세요.</p> <p>·아예 무작위로 매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 각자가 원하는 곳이 있으나 매칭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매칭을 무작위로 돌렸을 경우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 <p>·리더 예술인을 랜덤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보고 뽑을수 있으면 좋겠다.</p>		
<p>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로이 작성해주세요.</p> <p>(참여소감, 사업의 장점 및 단점, 단점 개선방안, 진흥원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 등)</p> <p>·좀 더 전문성있는 예술가들이 참여 하면 좋겠다.</p>		

(리더예술인 14명 중 11명, 참여예술인 56명 중 47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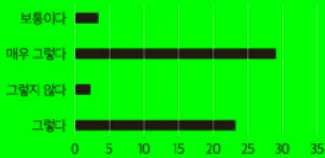
1. 본인은 리더예술인이십니까?
참여예술인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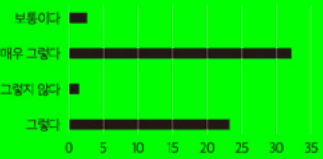
2. 사업 참여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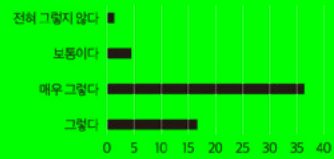
3. 2023예술이나견지원사업
예술로 대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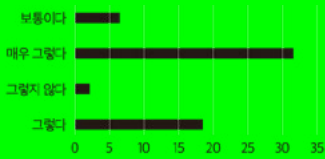
4. 예술로 대구가 경제 및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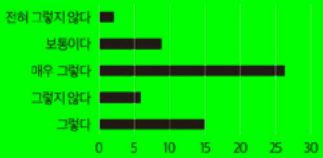
5. 향후 예술로 대구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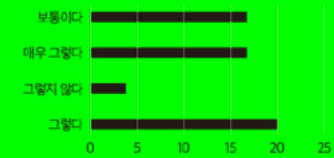
6. 예술로 대구 참여 경험이 향후
본인의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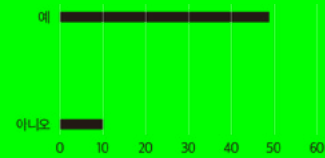
7. 파견된 기업/기관에
만족하십니까?



8. 파견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예술로 대구 성과발표회
형태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10. 성과공유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트워킹 파티가 주되고 짧은 활동 아카이빙 영상은 상시플레이 (탐벌 10여분 이상의 나열식 발표는 너무 김)
- 너무 지루하고 딱딱했다.
- 현 진행사항에 만족함
- 매칭이 되지 못한 기관과 예술가들과 예술로 외에 추후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활문화센터 전관사용 혹은 범어아트스트리트 전관 사용
- 이대로 만족합니다.
- 기간 내 발표
- 지금 방식 좋습니다.
- 올해처럼!!
- 기존의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파티처럼 예술인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면 좋을 것 같다!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면서~~
- 함축적이면서도 축제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 사업 기간 내
- 유튜브 라이브
- 쉬는 시간 없이 힘들었습니다. 노트북은 발표자나 팀원이 넘기기. 장소는 홀 아닌 팀원별 테이블로 앉기. 중간에 가는 팀 많아 끝난 후 간식 아니라 팀 테이블에 배치 요망. 예술인들에게 무료공연 시키지 말아주세요. 본부에서 공연 장르 아예 안 넣었으면 합니다. 예술인의 권리 존중 부탁드립니다.
- 일이 있어서 참여는 하고 싶은데 못 갈 수 있으니 줌으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대로도 충분합니다.
- 사업 기간 내에 성과공유회를 포함하면 좀 더 많은 참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현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발표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예술인들간의 네트워킹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간담회 형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책으로 아카이빙
- 사업 기간 내에 협업 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처럼 하는거 좋아요.
- 간결히
- 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 형식
- 기존 형태
- 성과공유회 예술로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6개월동안 진행한 예술로를 예술로 참여 인원 외시민들도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기업기관과 예술로 참여한 예술가들도 보람있고 뿌듯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처럼 다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내용을 공연이나 결과물 영상 발표회 형태가 좋음. 또는 실질적은 행사 및 본 공연도 좋다고 생각함.
- 단순히 각 팀 별 활동 성과 소개에 그치지 말고 각 기관 과 리더 및 참여예술인들의 축제되었으면~
- 자유로운 토크쇼 형식이 좋음.
- 이번처럼 회의식 보다는 팀별로 앉아 라운드 송년 파티같은 느낌이었으면
- 현재와 동일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 출석, 세 시간 이내로 진행"
- 성과물을 보여주는 방식보다 예술인들끼리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방식도 괜찮습니다.

- 각 팀의 발표회 장소, 시간 공유, 혹은 온라인
- 올해도 좋았으나, 시간이 길어서, 중간 중간 쉬면서 테이블 다과를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사업 기간 중 마지막 달에 협업 일로 지정해서 진행
- 성과공유회도 월말에 진행하여 협업 시간으로 산정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다른 팀이 진행하는 발표회나 공연에 참여했을 때 협업시간을 어느정도 반영했더라면 다른 팀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뤄지는 형태면 좋을 것 같다.
- 현 상태 유지
- 짧은 성과공유를 하고 예술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이번 진행방식이 좋습니다.
- 공연 뿐만이 아닌 전시 관련도 성과공유회 때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각기 다른 장르에 니즈가 다른 기관에 파견되었으니 지금의 형태를 취하는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좀 길다는... ㅠ

11. 예술로 사업을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된 교육이 있으셨다면 작성해주세요.

- (PPT 및 액셀 활용, 제안서 등 문서작성, 스피치 등) (추천 감사 작성 가능)
- 사교술 등 대인관계 고취 교육도 유익할 듯.
- 예술로사업 N년차 선배들의 생생한 참여후기, 이 사업을 통해 긍정적으로 자신의 예술활동 반경을 확장한 사례 발표
- 올해처럼.
- 제안서 등 문서작성.
- 위 예시교육도 좋습니다
- 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강사를 매치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제안서 계획서 작성 요령
- 다양한 예술인 지원제도
- 예술 장르 간,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방법
- 제안서 작성

12. 기업/기관과 예술인 매칭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세요.

- 사전 비대면 1차 매칭후 2차 본매칭 방식도 좋을듯.
- 가장 먼저는 기관의 니즈와 예술인의 희망기관 및 활동분야(공연/전시 등) 등을 받아서 서로가 가장 원하는 쪽으로 분류한 후에 매칭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현재 좋은 거 같습니다
- 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지만 예술가의 의견이 좀 더 많이 수용 되면 좋을 것 같다.
-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고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적혀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칭되든 뭐든 좋아요.
·기업은 예술적인 경향 및 인지도
·실명과 경력을 오픈하여 예술인 매칭
·예술인 매칭 당시 줌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기업이 미리 생각해서 선정한 예술가를 뽑기위해 참석한 인원이 뽑히지 못하는 걸 보고 공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칭 기준을 확실히 하거나 또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기업의 니즈 및 활동에 맞는 분야의 예술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1차 사전 매칭후 본 매칭 방식도 좋을 듯.
·온라인매칭이 진행된다면 닉네임말고 이름으로 누누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기관과 리더예술가랑 조율이 다 되신 분들은 1차매칭에서 끝내고, 처음 참여하거나 면접이 필요하면 그런 분들만 따로 발표를 하는식으로...시간과 에너지를 줄였으면 합니다"
·추천으로
·실시간 화상진행방식 보다는 1,2,3지망을 취합하여 선호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좀 더 사전 토의를 통해 적합한 예술 장르와 기관 니즈를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뽕뽕이 말고)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기업과 매칭이 되어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 본인의 희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곳에 매칭된 예술인들은 참여 만족도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예술인과의 협업을 위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려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어느 정도 지원 의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주시고, 사전에 기업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자세히 명시하여 예술인과 기업이 각자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니즈를 확실히 보여주고 예술인들의 활동 장르와 하고자 하는 협업방향을 서로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맞추면 좋을 것 같다.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요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하고 기업과 매칭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3.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로이 작성해주세요.

(참여소감, 사업의 장점 및 단점, 단점 개선방안, 진흥원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 등)
·기관과 참여예술인 매칭을 위한 중요단계에서 리더예술인의 사전 활동에 대한 인정 사례비 지급이 필요함.
·진흥원 담당자님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은 팀원들과의 만남만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 해가 활기찼고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업과는 다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업 및 기관 교육과 검증을 예술인만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사업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참여한 게 기업인지 예술인인지 묻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 메일, 문자> 간결하고 명시성 있는 문체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색상, 볼드체 지양. 줄 바꿈을 이용해 가독성 있는 문장으로 전달 바랍니다."
·다수가 모이고 대부분 프리랜서들이라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유화나 역량강화 같은 전원 참석해야하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보다 다양한 클래스를 열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선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인원 보강
·협업을 위한 창작지원금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기관에서 예술인들의 활동과 예술인들과 기업/기관 서로간의 존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식의 표현보다,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예술로 활동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제발...예술로 통합시스템 서버보안 언제 되는지...
·"너무 좋습니다!! 기관 지역 참여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길을 찾은 듯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지지해주심 진흥원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와 박수 100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진흥원 담당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 담당자분이 적극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더 든든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초반에 기관과의 관계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진흥원 담당자분들이 적극 예술인의 편에서 지지해주셔서 기관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술인들이 어떤 형태의 결과이든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나가고 마음껏 예술의 세계를 표출할 수있게 많은 지지가 있었던 것 같다. 사업의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대구문화예술 진흥원 예술로 사업 담당자님들이 전국 최고입니다.
·예술로 사업이 처음이신 분이 리더예술인인 경우 이에 대한 역할 및 안내가 사전에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예술인이 참여 할 수 있으면 좋겠음
·성과공유회는 사업 기간 내 진행 꼭 부탁드립니다. 예술인의 계약과 존중이 더욱 필요한 예술인 지원센터인데.사업 기간 종료 후는 아예 날짜 협의안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기관에서는 원하는 건 무조건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계셨고 비용도 저회 선에서 처리해야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불편했습니다.
·리더예술인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과 지역기관의 연계의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협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비 부분과 아티스트의 작품활동, 아티스트피 등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지않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등 서류 작성이 많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쉬울만큼 소중하고 행복한 사업이었습니다! 담당자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리더가 주도하지 않고 예술인들의 협업이 주가 되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
·진심으로 진흥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이 감사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술로를 통해 많은 다양한 장르와의 소통하고 예술 생활이 풍족해졌습니다.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담당자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당 ㅎㅎ
·담당자 인력 확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로 사업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또는 사전 예술로 사업에 관련하여 기관기업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와 참여예술인이 매칭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술로 참여 시 행정상 명확히 할수는 없지만 예술로 참여함에 있어 공간제약이 크게 없는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부분 등)
·진흥원 담당자분들이 각 팀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돌아보고 함께 팀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예술로를 함께 한다면 진흥원 담당자분들이 바쁘시더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 생겼으면 좋겠네요.
·좋은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 너무 바쁜 예술가는 팀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배제가 필요한것으로 사료된다.
·3년간 참여예술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영역 확장과 함께한 타 장르 예술인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음.
·전반적으로 유익하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 완화가 좋을 듯.
·기관에서 운영장소, 회의운영비(다과, 식대) 아티스트피 등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원활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니... 재단에서 안내 및 등 중간역할을 바랍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프로그램도 수용했음 좋겠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담당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홀라 화이팅
·잘 참여했고, 기간이 짧은거 같기도 적당하거 같기도 했습니다. 리더예술인들이 기관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로를 처음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활동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어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지원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임은영 담당자님!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 예술인들의 편에서서 진심으로 기꺼이 도와주시려는,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해요!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즐겁게 보낸 예술로사업이었습니다. 기관,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 매우 만족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 설문조사도 제가 끝들인가요?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일 더하기 We’ 보도자료 스크랩

[2023. 12. 14.까지 보도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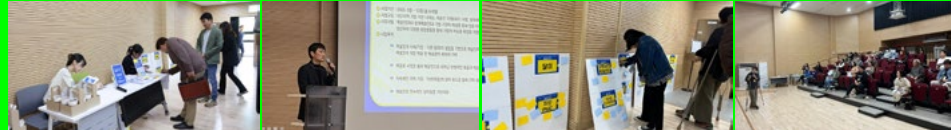
제 목	일 자	매 체	기 자
1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3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지역사업4년연속선...	2023.02.03.	일요신문	최창현
2 대구문화예술진흥원 4년연속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지역사업운영기...	2023.02.03.	뉴스프리존	박종률
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2023.02.03.	쿠키뉴스	최태욱
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4년연속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운영기관선정	2023.02.04.	불교공뉴스	이경
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지역사업운영기관4년연속...	2023.02.04.	영남일보	최미애
6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지역사업4년연속선정	2023.02.04.	메트로신문	김상복
7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운영선정	2023.02.05.	대구MBC	이상원
8 대구문화예술진흥원 4년연속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운영기관선정	2023.02.05.	경북신문	김범수
9 대구문화예술진흥원 4년연속2023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운영기관선...	2023.02.05.	신아일보	김진욱
1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선정	2023.02.05.	경상매일신문	김영식
11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지역사업4년연속선정	2023.02.06.	매일신문	배주현
12 대구문예진흥원 예술인기업 기관파견사업...참여자모집	2023.02.15.	연합뉴스	류성우
13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지원센터'2023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대구...	2023.02.15.	매일신문	배주현
14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대구'참여기업 기관(마을)및...	2023.02.16.	서울경제TV	김정희
15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대구'참여하세요"	2023.02.16.	경북매일신문	이곤영
1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참여예술인 기업모집	2023.02.16.	대구신문	황인옥
17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대구'참여예술인기업 기관...	2023.02.19.	경북신문	김범수
18 '2023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대구'참여기업 기관(마을)및 리더예술...	2023.02.20.	영남일보	임훈
19 대구북구북한1동,예술인파견지원사업3년연속선정	2023.04.02.	경북신문	김범수
20 예술인파견지원사업성과공유회및예술협업활동성과연계행사개최	2023.10.20.	불교공뉴스	연하심
21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지원팀예술협업활동성과공유회개최	2023.10.20.	공직신문	김병철
22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군위닷컴	
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서프라이즈뉴스	김주연
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금요저널	
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충부뉴스통신	손창섭
26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AA뉴스	
27 예술인파견지원사업성과공유회및예술협업활동성과연계행사개최	2023.10.20.	불교공뉴스	연하심
28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시사토픽뉴스	최준규
29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뉴스채인지	오정숙
30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전국지방자치뉴스	임택
31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문화매일신문	윤근수
32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e검정일보	김경호
33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이통장연합뉴스	김태백
34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한국뉴스채널	김인옥
35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신한뉴스	고태우
36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대민포커스N	정희철
37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미디어이슈	황정욱
38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정밀	김준영
39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한국제일신문	김성욱
40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41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뉴코리아저널	
42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	2023.10.20.	케이에스파뉴스	김정훈
43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뉴스헤어	이정수
44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미디어타임즈	김무욱
45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경인투데이뉴스	박경태
46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경북도민방송	손중모
47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시사일보	박종채
48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더시그널뉴스	김정우
49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NWS방송	한승욱
50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로컬경기	
51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경기인터넷신문	이은미
52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행사 개최	2023.10.20.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53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프레스뉴스	
54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5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자치행정신문	이민수
56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예술협업활동 성과 연계 행사 개최	2023.10.20.	다경뉴스	백두산
57 대구문화예술 성과공유회 '일 더하기 We' 개최	2023.10.21.	타타임스	마태식
58 대구북구북한사회적협동조합 마을아카이빙지원사회개최	2023.10.31.	경북신문	김범수
59 대구북구,오래된옛집...주민의삶과마을이야기들담아	2023.10.31.	아주경제	이인수
60 대구북구북한동,지역예술인들과마을아카이빙사업'복원RE·CORD展'...	2023.10.31.	경북매일	안병욱
61 생방송 시사각각 TV프로그램(dgmbc.com) [방송 /생방송 시사각각 461회 [23:00~피란민촌 기억저장소 '복카이브']	2023.11.08.	대구MBC	PD 김현주, 채지희
62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한국상인뉴스	조용식
63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보도뉴스	김정화
64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시사일보	박종채
65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뉴스헤어	이정수
66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이통장연합뉴스	김태백

제 목	일 자	매 체	기 자
67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e검정일보	김경호
68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69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경북도민방송	손중모
70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문화매일신문	윤근수
71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시사토픽뉴스	최준규
72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한국제일신문	김성욱
73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뉴스채인지	오정숙
74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NWS방송	한승욱
75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경기인터넷신문	이은미
76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경인투데이뉴스	박경태
77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미디어타임즈	김무욱
78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대민포커스N	정희철
79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신한뉴스	고태우
80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로컬경기	
81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정밀	김준영
82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더시그널뉴스	김정우
8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세계타임즈	한윤석
84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프레스뉴스	
85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자치행정신문	이민수
86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87 대구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일 더하기 We'성과공유회 성료	2023.11.15.	다경뉴스	백두산
88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더하기We'성과공유회성료	2023.11.15.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89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더하기We'성과공유회성료	2023.11.15.	대구광역신문	안나리
9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더하기We'성과공유회성료	2023.11.16.	대구신문	황인옥
91 대구시예술인파견지원사업'일더하기We'성과공유회성료	2023.11.27.	시사뉴스코리아	조원희
9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대구' 사업 참여자 성과 전국 우수사례	2023.12.13.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9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대구' 사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	2023.12.13.	경북신문	전수정
94 대구 북한1동 도시재생,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최우수'	2023.12.13.	대구일보	권종민
95 대구 북한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최우수	2023.12.13.	경북매일	안병욱
96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대구' 사업 참여자 성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023.12.13.	불교공뉴스	연하심
97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최우수 사례 선정	2023.12.13.	대구경북일보	도순환
98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대구' 사업 참여자 성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수상	2023.12.13.	시사일보	박종채
99 북구 북한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예술로 사업' 최우수 사례 선정	2023.12.13.	KN뉴스통신	장용수
100 대구진흥원 예술인지원사업 '창관상'	2023.12.17.	대구일보	황인옥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일 더하기 We’ 에피소드 사진집

기업·기관(마을) 및 리더예술인(14명) 매칭데이

2023. 4. 19.(수) 13:30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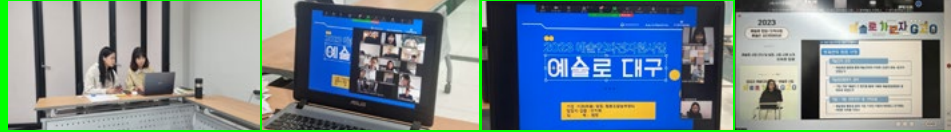
기업·기관(마을) 및 리더예술인 사전워크숍

2023. 4. 26.(수) 14:00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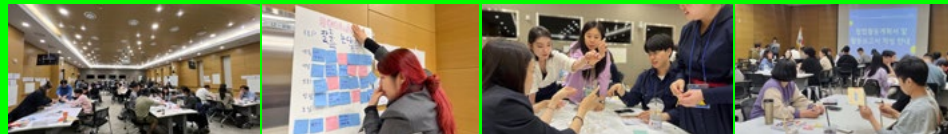
기업·기관(마을) 및 참여예술인(56명) 매칭데이

2023. 5. 2.(화) 10:00 온라인플랫폼(Zoom)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약정체결

2023. 5. 3.(수) 13:3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예술인역량강화 및 참여약정체결

2023. 5. 3.(수) 13:3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리더예술인 간담회

2023. 7. 13.(목) 16:30 아트웨이범어 창창교육실



중간공유회 (23.8.22~9.10.촬영)

2023. 9. 15.(금) 10:00~12:30/ 15:00~17:30 2회 송출(온라인 Zoom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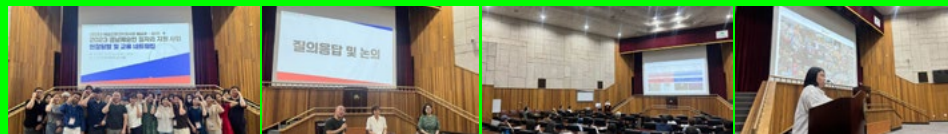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중간 간담회

2023. 7. 19.(수) 14:00~17:00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 1호점(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1-1 5층)



경남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 현장탐방 및 교류 네트워킹

2023. 8. 23.(수) 13:00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마을문화센터수습협동조합 | 현장모니터링 3회

| 일정 | 2023. 6. 24.(토) / 9. 22.(금) / 10. 21.(토) | 장소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 현장모니터링 5회

| 일정 | 2023. 6. 26.(월) / 8. 11.(금) / 9. 26.(화) / 9. 27.(수) / 10. 26.(목) | 장소 | 대구공항



대명공연예술센터 | 현장모니터링 3회

| 일정 | 2023. 7. 1.(토) / 10. 23.(월) / 10. 30.(월) | 장소 | 대명공연예술센터



달성미술관(달미) | 현장모니터링 4회

| 일정 | 2023. 6. 12.(월) / 7. 5.(수) / 10. 12.(목) / 11. 4.(토) / 11. 15(수)

| 장소 | 달성미술관, 신당리 노인회관, 옥포 어린이집, 대구생활문화센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 현장모니터링 6회

| 일정 | 2023. 7. 11.(화) / 7. 18.(수) / 9. 18.(월) / 10. 17.(화) / 11. 3.(금) / 11. 15(수)

| 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동구), 신천경로당, 플러스마실요양원, 청아람경로당, 대구생활문화센터



협동조합 농부장터 | 현장모니터링 3회

| 일정 | 2023. 7. 17.(월) / 10. 17.(화) / 10. 18.(수) | 장소 | 철곡군 지천면 농장, 협동조합 농부장터



에이치아츠(H-arts) | 현장모니터링 2회

| 일정 | 2023. 7. 17.(월) / 10. 13.(금) | 장소 | 에이치아츠



커피맛을 조금 아는 남자 | 현장모니터링 3회

| 일정 | 2023. 8. 17.(목) / 8. 27.(일) / 10. 22.(일) | 장소 | 커피맛을 조금아는 남자(본점, 팔공산점)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희움) | 현장모니터링 5회

| 일정 | 2023. 7. 17.(월) / 10. 11.(수) / 11. 29.(수) / 12. 2.(토) / 12. 12.(화)

| 장소 | 한울림소극장, 공연예술연습공간, 희움, 서울시민청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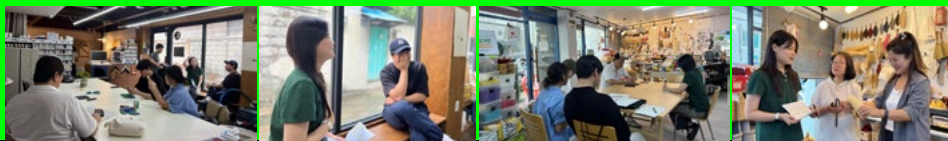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현장모니터링 3회

| 일정 | 2023. 8. 21.(월) / 11. 1.(수) / 11. 7.(화) | 장소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북현동 일원), 대구생활문화센터



더슬모 사회적 협동조합 | 현장모니터링 1회

| 일정 | 2023. 8. 9.(수) | 장소 | 더슬모 사회적 협동조합, 최윤경작가님 작업실



홀라(HOOLA) | 현장모니터링 2회

| 일정 | 2023. 8. 29.(화) / 10. 31.(화) | 장소 |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썬에스닷 | 현장모니터링 1회

| 일정 | 2023. 9. 26.(화) | 장소 | 에스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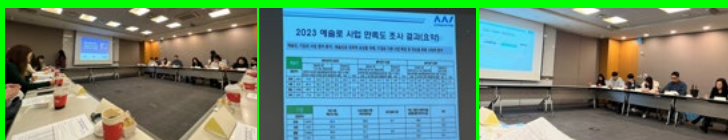
이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현장모니터링 2회

| 일정 | 2023. 9. 7.(목) / 10. 6.(금) | 장소 | 배나무샘골, 마을역사관 등



2023년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2023. 12. 4.(월) 13:00~16:00 서울스퀘어 3층 중회의실1(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2023년 예술로 사업 성과공유회 및 우수사례 시상식

2023. 12. 12.(화) 5:00~18:00 케이브하우스(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36)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대구' 사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

수정기자 je_100@naver.com3801호 입력 2023/12/13 15:49 수정 2023.12.14 10:01

올해 국비 예산 전국 최대 규모로 4년 연속 운영기관에 선정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예술인 5명 우수사례로 선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참여 기관이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이하 지원사업) 참여 기관이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은 예술인 복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지원사업 공모에 심혈을 기울여 2020년부터 4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사업비는 전국 최대 규모인 5억5542만4000원으로 14개 기업·기관 및 예술인 70명과 6개월간 예술협업 활동을 펼친 후 지난달 11일 성과공유회를 성료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사업 1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우수사례 시상제도가 신설됐다. 전국 13개 기관, 200개 팀(예술인 996명) 중 우수사례 수상 후보로는 43개 팀이 올랐다.

이 가운데 진흥원이 지원한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매칭 예술인 ▲박준우(리더/음악) ▲권영세(문학) ▲장재영(연예) ▲이승희(시각예술) ▲박재현(영화)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6개월간 예술협업 활동을 펼친 이들은 뉴딜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을 담은 전시 기록물을 전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 다큐멘터리 영상, 국악동요, 피란민촌의 오브제, 웹드라마 시나리오라는 색다른 콘텐츠를 발굴했다.

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력과 예술인이 발굴한 콘텐츠와 함께 '북현RE:CORD展' 전시로 성과를 냈다. 결과물은 향후 북현1동 거점시설인 '복잡소 기억전시관'에 전시 기록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4년간 총 230명의 예술인이 지역 내 46개 기업·기관과 다양한 이슈를 협업해 해결했고, 전년보다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돼 전국 지역사업 선정기관 중 최대 규모로 운영해 참여자들에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예술인에게 안정적 예술활동의 기반 마련과 기업·기관이 예술을 필요로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대구' 사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 _ 경북신문

2023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성과보고 아카이브 노트

일 더하기 We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로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운영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예술인지원팀

후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총괄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 박순태

운영 및 기획·편집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팀 이재백·임은영·박선진

사진

김현수

디자인

모모디자인(주)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예술인지원팀

A.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10

T. 053-430-1296, 1233 E. dgart123@dgfc.or.kr

www.dgfca.or.kr | www.artistcenter.or.kr

발행인

김정길

ISBN

979-11-90514-16-3 (03600)



©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인지원팀, 2023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각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 및 복제, 전재,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